

문화 + 예술
서울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ART SPACE



2009 / 11 / Vol 33



10월 7일, 유난히 하늘 맑고 바람 좋은 날, 금천구 독산동에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이 문을 열었다. 한때 전화요금 명세서를 찍어내던 인쇄공장은 이제 예술을 만들어내는 예술공간으로 이름과 몸을 바꾸고 새로운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찍게 되었다. 운전기를 돌리던 인쇄공의 땀방울 대신 매일매일 새로운 우주를 만들었다 허무는 예술가들의 고뇌와 열정이 뜨겁게 이 공간을 채워나갈 것이다.



정릉 3동 민속조사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 도시민속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동네 보고서. 이름 없는 촌부의 일상에서부터 낱아빠진 살림살이까지, 정릉 3동은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기억될까.



72

남산예술센터 개관 2009 시즌 프로그램을 훑다가 손이 멈춘다. 창작 공연 중심의 개관 프로그램에 뮤지션의 이름이라니, 그것도 작년부터 입소문을 타고, 인디 음악의 붐을 일으킨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다. 작사, 작곡 때로는 무대에서 묘한 퍼포먼스를 하던 장기하가 이번에는 연출도 한다. 드라마콘서트 연출자로 나선 장기하를 어느 하늘 높은 가을에 만나보았다.

COVER STORY
 서울시창작공간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낡은 공장과 빈 재래시장이 예술의 생산지로 거듭나며 도심 곳곳에 등지를 틔다. 별 볼일 없는 공간이 별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서울시창작공간이 예술가의 창작 및 교류,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어떤 매개체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Contents

02 CULTURAL NEWS 11월의 공연전시 소식

11월의 문화+서울

- 08 서울 예술가들, 서울시창작공간으로 날개를 펼치다 - 서울시창작공간 개관일지
- 12 서울시창작공간을 둘러보다 - 신당창작아카데미 탐방기 · 연희문화창작촌 스케치 ·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인터뷰
- 26 서울시창작공간의 나아갈 길을 묻다 - 뱅크아트1929 대표 오사무 이케다 인터뷰

다시 보는 서울

- 32 이경민의 경성 산책 구보씨, 카페 구경 가다 (상)
- 40 비하스드 디지털 보정 전문가 · 필름복원 전문가를 만나다
- 46 IMAGE SEOUL 가을걷이

지금 서울은

- 50 HOT SKETCH <명성황후>와 함께 일본 규슈 구마모토에 가다 - 명성황후의 숨결을 찾아서 현장기행 시즌3
- 56 HOT SKETCH 내 주변의 모든것들과 대화를 나누다 - 정릉3동 민속조사 보고서
- 60 HOT SKETCH 문화와 미디어 아트의 만남 - Text@Media Fest
- 64 EMERGING SPACE 스포츠 공간에 디자인을 접속하다 - 잠실종합운동장의 문화적 면모
- 70 서울을 말한다 나는 서울에 산다 _ 국립오페라단 이소영 예술감독

사람과 사람

- 72 FOCUS INTERVIEW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프로그램 드라마 콘서트 <정말 별 일 없었는지> 연출자 장기하
- 76 YOUNG ARTIST 2009 서울문화재단 문화창작활성화지원작가 소설가 김성중

서울 안과 밖

- 80 OPEN REPORT_서울 너머로 이곳이 나의 출발점, 내 작업의 시작이다 - 런던 디자인페스티벌 텐트 런던 참가기
- 86 I AM A SEOULITE 한글을 배우고, 정(情)을 알았다 _ 한글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모임 대표 김비로
- 88 OPEN REPORT_서울 속으로 나눔 경영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 LG 연암문화재단
- 90 한 장의 심표 기도와 독백과 단독의 트릴로지 _ 소설가 해이수
- 92 재단사업 2009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 96 재단소식
- 102 문화 캘린더
- 109 독자엽서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 발행일 2009년 10월 26일 | 등록일 2005년 6월 8일 | 발행인 안호상 |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 홍보마케팅팀장 이현아 | 이승민, 변현정, 김민지, 신동석, 김보연, 나오미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130-823)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 홈페이지 www.sfac.or.kr

디자인 · 제작 AGI Society 02.3141.9902 | 사진 AGI Studio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의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내에 문학인을 위한 보금자리 생긴다 연희문학창작촌 개관, 입주작가 19명 입주

서울시창작공간의 다섯 번째 공간인 연희문학창작촌이 오는 11월 5일 개관한다. 연희동 주택가 언덕배기에 위치해 '도심 속 전원형 문학촌'을 이룬 이곳은 서울에서 최초로 문을 여는 문학 전용 레지던시 스튜디오다. 부지 7,309㎡, 건물 4개동 1,480㎡의 규모로 작가 집필실 20개 실과 다목적 홀 2실, 문학전문 미디어랩 1실 및 산책로, 아트벤치, 야외이벤트 무대 등으로 구성되어 작가들이 편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모두 56명의 지원자 접수를 받았으며, 선정된 작가 및 기획 초청 입주 작가는 소설가 김남일, 은희경, 이현수, 유시연, 권지예, 김이정, 조용호, 백가흠, 손홍규, 김이은, 시인 신달자·이시영·신용목·김근·김경주·박준, 아동문학가 유은실·김해등, 희곡작가 최창근 등 모두 19명이다. 입주작가들은 1개월, 3개월, 6개월 중 원하는 기간만큼 머무를 수 있으며, 앞으로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입주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연인원 7~80여 명의 작가들이 입주 가능하다. 또한 3개실을 외국 작가 전용 레지던시로 마련, 세계적인 작가들을 기획초청하고 국내외 작가 교류 및 네트워킹의 중심지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연희문학창작촌은 문학 창작 지원뿐 아니라 다른 분야 전문가를 초빙, 장르 간 통섭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작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오브제 낭독극>과 <텍스트 실험극>, 지역 주민들과 서울 속 우리 문학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산책 등 지역사회와의 교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연희문학창작촌

서울문화재단 박범신 이사장의 친필 표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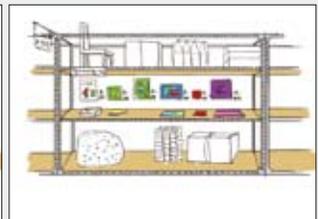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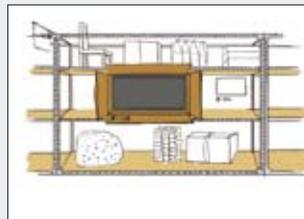


서교예술실험센터, 홍대 앞 문화를 펼쳐보이다 〈홍대 앞 다시 보다 -수집가 홍씨의 2009 아카이브 展·유랑마켓〉

일시 2009. 11.4~15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전관 및 홍대 앞 주차장 거리

문의 02-333-0246



서울시창작공간 서교예술실험센터가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서교예술실험센터와 홍대 앞 주차장 거리에서 <홍대 앞 다시 보다-수집가 홍씨의 아카이브 展·유랑마켓>을 선보인다. 인디밴드 500여 개 팀, 문화단체 20여 개 단체가 모여 있고 다양한 페스티벌 10여 개가 해마다 열리는 홍대 앞. 우리나라 클럽문화와 인디문화의 본거지인 이곳의 다양한 문화를 콘텐츠화 해 문화상품으로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홍대 앞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일반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2009년 한 해 동안 홍대 앞에서 벌어진 주요 전시, 공연,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의 집합전인 <2009 홍대 앞 문화 콘텐츠 연례보고 : 아트 로폴리스-홍씨의 아카이브> 展, 예술가들의 예술작품 및 친환경 문화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유랑마켓-콘텐츠 코디네이션> 등이 있다.

남산예술센터 11월 시즌공연 장기하와 얼굴들 드라마 콘서트 〈정말 별 일 없었는지〉

일시 2009.11.24~11.29 (평일 8시, 토요일 7시, 일요일 6시)

장소 남산예술센터

문의 02-758-2150

홈페이지 www.nsanartscenter.or.kr

지난 9월 2009 시즌프로그램 개막과 함께 국내 및 해외의 우수 현대 연극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남산예술센터의 11월 시즌공연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드라마 콘서트 〈정말 별 일 없었는지〉'다. '장기하와 얼굴들'은 포크와 록의 감수성을 조화시킨 음악색과 극적 요소가 풍부한 노래들로 젊은 세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문화아이콘이다. 그들이 인접 장르의 젊은 예술인과 함께 공연 전반에 연극적 요소를 가미한 독특한 형태의 퍼포먼스 음악공연을 남산예술센터 무대에서 선보인다. 20대의 허무한 일상과 적나라한 현실에 대한 묘사,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장기하의 심정을 자기고백적 서사로 무대 위에 옮길 예정이다. 웃음과 페이스스가 있는 노랫말과 인디적 감수성이 결합된 장기하의 음악은 젊은 세대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 가는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예술지원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만나다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

일시 2009.12.7 12:00~21: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1·2 전시실

문의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2-3290-7110~8

홈페이지 www.sfac.or.kr, fair.sfac.or.kr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2010 Seoul Arts Support Programs Fair)가 12월 7일(월) 12시에 서 저녁 9시까지 "예술, 만나다"라는 주제로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에서 열린다. 서울 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주관하여 처음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지원금 제공'에서 '지원서비스의 매개'로의 예술지원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예술지원에 관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 트렌드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문화Zone, 협력기관Zone, 포럼Zone의 세 가지 큰 장으로 나누어 예술 지원 사업 정보를 방문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1전시실의 서울문화Zone, 협력기관Zone에서는 정보 제공과 상담을 진행하며, 2전시실의 포럼Zone에서는 2010년 전망 그리고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만든다. 1전시실은 오후 1시~7시까지, 2전시실 오후 1시 30분~9시까지 문을 연다.

서울문화Zone에서는 컬처노믹스 전략을 따라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2010년 예술인·단체가 참여 가능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공모계획을 소개한다. 서울문화재단의 정기공모지원사업 계획을 포함한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세종문화회관,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25개 자치구, 서울 내 문예회관 등의 다양한 사업과 공간 정보를 제공하여, 서울시 예술지원의 새로운 방향과 그 구체적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협력기관Zone에서는 민간지원, 국제교류, 전국단위 공공지원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각 기업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각국 문화원, 16개 시·도 및 문화재단, 예술의전당 등의 전국단위 문예회관의 예술지원 프로그램과 예술가 참여 가능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하자센터에서는 법률·세무·노무에서 사회적 기업 전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포럼Zone에서는 'Creative Forum 2010 (예술정책과 트렌드전망)'이 열린다. 세션1은 서울문화재단을 포함해 공공부문, 기업, 국제교류를 망라한 예술지원정책의 변화방향을, 세션2는 예술인과 단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10년 트렌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저녁 7시부터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는 예술인 및 단체의 활발한 교류를 돕는 사회적 기업 네트워킹 파티가 준비되어 있으며, 1관 2층에서는 각 참여기관의 사업설명회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 40단체의 40개 작품을 40일 동안 2009서울국제공연예술제

일시 2009.10.13~11.21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명동예술극장, 남산예술센터
문의 02-3673-2561~4
홈페이지 <http://www.spaf.or.kr>



2009서울국제공연예술제(The 9th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SPAF2009)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해외와 국내 작품을 초청하여 10월 13일(화)부터 11월 21일(토)까지 40일간 서울의 주요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를 통합한 이후 올해로 9회째를 맞은 2009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이번 주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Analog & Digital)'로, 이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아르코예술극장, 예술의전당 등 서울시내 주요 공연장에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김철리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예술감독은 "국내 공연예술계가 과학기술을 예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인식해왔으나 이번 예술제에서는 공연예술의 깊고 오랜 원칙과 철학이 첨단 기술과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새로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한국, 노르웨이,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에서 초청된 17개의 무용 작품, 연극 19개 작품, 복합장르 4개 작품, 이상 총 40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 관객들은 대형 버티컬 스크린, 영화, 현장에서 직접 생중계되는 영상까지 다양한 디지털(Digital)과 기존의 공연예술(Analog)이 결합한 하이테크놀로지와 공연예술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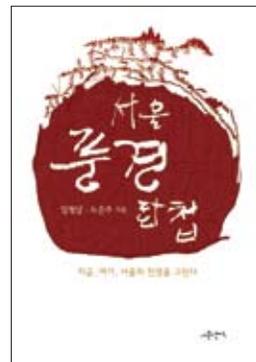
뉴욕 오페라와 베를린 필 공연 이젠 저렴하게 서울에서 본다

세계 정상급의 가수과 웅장한 연출로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125년 전통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을 굳이 뉴욕을 가지 않고도 영화관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티켓가격이 최소 \$150(약18만원)부터 최대 \$2,500(약300만원)까지인 2009~2010 시즌 공연을 관람료 2만원으로 서울 삼성동의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글 자막이 제공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4K해상도(HD의 4배인 4096*2160)의 고화질로 감상하기 때문에, 마치 현지 오페라 극장에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관람을 원하는 고객은 메가박스 홈페이지(www.megabox.co.kr)에서 예매 가능하며, 11월에 상영될 오페라는 푸치니의 <토스카>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또한 새로운 무대에서 관객을 만난다. 2005년과 지난해 내한공연에서 45만원의 티켓가로 평범한 공연 애호가에게는 멀게만 느껴졌던 베를린 필의 공연이 이제 9.9유로(약 18,000원)로 저렴하게 다가선다. 인터넷을 통해 공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콘서트 홀(<http://dch.berliner-philharmoniker.de>)'이 그들의 새로운 무대다. '디지털 콘서트 홀'은 시즌 내 33개 모든 콘서트를 라이브로 중계하며,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자료실에서 동영상상을 감상할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무료 교육 자료도 제공한다.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본 서울 구석구석의 이야기 문학 에세이 <서울 풍경 화첩>

서울에서 나고 자란 건축가 부부가 있다. <나무처럼 자라는 집>(임형남)과 <집주인과 건축가의 행복한 만남>(임형남, 노은주 공저)이라는 책을 통해 좋은 집에 대한 생각과 건축 철학을 담백하고 진중하게 들려줬던 이들이 이번에는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풀어놓았다. 지난 10년 동안 틈이 날 때마다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대한 글을 쓰고 그림을 남기고, 그 글과 그림들을 제법 묵직하게 엮어냈다. 21세기 초현대식 건물에서부터 공원과 옛집까지, 도심의 복잡한 대로에서 정적이 흐르는 오래된 골목길까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색을 입힌 그림에서 빠르게 흘러 그린 크로키까지 물감과 연필과 목탄을 섞어가며 그린 그림들은 서울의 겉모습뿐 아니라 속살까지 만지는 듯하다. 그 풍경 하나하나에 그들이 서울의 무엇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또 무엇에 희망을 새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녹아 있다.



지은이 임형남 · 노은주
출판사 서울산책
출간일 2009년 10월 9일

"서울은 우리에게 그냥 삶의 배경이고 살아온 장소이며 우리의 기억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약하게 생각하는 서울의 속도와 혼탁함에 익숙하고 아직도 모르는 서울의 구석구석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돌아다니길 좋아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을 그리며 살고 있다." (241~242쪽)

아시아 현대미술 프로젝트 City_net Asia 2009 展

일시 2009. 9.30~11.22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2~3층
문의 02-2124-8971
홈페이지 <http://seoulmoa.seoul.go.kr>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9월 30일~11월 22일까지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아시아 현대미술 프로젝트 City_net Asia 2009>展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서구 중심의 미술무대에 아시아의 동시대 미술을 소개하는 한편, 현대미술에서 아시아 미술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마련한 격년제 현대미술 프로젝트로, 아시아 주요 도시에 위치한 현대미술관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동시대 지역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그에 부합하는 작가를 선정하고, 각 큐레이터와 작가들이 하나의 주제를 통해 그 지역의 정체성과 동시대 미술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최근 국제 미술무대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미술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나아가 아시아 미술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번 <City_net Asia 2009>에는 동경(Mori Art Museum), 북경(Today Art Museum), 이스탄불(Istanbul Modern), 서울(Seoul Museum of Art) 등 4개 도시의 주요 현대미술관들이 참여한다. 일본의 동경 모리미술관 큐레이터 나츠미 아라키는 '중심을 벗어나 - 일본현대미술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변화 (Off the Center - Quiet Shift in Contemporary Art in Tokyo)'라는 주제로, 중국의 북경 금일미술관 큐레이터 리 샤오치엔은 '퇴적작용(Sedimentation)'이란 주제로, 이스탄불의 레벤트 칼리코글루 이스탄불현대미술관 수석 큐레이터는 '새로운 대륙; 이스탄불(The new continent; Istanbul)'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서울 전시의 주제인 '양날의 검(Double Ax)'은 양쪽으로 칼날이 있으므로 상대에게 밀면 나에게도 좋은 상대가 될 수도 있지만, 상대의 힘에 밀려 칼날이 다가 온다면 나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국내 유일의 국제경쟁단편영화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일시 2009.11.5~11.10
장소 씨네큐브 광화문
문의 02-783-6518~9
홈페이지 www.aisff.org

국내 유일의 국제경쟁단편영화제로서 7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꾸준히 내실을 다져온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가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열린다. 올해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 출품공모에는 총 82개국 2,027편(국내 602편/해외 1,425편)이 접수되어, 역대 최다의 출품국가 수와 출품작품 수를 기록했다. 전년도 1,743편에 대비 16%가 늘어난 이 기록적인 수치는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가 전 세계 젊은 영화인들의 주요한 성장 매개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중 32개국 79편이 영화제 기간에 상영되는데, 이들 작품은 국제경쟁부문과 감독열전, 테마단편전 등 4개 특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개막작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기막힌 상상력으로 비튼 아르헨티나 애니메이션 '생산적 활동'과 공상에 관한 유쾌한 메시지를 담은 프랑스 코미디 '내 머리 속의 낙서 WJ'다.

이번 영화제의 트레일러는 문화계 전방위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배우 구혜선이 맡았다. 배우 구혜선이 아닌, 영화감독 구혜선으로서의 자질을 조금씩 선보이던 중, 이번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공식 트레일러 연출을 통해 다시 한 번 감독으로 활약하여, 한 편의 단편영화와도 같은 트레일러를 완성해냈다.

이밖에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는 장 록 고다르, 레오 까락스, 밀러스 포만 등 거장들의 단편영화를 선보이는 '감독열전: 시네마 올드 앤 뉴'를 비롯해 국내 단편영화계의 색다른 화제작들을 살펴볼 수 있는 '테마단편전 I: 소통&I', 빔 벤더스, 제인 캠피온, 구스 반 산트,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 등 유명 감독 8인이 연출한 8편의 옴니버스 영화 '8'을 소개하는 '테마단편전 II: 8', 브라질 최신 단편영화와 만날 수 있는 '믹스플래닛: 올라, 브라질!' 등 4개의 특별프로그램과 주요 부대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집 11월의 문화 + 서울

1 서울 예술가들, 서울시창작공간으로 날개를 펼치다 서울시창작공간 개관일지

2 서울시창작공간을 둘러보다

공예미술을 집어삼킨 고래의 뱃속을 탐험하다 신당창작아케이드 탐방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법 연희문학창작촌 스케치

예술로 꿈을 짓는 공장지기들의 이야기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인터뷰

3 서울시창작공간의 나아갈 길을 묻다 뱅크아트1929 대표 오사무 이케다 인터뷰



11

서울시창작공간이 속속들이 문을 열고 있다.
지난 6월 남산예술센터를 시작으로
서교예술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에 이어 11월에는
연희문학창작촌이 개관한다.
「문화+서울」 이번 호는 서울의 문화지형을 바꾸고
문화서울의 위상을 높여 줄
서울시창작공간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보았다.

Seoul Art Space



11월의 문화+서울
서울시창작공간
개관일지

서울 예술가들,
서울시창작공간으로
날개를 펼치다



10월 7일, 유난히 하늘 맑고 바람 좋은 날, 금천구 독산동에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이 문을 열었다. 한때 전화요금 명세서를 찍어내던 인쇄공장은 이제 예술을 만들어내는 예술공장으로 이름과 몸을 바꾸고 새로운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찍게 되었다. 운전기를 돌리던 인쇄공의 땀방울 대신 매일매일 새로운 우주를 만들었다 허무는 예술가들의 고뇌와 열정이 뜨겁게 이 공간을 채워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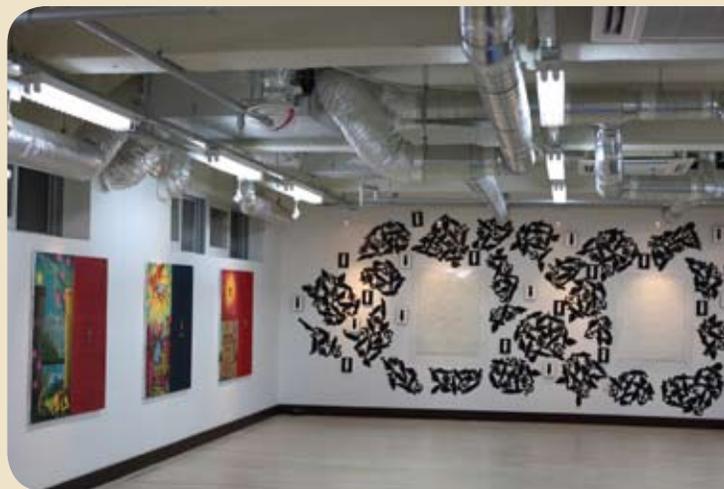
도심의 버려진 공간을 예술적으로 전환시킨다는 철학에서 시작된 '서울시창작공간 조성사업'은 이미 올 6월 동시대 연극 제작 극장인 남산예술센터와 홍대 앞 문화 커뮤니티 센터인 서교예술실험센터를 탄생시켰다.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디인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문을 연 곳이 바로 금천구 독산동의 한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한 '금천예술공장'이다.

'글로컬(Glocal)'이라는 다소 생소해 보이는 신조어를 내세운 금천예술공장의 미션은, 예술을 통해 세계와 지역을 아우르겠다는 것이다. 안으로는 시각예술뿐 아니라 실험예술, 비평, 도시미학 등에 이르기까지 16개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과 인문이 엉켜 서로가 서로를 욕구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예술을 잉태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금천 예술가들의 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고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가깝게는 금천구 구민들과의 문화 커뮤니티 조성에서부터 해외 예술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국제 레지던시' 역할이 그것이다.

오늘날 예술이 더 이상 순수라는 이름으로 순종(純種)의 미학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볼 때, 소통과 교류를 통한 어우러짐과 혼합의 공간인 금천예술공장이야말로 앞으로의 예술의 흐름을 예측하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열렸다! 꿈의 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은 개관식부터 색달랐다. 10월 7일 오후 2시 30분, 준공업지대로 알려진 만큼 지역주민이 아니고선 웬만해서 찾아올 일 없을 것 같은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문화예술인들은 물론이고 마을주민, 학교 갔다 돌아오던 어린이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특이한 '공장'을 구경하러 온 것이다. 유난히 새파란 가을하늘을 배경으로 창고동 위에 불쑥 솟아오른 6.5미터 높이의 철제 아트로봇(이기일 작, 프로파간다)은 미래의 전사와 같은 포즈로 예술공장만의 아우라를 마음껏 내뿜었다. 이윽고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한 배우들과 이들을 관찰하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등장했다. 입주 팀인 '스튜디오 우하하'(대표 민동현)와 '극연구소 마찰'(대표 이철승)의 합작으로 신체상황극 <태양이 너무 밝았기 때



금천예술공장 내부 전경



문에》를 선보인 것이다. 카뮈의 『이방인』을 각색한 이 작품은 카메라를 통해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환기시키면서 새로운 소통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한편 창고동에서는 에스파니아의 극단 ‘논 그라타’가 퍼포먼스로 개관 축하무대를 이어갔다.

이윽고 개관식이 시작되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은 테이프 커팅, 작가들과의 대화 및 공장 투어 등으로 이어진 후 3층 프로젝트스페이스로 자리를 옮겼다. 라진구 서울시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이 공장에 매일매일 산업연기 대신 예술연기가 피어오르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아트로봇 퍼포먼스’였다. 무대 위 아트로봇을 움직일 리모콘을 또 다른 로봇이 직접 라진구 부시장에게 전달했고, 리모콘 버튼을 누르자마자 본격적인 로봇 쇼가 펼쳐졌다. 무대 왼편에서는 귀여운 꼬마 로봇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무대 중앙에서는 두 개의 아트로봇이 개관축하 메시지를 직접 적었다. 로봇이 쓰는 ‘축’이라는 글자에 참석자 모두 숨죽이며 바라보다 흐뭇한 웃음을 터뜨렸다. 앞으로 금천예술공장은 인근 가산디지털 단지의 IT업체와 협업으로 ‘아트로봇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쇼는 그 시작을 알리는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위 신체상황극 <태양이 너무 밝았기 때문에>
아래 <아트로봇 퍼포먼스>

금천예술공장이 문을 여는 날, 작가들도 모두 방방마다 문을 열어놓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작가들의 작업실이란 이런 곳이구나, 평소 접해보기 어려운 풍경 앞에 손님들은 호기심어린 눈길을 쉽게 거두지 못했다. 한편 개관기념 공공예술 프로젝트 <플랜B, 프로젝트B>의 다양한 설치물이 전시된 가운데, 지하 전시실에서는 해외 교류 전시의 일환으로 호주아시아링크와 함께 다섯 명 작가들의 시선에 포착된 사회를 그린 <언더 마이 스킨> 기획전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예술과 사람, 도시를 연결하는 고리

서울시창작공간은 소통과 교류라는 미션을 부여받고 탄생한 곳으로, 단순한 창작스튜디오와는 개념이 다르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서울시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문화로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로 그 뿌리를 내리는, 예술과 사람, 도시, 나아가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이자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올해 이미 3개 창작공간의 문을 열었고 연말까지 3개의 창작공간을 더 개관할 예정이라 빠른 시일 안에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서울시창작공간에 대한 내외부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개관식 다음날인 10월 8일에는 금천예술공장 3층 프로젝트스페이스에서 ‘창작공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란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약 150여 명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청중들과 함께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창작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발제자로는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추진단 김윤환 단장을 비롯해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성공적인 창작공간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는 ‘뱅크아트1929’의 디렉터 오사무 이케다(Osamu Ikeda), 네덜란드의 창작공간인 스마트(SMART Project Space)의 디렉터 토마스 페즈(Thomas Peutz), 그리고 스페인의 유명 레지던시인 앙가(Hangar)의 국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조아나 세르비아(Joana Cervia)가 참

석해 각 공간의 현황과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역사적 건물을 활용하여 도시 심장부에 활기를 불어넣는뱅크아트1929의 성공사례는 앞으로 금천예술공장이 나아갈 길을 잡는 데 있어 좋은 참고가 되었고, 예술가와 시민들과의 예술을 통한 관계 맺기를 이야기한 네덜란드 스마트 프로젝트 스페이스의 사례와 국제 레지던시로서 다양한 해외 작가를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스페인 앙가 레지던시 또한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작공간 조성과 시민을 통한 예술의 확산은 이미 시대의 흐름이자 자연스런 귀결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울시를 감싸 안는 따뜻한 예술 등지, 서울시창작공간

한편 서울시창작공간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남산예술센터는 지난 9월 11일부터 '2009 시즌 프로그램'을 발표, 동시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작가들을 통해 오늘의 서울을 해부하는 문제작들을 쏟아내고 있다. 11월에는 장기하와 얼굴들의 드라마 콘서트 <정말 별 일 없었는지>(11.24~29)가 무대에 오른다. 홍대 앞 문화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센터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교예술실험센터의 가을도 분주하다. 10월에는 특히 도심의 야외라 할 만한 '옥상'을 주제로 여러 행사를 펼쳤는데 '옥상 공방'과 옥상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달뜩 극장'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11월에는 홍대 앞의 독특한 문화를 종합해 선보이는 <홍대 앞 다시 보다 -수집가 홍씨의 2009아카이브展·유랑마켓>이 서교예술실험센터와 홍대 앞 주차장 거리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곳에서 홍대 앞 예술가들의 예술작품과 직접 제작한 친환경 디자인 상품이 전시, 판매될 예정이다.



신당창작아케이드 내부 전경

또한 10월 16일 개관한 신당창작아케이드는 국내 최초로 공예창작공방을 표방, 시장과 예술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개관기념으로 <입주작가 오픈 스튜디오>를 비롯해 시장 내 다양한 이미지를 영상물과 사진으로 표현한 기획전 <시장의 발견>과 <시장, 예술을 만나다>, 동대문패션과 신당 예술가들의 협력전인 <메이드 인 신당>, 일반 시민 대상 공예체험 행사인 <나도 예술가> 등이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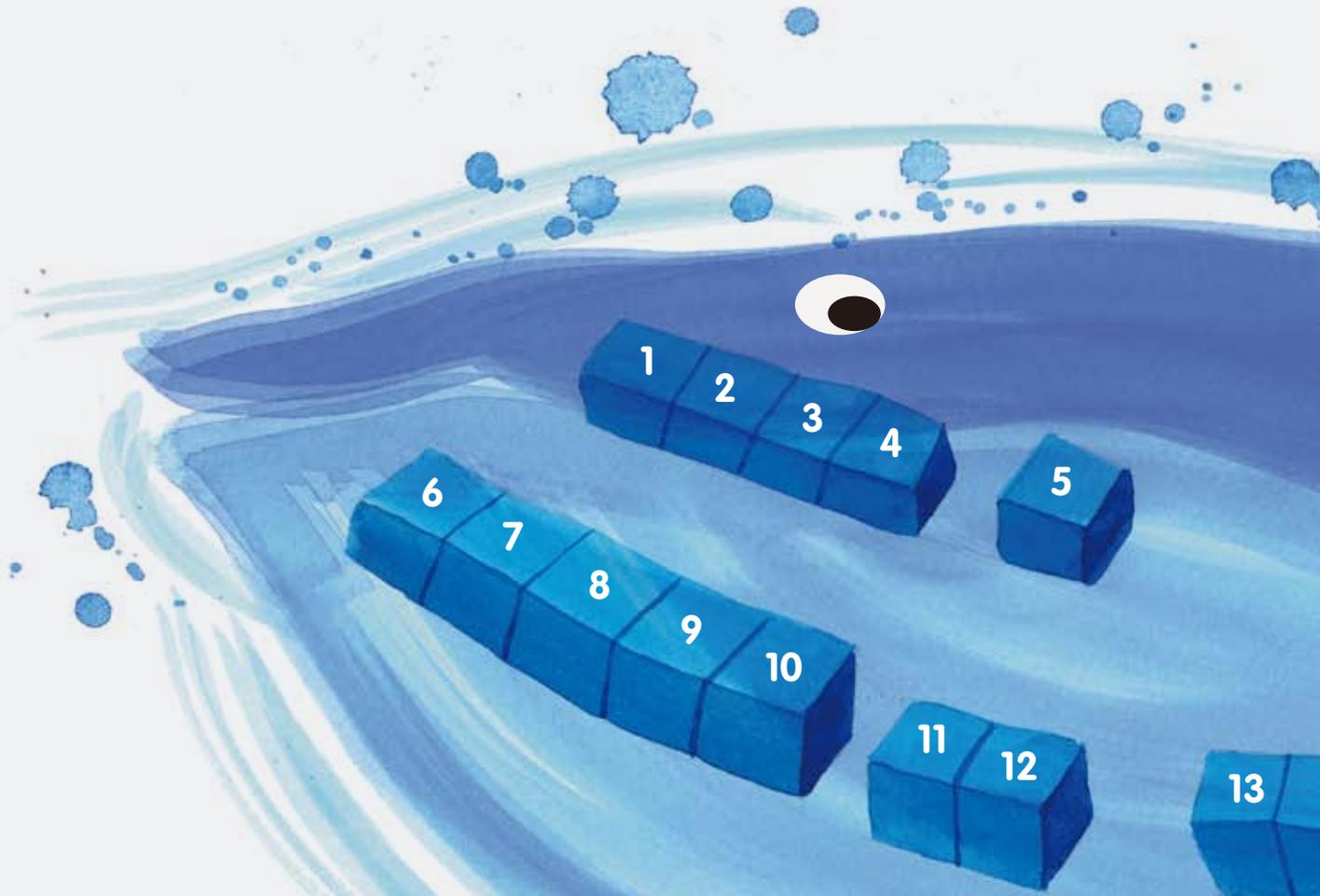
서울시 최초의 문학전문 레지던시로 알려진 연희문학창작촌도 11월 5일 개관을 한다. 이미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소설가 김남일, 은희경, 권지예, 백가흠과 시인 신달자, 이시영, 신용목, 김경주 등 모두 19명의 작가들이 선정되어 입주를 시작했다. 깊어가는 가을, 연희문학창작촌은 작가들의 감성으로 따뜻하게 불 밝힐 것으로 보인다. 12월 중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문래예술공장도 개관 준비 행사로 분주하다. 문래창작촌 지원센터로 나서는 문래예술공장은 이미 10월에 일본 극단 '와라비자'의 거리공연을 실시한 바 있고 12월에도 문래창작촌 공연예술가 팀과 함께 문래동 거리 곳곳에서 게릴라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창작공간의 행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0년엔 성북, 관악, 홍은 지역에도 새로운 창작공간이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예술가들에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고 시민들에겐 따뜻하고 친근한 문화 등지가 되어 줄 서울시창작공간, 앞으로의 행보를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기대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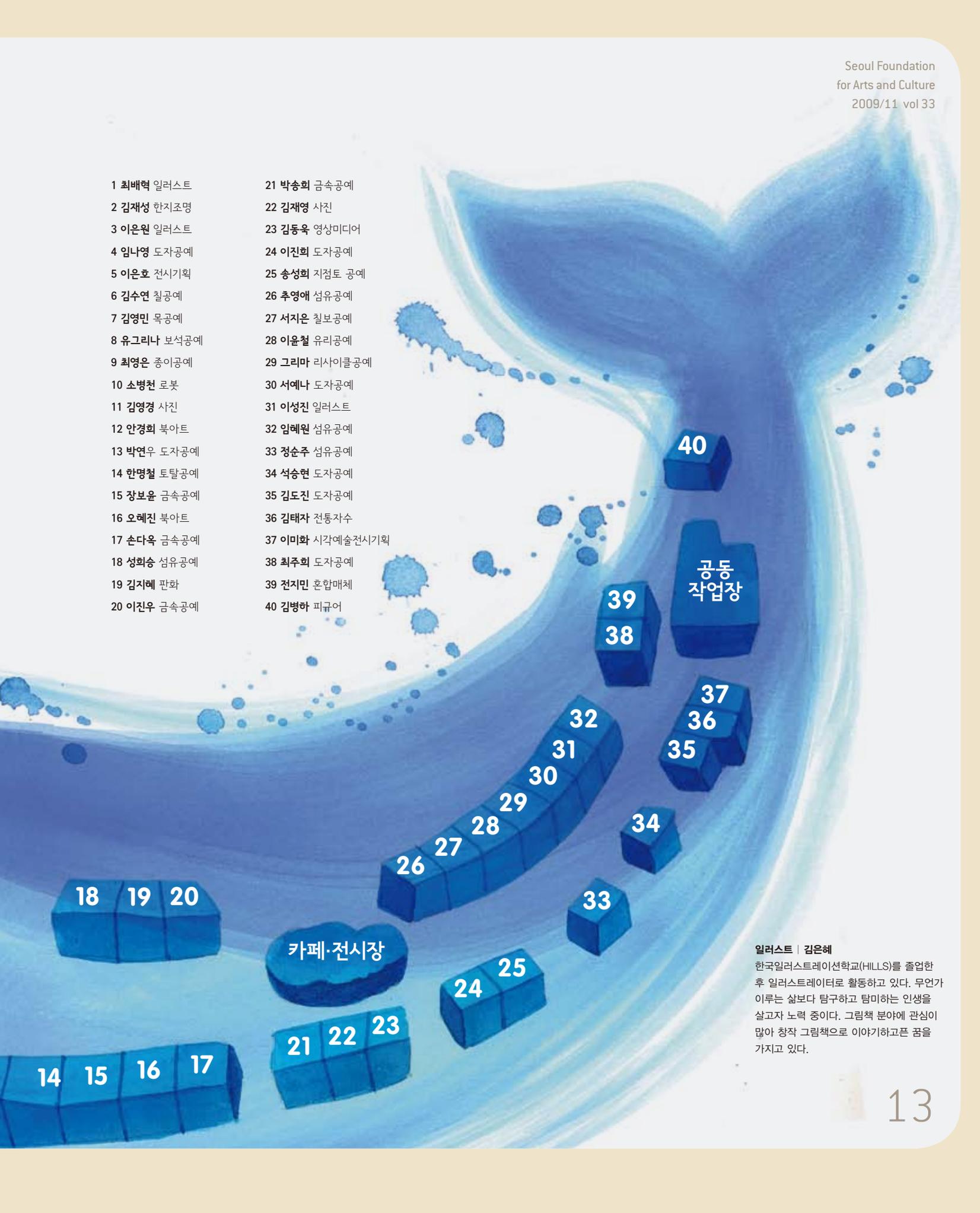
공예미술을 집어삼킨 고래의 뱃속을 탐험하다

재래시장에서 예술창작 공간으로 문을 연 <신당창작아케이드>

신당창작아케이드가 문을 열었다. 재래시장 지하상가의 빈 공간들이 예술가들의 작업 공방으로 다시 태어났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시장 속으로 들어간 작가들.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는지, 스튜디오의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 | | |
|-------------|-----------------|
| 1 최백혁 일러스트 | 21 박송희 금속공예 |
| 2 김재성 한지조명 | 22 김재영 사진 |
| 3 이은원 일러스트 | 23 김동욱 영상미디어 |
| 4 임나영 도자공예 | 24 이진희 도자공예 |
| 5 이은호 전시기획 | 25 송성희 지점토 공예 |
| 6 김수연 칠공예 | 26 추영애 섬유공예 |
| 7 김영민 목공예 | 27 서지은 칠보공예 |
| 8 유그리나 보석공예 | 28 이윤철 유리공예 |
| 9 최영은 종이공예 | 29 그리마 리사이클공예 |
| 10 소병천 로봇 | 30 서예나 도자공예 |
| 11 김영경 사진 | 31 이성진 일러스트 |
| 12 안경희 북아트 | 32 임태원 섬유공예 |
| 13 박연우 도자공예 | 33 정순주 섬유공예 |
| 14 한명철 토탈공예 | 34 석승현 도자공예 |
| 15 장보윤 금속공예 | 35 김도진 도자공예 |
| 16 오혜진 북아트 | 36 김태자 전통자수 |
| 17 손다옥 금속공예 | 37 이미화 시각예술전시기획 |
| 18 성희승 섬유공예 | 38 최주희 도자공예 |
| 19 김지혜 판화 | 39 전지민 혼합매체 |
| 20 이진우 금속공예 | 40 김병하 피규어 |



일러스트 | 김은혜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HILLS)를 졸업한 후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무언가 이루는 삶보다 탐구하고 탐미하는 인생을 살고자 노력 중이다. 그림책 분야에 관심이 많아 창작 그림책으로 이야기하고픈 꿈을 가지고 있다.

요즘, 신당동 중앙시장과 이어지는 지하상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주인을 잃고 먼지만 폴폴 날리던 빈 점포들이 새 주인을 만나 개성 넘치는 공예창작공방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캄캄하고 썰렁하던 지하상가의 밤은 예술가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로 반짝반짝 불을 밝히고 창작의 열기로 따끈따끈 온도가 오른다. 재래시장의 활기와 예술창작의 에너지가 만나 수상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이곳은 '신당창작아케이드'다.

재래시장 한복판, 비밀의 문이 열리다

재래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황학동 언저리, 인도에 늘어선 좌판들을 지나 신당중앙시장 입구로 들어선다. 어디선가 개 볶는 냄새가 진동이다. 짐을 실은 오토바이들의 어수선한 엔진소리, 상인과 손님 사이 떠들썩한 흥정까지 어제와 다른 없는 오후2시의 풍경.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 바로 천정이다. 물고기, 사슴, 당나귀, 술방울, 연꽃, 작은 연꽃송이 위에 얽전히 앉아 있는 개구리까지, 마치 커다란 모빌처럼 천막으로 이어진 천정 아래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상인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늦은 밤 크레인을 끌어다 놓고 밤새 달았다는 김재성 작가의 한지등공예 작품이다. 아직 전선이 연결되지 않아 불 들어온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머지않아 이곳의 밤을 날마다 축제처럼 밝혀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뚝했다.

채소가게, 반찬가게, 건어물가게, 닭발을 손질하는 아주머니와 '개고기'라고 쓰인 간판을 지나니 신당지하상가로 들어가는 통로가 나타났다. 좁은 계단을 통해 도착한 지하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기둥에 그려진 그림이나 군데군데 자리 잡은 설치물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마치 갤러리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다. 갓 칠한 도료의 잔향을 느끼며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양 옆으로 기존의 점포를 리모델링한 작가들의 스튜디오가 줄줄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때 지역의 중심상권을 이루며 전성기를 누리다 쇠퇴해 버린 지하상가가 예술창작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수상한 태동을 즐기며 발걸음을 옮긴다.

누구나 들여다 볼 수 있는 작가들의 환한 방

현재 신당창작아케이드에 입주한 작가는 모두 40명. 섬유공예, 도자공예, 종이공예, 금속공예, 종이공예, 목공예, 일러스트, 판화, 북아트, 사진, 영상 등 분야도 다양하다. 공통점이 있다면 순수예술보다는 공예와 디자인 등 우리의 일상과 친밀하고 활용성이 큰 생활예술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런 예술가들을 불러 모은 데는 이유가 있다. 예술가들이 공방에 숨어 자기만의 세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 속으로 들어가 상인들,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예술의 향기를 퍼뜨리는 것, 나아가 소중한 창작의 결과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이 신당창작아케이드의 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공방들은 벽이 모두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다. 안에서 누가 뭘 하는지 훤히 들여다보인다. 물론 작가에 따라 천이나 합판 등으로 일부를 가려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공방은 개방된 오픈스튜디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1호실부터 40호실까지 'ㄱ'자로 연결되는 공방마다 작가의 개성이 묻어나는 명패가 매달려 있다. 앞으로 이 작은 공간에서 탄생할 물건들과 삶을 나누게 될 사람들, 처음 맛보게 될 공동작업 등 모든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을 담아 직접 만든 것들이다. 공방 입구에 시트지로 레터링한 짙막한 프로필 역시 작가들이 직접 자신을 소개한 글이다.

시장골목에서 발견하는 재미있는 예술이야기

창작공방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공동작업장이 있다. 왼쪽에 크기 순서로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은회색 상자. 은행금고처럼 생긴 이것은 도자기를 굽는 최신식 가마다. 가마와 마주보고 있는 것은 작가들이 함께 사용하는 긴 작업테이블, 그리고 안쪽으로 난 별도의 작은 방은 공구실이다. 공구실 입구와 기둥, 철창이 난 문까지 진한 다홍색과 검정색의 대비가 산뜻하다. 공구실 안에는 주로 설치작업을 할 때 필요한 대형 공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작가들이 도구 구입에 대한 부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들이다. 이곳에서 작가들은 자기를 굽고, 나무나 철골을 자르고 이어 세상 단 하나뿐인 물건을 만들어낸다. 완성된 작품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전시실은 ‘ㄱ’자로 꺾어져 내려오는 초입에 있다. 최초의 ‘시장갤러리’로 기록될 이 공간을 가장 먼저 채우게 될 이야기는 신당창작아케이드의 변화와 시장의 재발견에 대한 것이다. 개관기념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작될 다큐멘터리 영상전과 사진전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했다.

전시실을 나와 다시 복도를 걷는다. 지나가던 아주머니 두 명이 렌티큘러(Lenticular : 평면적인 이미지를 3차원적으로 재구성한 입체물)로 장식한 기둥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이거 저기 시장 깨 볶는 아줌마 아냐?” “오마, 그러네? 사진이 아주 재미있구먼!” 깔깔대며 가던 길을 재촉하는 아주머니들을 따라 내려오는 길에 신기한 횃집을 발견한다. 바깥 유리벽과 실내 벽에는 푸른 바다가 넘실대고, 천정에는 동그란 튜브들이 대롱거린다. 작가들이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소품을 만들어 꾸민 예술상점 1호 ‘서해횃집’. “손님들이 멋있다고 난리예요. 이렇게 손수 꾸며준 작가님들한테 고마울 뿐이죠!” 조규석 사장의 행복한 웃음에 덩달아 웃음이 났다.

새로운 예술공동체에 대한 즐거운 상상

오후2시의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아직 조용하다. 예술가들 대부분이 야행성이기도 하거니와 낮에는 강의를 나가는 등 대외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공방의 창작 열기는 주로 밤에 달아오른다. 그 가운데 캄캄한 밤의 반딧불이처럼 지하공간을 밝히고 있는 공방들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본다. 작업테이블과 조명스탠드, 진열장, 작은 싱크대가 놓인 네모난 공간. 작업분야에 따라 테이블 위에 놓인 미술도구와 재료들이 다르고 작가의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 분위기도 제각각이다. 친한 친구의 신혼집을 구경하듯 쏙쏙한 재미!

“이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하나도 안 어색해요. 오히려 제 작업을 공유하는 기분이라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한지향기’의 최영은 작가는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이 특이한 공간의 매력에 푹 빠진 듯했다. “나와 전혀 다른 분야의 작가들과 이웃이 되어 서로의 작품세계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요. 제가 몰랐던 재료와 방식으로 작업하는 작가들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다른 공방 구경 가는 게 가장 큰 재미랍니다.”

실제로 신당창작아케이드에 입주한 작가들은 다른 작가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수다한 개성이 결합된 실험적인 예술작품을 통해 신당창작아케이드만의 색깔을 만들어나가고 싶다는 바람이다. 얼마 전에는 입주 작가 반상회를 열고 대표와 총무를 비롯한 몇몇 임원진을 선출하기도 했다. 대표를 맡은 ‘라이트스토리’ 김재성 작가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연결고리를 강화한 공동작업”을 꿈꾸며 벌써 몇몇 작가와 물밀 작업 중이다. 이렇게, 창작공방의 모습만큼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고래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글 | 이현구

잡지기자, 사보기자, 광고기획사 카피라이터를 거쳐 현재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다양한 기업의 사보 및 간행물 필자로, 광고 카피라이터로, 매체를 넘나들며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고 있다.

11월의 문화+서울
신당창작아케이드
탐방기





신당창작아케이드 작업실 전경



사진 | 정강

중앙대학, 캘리포니아예술대학 대학원, 시카고예술대학 대학원에서 사진, 비디오아트, 필름을 전공했다. 현재 사진, 영상설치, 실험영화를 만들고 있으며 한국, 미국, 중국 등지에서 갤러리와 상영관을 오가며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일 개체로 존립하는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법

연희문학창작촌 스케치

11월 5일, 연희문학창작촌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책 속에서만 살던 문학들이 연희동 주택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 온 것이다. 누구라도 시인이 될 것 같은 서울의 가을 하늘 아래에서 사람과 문학이 다정하고 따뜻한 만남을 갖고 있다.

연희문학창작촌 전경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연희동은 일찍이 내 문학의 공간이었다. 나는 이화여고를 다니던 유난히 목이 새하얀 여학생을 좋아한 적이 있다. '하이틴' 시집 속의 글을 골라 편지를 쓰고, 그 친구가 살던 연희동 집, 때문에 매달린 우유주머니에 몰래 편지를 넣어두곤 했었다. 공교롭게도 그 길목 근처에 연희문학창작촌이 개관했다. 서울시역사편찬위원회 건물을 재단장한 연희문학창작촌에는 소박하지만 고즈넉한 마당이 있고 시민들에게 개방될 미디어 랩 도서관이 있고 끌림, 흘림, 울림, 들림 네 개의 동에서 세상에 연애편지를 쓰고 있는 열아홉 명의 작가들이 있다.





11월의 문화+서울
연희문학창작촌 스케치

창작촌의 산책로

사람이 새와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닌, 나무와 풀을 키우는 것이다.
창작촌의 산책로에는 작가들보다
먼저 새들이 입주해 있었다.
꼭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호랑지빠커며
청딱따구리, 산비둘기 같은 새들이
다른 새들을 불러내는 소리, 옆옆
주걱에서 잘 마른 빨래를 터는 소리,
떡갈나무가 잎을 곧게 펴고 빛을 받는
소리, 소리들이 산책로에 가득하다.



집필실

창작촌의 집필실들은 크고 넓은 창문을 많이 갖고 있다. 창문이 많아 흘러나오는 불빛도 많고 불빛이 많아 밤도 많다. 흔히 알고 있듯 작가들은 주로 밤에 집필을 한다. 불빛 하나 켜진 고요한 밤에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작품 속에 넣어 보기도 하고, 오래전에 떠난 곳을 원고지 위에 그려 넣기도 한다. 그렇게 밤을 건너다가 더 없이 외로워지는 새벽 즈음이면 옆방에 있는 작가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도착한다. '차 한 잔 할까?' 외로울 때 사람은 조금 더 외로워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외로울 때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야외무대

창작촌의 언덕 기슭에는 야외무대가 있다. 조금 있으면 동네 아이들이며 주민들이 저 비어있는 무대 앞까지 바짝 모여 앉아 작가들의 낭송을 듣고 떠리 읽기도 할 것이다. 문학 작품과 다른 예술분야와의 설레는 만남도, 문학 관련 라디오 공개방송도, 해외작가와의 교류도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글 | 박준

시인. 2008 계간 「실천문학」으로 등단. 연희문학창작촌 최연소 입주 작가로, 현재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이다.

일러스트 | 김은혜

예술로 꿈을 짓는 공장지기들의 이야기

지난 10월 개관한 금천예술공장은 서울시창작공간 중 최초로 국제 레지던시를 표방한 실험적인 창작공간이다. 국내외 예술가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Local)과 세계(Global)를 잇는 국제적 예술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시각예술을 비롯해 설치·영상, 공연·실험예술, 이론·비평·과학·인문학, 도시·자연미학, 글로컬(Glocal) 미학 등 각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원대한 꿈을 공유하기 위해 모인 입주 작가들을 금천예술공장에서 만나 그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 기대하는 것들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시각 예술

박능생 회화

“금천예술공장의 좋은 점이에요?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죠. 하하.”
수더분한 웃음이 수목화 같은 박능생 작가. 그는 수목을 주제로 자연과 도시,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회화작업을 한다. 올 한해도 한국과 중국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고 관객과 활발히 소통해온 그에게 금천예술공장은 새로운 작업, 새로운 소통을 꿈꾸게 하는 신나는 소식이었다. 이곳에 머무는 시간 동안 그는 예술공장에 가득한 창조에너지를 모아 열심히 아이디어를 가동해볼 생각이다. “현대수목화에 담은 ‘서울 풍경’, 수목과 혼합재료를 사용한 ‘위험한 풍경’, 사진을 활용한 ‘영상풍경’ 등 다양한 풍경을 그려 보려고요.”



장석준 사진·설치

사진을 재료로 설치작업을 하는 장석준 작가에게 금천예술공장은 기다리던 꿈의 공장이었다.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국 레지던시의 프로그램들을 보며 많이 부러웠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금천예술공장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오랫동안 꿈꿔온 새로운 소통. 그는 입주 작가로 선정된 기쁨이 다 가시기도 전에 이곳에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 뉴질랜드작가 안드레 헤머(Andre Hemmer)와 금천예술공장 내부의 장식을 함께 설치하게 된 것이다. 현재 원서동 프로젝트에 이어 금천구라는 공간을 다시 보는 ‘금천구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여기 있는 동안 레지던시 공동프로젝트 작업의 즐거움을 실컷 느껴보고 싶다.

이호진 회화·영상·설치

이호진 작가는 ‘통합장르형 프로젝트 스페이스’를 표방한 금천예술공장이 기다려온 바로 그 작가다. 그는 ‘한 가지 놀이’보다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긴다. 그리고 ‘혼자 놀기’보다 ‘여럿이 놀기’를 즐긴다. “금천예술공장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함께 어울려 작업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서로의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주고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모색해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는 앞으로 On-Going 프로젝트, Art-Bus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벽화작업과 설치작업, 게릴라성 전시를 통해 금천구에 신나는 예술 바람을 불어넣을 생각이다.



설치 ·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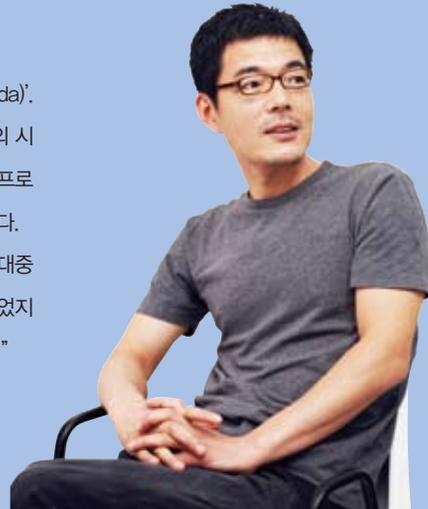
민동현 스튜디오 우하하 대표

영상, 애니메이션, 음악 등 아티스틱한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섭렵하는 멀티아티스트들이 뭉쳤다.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나는 스튜디오 우하하! 단편영화와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선보였던 '우하하만의' 독특한 예술비행법을 금천예술공장에서 더욱 풍성한 맛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라는데? "미지의 세계를 발견한 느낌이랄까요? 서울에서 발견한 낯선 동네 금천구에서 새로운 영화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지역주민 대상 상영회도 열고 싶고요." 앞으로 공연예술영상 아카이브, 무용영상 작업을 비롯해 인디뮤지션 교류 프로젝트, 지역사회 교류 프로젝트 등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합동작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기일 설치 · 공연

창고동 지붕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6.5m 크기의 아트로봇 '프로파간다(Propaganda)'. 이기일 작가가 만든 이 설치물은 금천예술공장이 추진하고 있는 '아트로봇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면서 일찌감치 금천예술공장의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설치와 공연을 결합한 프로젝트 실험을 즐기는 그는 그 연장선상에서 더욱 실험적이고 독특한 작업들을 준비 중이다. "60년대 한국밴드 1세대의 활동을 정리한 전시와 공연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중음악은 일제시대를 거쳐 미군부대에서 외국 곡을 카피해 부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요. 그 시절 밴드의 활약상과 전설을 40년이 지난 오늘의 눈으로 다시 살펴보고 싶어요."



천영미 설치

금천예술공장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마음을 사로잡는 별 모양의 설치조형물. 'Secret Star'라는 이름처럼 비밀스레 아름다운 이 별은 금천을 방문한 손님들을 환영하는 뜻으로 만든 천영미 작가의 입주기념 작품이다. '국제 레지던시' 형태의 서울시창작공간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설렘으로 기다려온 기회. "외국의 레지던시를 직접 경험하진 못했지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베니스 비엔날레의 양혜교 작가도 많은 작업을 이런 레지던시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8월 심사를 거쳐 금천예술공장의 입주 작가로 선정된 기쁨은 앞으로 최대한 성실하게, 그리고 알차게 이 공간을 사용하겠다는 각오로 이어지고 있다.

이세옥/최수환 미디어아트

이세옥 작가와 최수환 작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한 영상설치 작업을 하는 미디어아트 그룹이다. 이세옥 작가가 기획을 하고 영상물을 제작하면, 최수환 작가는 거기에 사운드를 입히고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렇게 완성된 영상물은 관객들과 소통하는 공간 안에서 멋진 미디어 퍼포먼스로 거듭나게 된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분야지만 두 사람은 새로운 실험을 멈추지 않는다. “이번에는 인터랙티브 영상을 공간 내부에 설치해서 방문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그밖에 정보의 공간이면서 서사의 공간인 다중 스크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려고 해요.”



글로컬 미학



이수영/리금홍 커뮤니티아트

3년 전 우연히 만나 '빈 집'에 대한 작업을 함께 하게 된 이수영 작가와 리금홍 작가. 이수영 작가는 개인적인 역사의 기록을 모으는 작업을, 리금홍 작가는 한 공간이 담고 있는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을 기록하는 작업을 했다. 부암동 빈 집에서 금천예술공장으로 동지를 옮긴 이들의 두 번째 공동프로젝트 주제는 '가리봉 엔벤탐타운'. 앞으로 이곳에서 1년 동안 가리봉동 조선족의 음식문화를 요리책에 담는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다. “음식을 추적해가다 보면 한 사회의 문화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는 가리봉 엔벤탐타운에 사는 조선족과 그들의 단골식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내년에는 중국 길림성을 답사하려고 해요. 맛과 냄새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책, 내밀하고 감각적인 책이 될 거예요.” 조선족과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금천구를 예술로 재생하는 의미 있는 글로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정은혜 커뮤니티아트

정은혜 작가의 직업은 미술치료사다. 2006년에는 탈북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워크숍을 개최했고, 2007~2008년 미국 시카고 UCAN 청소년 주거 치료센터에서 미술치료사 겸 수퍼바이저로 일했다. 그가 금천예술공장의 식구가 된 것은 일반적인 스튜디오와 차별되는 금천예술공장의 독특한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으로 이곳에서 개인적인 연구와 집필뿐 아니라 입주 작가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모임을 자주 갖고 싶어요. 주변의 친구들과 금천구 주민들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도 정기적으로 열고 싶고요.” 미술관 안팎을 넘나들며 소통의 문제를 돕는 문화통역사의 역할 또한 그의 몫이다.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총 14팀 중 일부의 인터뷰만 담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 한정희(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추진단)

정리 | 이현구

사진 | 박민애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주로 공연, 인터뷰 사진을 찍어왔다. '서울 포토 페어'의 전시기획 코디네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다. 카메라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몹시 사랑해 인물사진에 특히 애착을 느끼는 가슴 뜨거운 아가씨다.

11월의 문화+서울
뱅크아트1929 대표
오사무 이케다 인터뷰



오사무 이케다(Osamu Ikeda)

B 세미나 스쿨을 졸업했으며, 1986~1991년 힐 사이드 갤러리 디렉터,
2006년 문화청 「문화재 건축물의 보존·활용의 추진」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일본 BankART1929 및 PH스튜디오 대표로 있다.

B a n k

서울시창작공간의 나아갈 길을 묻다

뱅크아트1929 대표 오사무 이케다 인터뷰

낡은 것을 허물고 새 것을 짓는 것만이 개발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굴하거나 만들어내는 것 또한 개발이다. 일본의 항구도시 요코하마시는 해안 창고였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장이나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쇠퇴한 도시중심지가 활성화되면서 문화가 보이고 미래가 생겼다. 뱅크아트 1929의 대표 오사무 아케다로부터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코하마시의 Creative City Yokohama 정책의 성과와 서울시창작공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A

R

T

O

S

A

M

U

I

K

E

D

A

1

9

2

9

11월의 문화+서울

뱅크아트1929 대표
오사무 이케다 인터뷰

‘뱅크아트1929(BankART1929)’는 도시의 역사적인 건물들을 새로 단장하여 동시대의 문화 예술 발전과 도심 속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고안된 요코하마시의 프로젝트다. Bank와 Art가 결합된 ‘뱅크아트(BankART)’는 옛 은행 건물을 문화예술용도로 활용하였다는 의미이며, ‘1929’는 다이이치 은행 건물과 후지은행이 요코하마에 설립된 연도이자 뉴욕 현대 미술관(MoMA)의 설립연도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 시장이 무너진 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진 잔인한 경제상황에서 예술이 비판적 역할을 수행하던 상징적인 해를 가리키기도 한다.

뱅크아트1929는 옛 다이이치은행, 후지은행을 단장해 창작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요코하마시에서는 공익 설비비용을 부담하며 건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뱅크아트의 기본 개념은 간단하다. 요코하마의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취해 현대의 것으로 만든다. 그 자산은 역사적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도시, 지방 음식, 오래된 사진, 심지어 부토 무용수 오노 카즈오에 이르기까지 ‘요코하마답다’는 것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해당된다. 뱅크아트1929는 이러한 각각의 자산이 지닌 기존의 가능성을 가지고 요코하마 고유의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년 간 이러한 도심 속 문화예술창조공간인 뱅크아트1929를 이끌어온 이케다 오사무(池田修) 디렉터가 10월 8일에 개최된 금천예술공장 개관기념 국제심포지엄 발제자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심포지엄이 끝난 저녁에 이케다 오사무 뱅크아트1929 대표로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작공간의 운영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뱅크아트1929(이하 뱅크아트)와 한국의 창작공간은 시작과 규모, 업무 등에 있어서 다른 점이 많다. 일본에는 뱅크아트와 같은 창작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가?

창작공간은 대안공간(alternative space)이다. 일본에는 미술관, 공민관(일본의 평생교육 관련 시설로, 지역에서의 교양, 문화, 스포츠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의 자치능력 향상과 지역만들기 거점 역할을 하는 종합적 사회교육시설로 한국의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하다)이 많이 있고 한국도 그런 것으로 안다. 뱅크아트와 같은 단체는 일본에서는 많다고 할 수 없다. 대안공간으로서의 단체는 약 50여 개 정도가 현재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다.

요코하마를 비롯해 도쿄나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떠한가, 대체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일부 있지만 성공사례로는 뱅크아트가 처음이며, 요코하마시가 지원하고 있다. 조성 이후 이러한 단체가 사라지는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행정과 운영자의 연결 부재이며, 둘째는 예술가가 조성한 공간에 행정적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민간단체가 만든 대안공간도 있다. 대안공간은 일본 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공간의 두 가지 특징으로는 첫째, 일본의 경우 역사적 건조물이 개수 및 철거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지정관리자 제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지정관리자 제도는 갈수록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늘어났고, 이 제도를 통해 선정된 NPO가 해당 지자체의 하청업체처럼 되어 버리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게다가 지정관리자제도는 지자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획 및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없다. 하지만, 지정관리자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조성된 뱅크아트는 독립적 기금과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며 계약관계도 독립적이다. 뱅크아트는 드문 성공 사례이며, 뱅크아트의 성공에 의해 이러한 방향성 제시가 가능하였다.

뱅크아트는 역이 지나고, 향구가 있는 교류가 어렵지 않은 지역에 있다. 하지만 서울의 금천예술공장은 서울에서도 문화소외지역이라 부를 만한 준공업지대에 위치해 있다. 공익과 시민과의 원활한 교류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지리적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금천예술공장의 공익과 시민교류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을까?

뱅크아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없는 지역과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니이가타 출신의 쓰마와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쓰마와리 지역은 인구 약 5만으로 트리엔날레를 개최하였고, 올해에는 3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이 지역을 찾았다. 뱅크아트와 비슷하면서도 쓰마와리는 그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천'만의 특색을 살리고 장점을 살린다면, 금천이 문화소외지역이라서 갖는 보람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금천만의 가능성을 찾기 바란다.



금천예술공장 개관기념 국제 심포지엄

금천예술공장은 오직 예술가들의 창작공간 제공과 시민들과의 교류 및 국제 레지던시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이런 창작공간이 굳건히 살아가기 위해선 향후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인가?

이러한 문제는 지역주민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영국 대영박물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무료 개방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나 운영사업 등이 잘 짜여져 있다. 즉, 수익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다기 보다, 마치 교육비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조직을 어떠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비전과 방향)'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조직의 정체성이 생겨나고 운영이 시작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요코하마는 2년간의 실험을 거쳤으며, 여기에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라'는 요코하마시의 큰 방침이 있었다. 뱅크아트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수익을 얻기 위한 방식을 취해왔으며 결과적으로 수익률을 높여 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질을 유지하고 운영합리화, 시간합리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뱅크아트는 요코하마의 특성적 자산을 연계하여 발전하고 있다. 서울시가 금천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금천예술공장 주변의 불고기집, 공장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뱅크아트의 디렉터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

뱅크아트 실험운영을 위해 요코하마시에서 운영자 공모전을 실시하였는데, 24개 조직이 응모하였고 롯본기힐즈의 현 모리미술관 관장도 응모하였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그리고 뱅크아트1929의 대표를 맡게 된 것은 내 자신의 경력과도 관계가 있다. 나는 뱅크아트1929에 역사적 건조물 활용 및 건축과 같은 물건 만들기(ものづくり), 사진 등 PH 스튜디오의 일, 코디네이터, 디렉터, 운영 등과 같은 현재까지의 경력을 모두 쏟아 부었다. 보람을 느꼈던 때는 동경예술대학 유치에 대한 찬반이 있었을 당시, 시청공무원들이 본인의 진심을 알아주었던 순간이다. 이때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뱅크아트가 지금과 같은 성격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힘들었던 일은 특별히 없다. 굳이 들자면 트리엔날레 개최와 함께 그 많은 작품들과 비품들을 가지고 3번 정도 이사를 해야 했던 것이다.

현재 뱅크아트의 해외교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작년까지는 해외진출에 신경 쓰지 않았다. 최근 요코하마시와 장기 계약하면서 '교류'를 통한 세계로의 대응이 필요해졌다. 지금은 몇몇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대만, 한국 등지에서 활발한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람회 등의 경우 프랑스전, 독일전과 같이 외국과 큰 규모로 실시하고 있지만, 당분간 대 규모의 전시회는 기획하지 않으려 한다. 왕래와 교류에 보다 집중하고, 더 활성화 되면 교환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생각이다. 또한 각 도시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는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천구에 요코하마 하우스'를 조성하고, '요코하마시에는 금천하우스'를 조성하여,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간 교류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집세 등과 같은 각 도시의 정보교류도 반드시 필요하다. 금천예술공장 및뱅크아트1929 내에 일단 조성하되 향후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다.

금천예술공장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했나?

이처럼 빠른 속도로 조성된 것이 정말 대단하다. 현재와 같이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금천예술공장을 비롯한 서울시창작공간의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운영 형식, 시설 점유 형식, 독립제도 등이 논의되었으면 한다. 예술가가 행사 및 운영방식을 건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행정가와 예술가가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하면서 함께 고민해나아가는 자율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 금천예술공장을 더욱 발전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운영에 의한 발전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 자율적 발전을 위한 작전을 잘 짜야 할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필자는 금천예술공장 개관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케다 대표의 발제 통역을 맡았다. 뱅크아트1929는 이케다 대표가 뱅크아트1929에서 보여준 노하우와 함께 앞으로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에 더 많이 소개될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창작공간을 운영하려고 계획하는 현 시점에서, 뱅크아트1929의 약 6년간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창작공간 조성사업에 좋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지정관리자제도란

일본에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주체가 해당 지자체의 출자법인 및 공공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2003년 9월 시행에 의해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글 | 오민근

2006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간문화과, 지역문화과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공공디자인 및 산업유산과 지역활성화, 유네스코 Creative Cities Network에 국내 지자체 선정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기획하였다. 경관형성과 도시재생, Creative City 등에 관한 다수의 글과 발표를 해오고 있으며, 'Creative City Yokohama'를 번역 중이다.

사진 | 천현정

다시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구보씨, 카페 구경 가다 (상)

그 시절, 카페는 유행을 선도하는 장소이며 온갖 난동의 소굴이었다. 동경하던 삶과 함께
일탈의 짜릿함, 소외의 해갈을 풀어주는 곳, 구보 씨와 함께 카페 놀이 천태만상을 둘러본다.



최근 ‘잇걸’(it girl)이란 말이 패션계와 연예계를 중심으로 회자되고 있다. ‘인기가 높거나 화제가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용어는 표현상 ‘올해의 잇걸’, ‘오리지널 잇걸’, ‘떠오르는 잇걸’ 등과 같이 쓰이고 있으며, 속어로 성적 매력이 있는 젊은 여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여기서 3인치 대명사 이트(it)는 또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다양한 유행어 버전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최신 유행 가방’이란 뜻의 ‘잇백’(it bag)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용어가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모던 걸’(modern girl)처럼 많이 회자되지는 않았지만 유흥접객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그 여성이 지닌 성적 매력을 ‘이트’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경성에서 최고의 이트 또는 잇걸은 누구였을까? 단연 카페의 여급이었다. 당시 신문과 잡지를 보면 카페의 풍경은 ‘세기말의 피로한 도회인의 신경을 날카로이 자극하는 각테일의 향기와 고성 축음기의 청 높은 소리와 요태와 교태를 갖춘 여급들이 발산하는 **이트!**’의 공간으로 그려졌으며, 고객들이 카페를 찾는 이유도 ‘카페 걸들의 노래와 웃음, 애교, 댄스와 애로와 **이트**를 발산하는 서비스’ 때문으로 보았다.¹ 여급들이 발산하는 이트에 이끌려 카페를 찾는 이들은 젊은 부르주아와 셀러리맨, 실업자, 심지어 교인과 학교 선생과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처럼 이트의 이미지로 수많은 고객들을 유인한 카페는 어떤 곳이었을까?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카페의 출현과 모던 보이들의 파라다이스

우리나라 최초의 카페는 1910년대 초반 남대문동 3정목(현 남대문로 3가)에 위치했던 ‘카페 타이거’로 알려져 있다. 미려한 3층 양옥으로 지어진 이 카페는 1907년 조선으로 건너와 경성사진관(남대문동 2정목에 위치)을 개설한 바 있는 노노무라 켄조(野野村謙三)가 겸업한 곳으로, 1915년 출간된 <경성번창기>에 소개될 정도로 명소였다. 카페 타이거는 이때까지도 경성의 유일한 카페였는데, 19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카페의 경성 진출은 미미한 상태였으며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신문지상에 카페에 대한 본격적인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신문기자의 눈에 비친 카페는 ‘보통 음식점도 아니요, 색주카도 아니요, 파는 음식물은 일본요리도 아니요, 청요리도 아니요, 조선요리도 아니요, 이름도 알 수 없는 것을 파는’ 곳으로 이해될 정도로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다. 또한 ‘여자 급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밀매음녀로서 남 보기에는 처녀와 같이 꾸며가지고 불량소년들과 타락한 학생들을 유인하여 극도로 사회의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며 카페의 보급과 함께 늘어난 여급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요릿집과 음식점을 대체한 새로운 유흥공간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카페는 1930년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1931년 인사동 계명구락부 아래층에 들어선 ‘낙원회관’은 종로의 대표적인 카페였다. 이곳은 영락정(현 중구 저동)에서 ‘공작’이란 카페를 운영하여 성공한 일본인 나카노 미치(中野ミチ)가 종로에 세운 카페였다. 충청도 명망가의 딸 김영자를 비롯하여 대구의 유명 기생과 공작에 있던 일본인 여급 그리고 연극과 영화에서 활동하던 여배우를 고용하여 화제를 일으켰으며, 이를 배경으로 종로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당시 기자이자 극작가였던 이서구는 이곳에 대해 ‘여급의 황금시대에 그 총본영은 종로의 낙원회관’이라며, 그 이름을 빗대 ‘기생과 여배우와 실연한 젊은 여성들이 몰려드는 밤의



조선 최초의 카페 타이거, 1915

¹ ‘카페 색동에 녹는 70만원의 거액 금후는 카페 중실을 절대로 불허’, <조선일보>, 1933.11.5 ; 김홍희, ‘카페 광상난무곡’, <실생활>(3권 7호), 장산사(獎産社), 1932.7

² ‘카페집 전문 풍기를 취해’, <조선일보>, 1927.5.19



카페 부사의 여급과 고용인들, 1937

친국'이라 불렀다. 하지만 모던 보이들에게 파라다이스가 비단 낙원회관뿐이었으랴! 당시 경성의 일본인 거류지인 남촌 일대에는 적옥을 비롯하여 공작, 국수, 환비루(丸比-ル), 미인좌, 바론, 백접, 본정 바(bar), 부사, 살롱 아리랑, 송화, 은수, 은좌, 입강, 킹, 팔천대, 화이트 런치 등이 있었으며, 조선인 거리인 북촌 일대에는 낙원회관을 비롯하여 드래곤, 목단, 신세계, 엔젤, 올림픽, 왕관, 킹홀, 평화, 종로회관 등의 카페가 존재했었다.

식민지 수도 경성의 카페 풍경

1930년대 이러한 카페들의 본격적인 출현은 일본에 의해 변형 왜곡된 유럽의 카페문화가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하나로서 식민지 조선에 이식된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카페는 건전한 시민 공론의 장이 아니라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에로문화의 생산지가 되었으며, 나아가 남성 고객들의 식민지 타자로서의 열등감을 이중적 타자(식민지 타자의 타자)인 여급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와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좌절된 욕망을 에로티시즘으로 발산하려는 욕망이 결합한 에로문화의 전당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에로문화의 생산과 유포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된 측면이 있으며, 근대화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와 결합된 성산업의 발달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카페는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으며, 결국 각종 도시문제가 이곳에서도 그대로 재연되었다. 무엇보다도 카페는 근대적 범죄의 온상이 되어 밀매음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절도와 폭행이 자주 일어났으며 도박과 사취 행위도 빈번했다.

밀매음과 사칭 그리고 무전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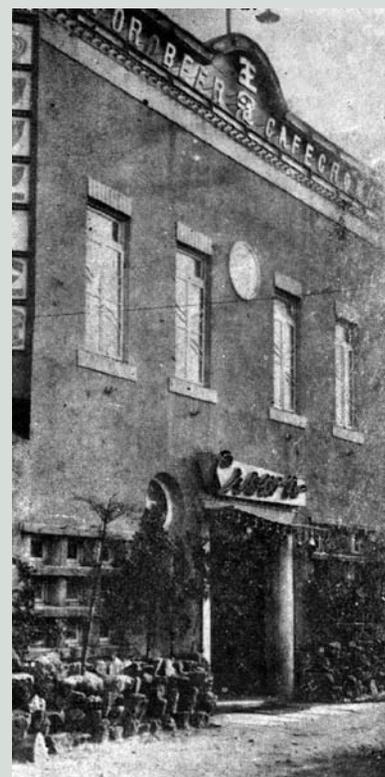
먼저 1920년대 후반 카페가 일상 속으로 파고든 순간부터 여급과 고객과의 밀매음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렸다. 1933년 종로 낙원동에 위치한 '엔젤' 카페의 여급 김명화는 계동 사는 김태식과 공간동의 한 여관에서 밀매음을 하다 이곳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종로 경찰서로 인치되었다. 당 경찰서 보안계에서는 종로 관내에 카페와 바 그리고 음식점 등이 늘면서 여기서 '에로서비스'를 유일한 자본으로 하고 붉고 푸른 네온사인 아래서 재즈에 맞추어 노래하는 여급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앞서의 적발을 계기로 에로서비스의 전당인 카페에 대해 경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한 조선일보 기자는 '도시의 밤을 복숭아빛으로 물들이는 에로의 병균은 표면 찬란한 현대문명의 이면에 깃들인 영구한 암종(癌腫)의 하나'라고 경계하면서, 밀매음을 일삼는 여급을 '도색(桃色)전사'라고 일컫기도 했다. 1934년에는 본정(현 충무로)경찰서원이 관

내의 한 카페에서 정식 좌석이 아닌 별실을 설치해 놓고 비밀리에 밀매음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곳 주인에게 그 별실의 철폐를 명하는 동시에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카페 여급 네 명과 고용인 외 두 명의 남성이 두 대의 자동차에 나눠 타고 동대문 방면에서 종로로 들어오는 것을 이곳을 순찰중인 경찰이 발견하고 이들이 시외의 은밀굴에서 놓고 온 것으로 판명된다며 종로경찰서에 인치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밀매음이 잦아지자 1933년 5월에는 어떤 이가 단속 경찰을 사칭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술에 잔뜩 취한 중년의 한 일본인이 대도정(현 용문동)의 ‘탱큐’ 카페에 들어와 단속을 나왔다며 조사할 일이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마침 이곳에 있던 진차 형사에 의해 경찰서로 인치되어 취조를 받고 유치장 신세를 지기도 했다. 경찰 이외에도 여러 사람을 사칭하며 카페를 출입하곤 했는데, 학생과 공산당원도 그중 하나였다. 1934년 정월, 대학생 차림으로 ‘엔젤’ 카페에 나타나 자신은 일본공산당원이라며 권총으로 여급을 협박하여 무전취식 후 도망한 일본인 한 명이 검거되었는데, 취조 결과 그 권총은 운동경기에 쓰는 장난감 총이었으며 그와 같은 수범으로 열 번이나 무전취식한 일이 밝혀졌다. 그리고 공산당원이라고 사칭했던 이 청년을 종로경찰서 고등계에서 엄중 취조한 결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 학적을 둔 대학생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일이 있던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 각 백화점에서 10여 차례나 귀금속품만을 훔쳐 전당을 잡고 그 돈으로 여러 카페를 출입하면서 유흥을 즐기던 17세 소년 김영석이 종로경찰서 사법계에 의해 인치된 일이 있었다. 그는 모 상업학교의 교모를 쓴 채 학생을 사칭하며 예의 행동을 했다고 한다. 학생들의 카페 출입은 사회적 골칫거리로 대두되었지만 불량학생과 가짜학생들에게 그러한 행위는 금기를 탈주하는 욕망의 해방구로 보였나보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모 고등상업학교 제복 차림의 강제영이란 가짜학생이 백화점의 여점원과 카페 여급을 농락하다가 본정경찰서에 검거된 적이 있었다. 그는 지방에서 주류제조업을 하는 유수한 부호의 자식으로 두 달 전 취직을 구실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정복정모를 사 입고 마크에 명함까지 새겨 넣은 채 전문학교 학생 행세를 하며 그와 같은 일로 소일했다고 한다. 못 여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학생을 사칭하여 신분을 속인 그의 회중에는 여러 장의 여자 사진과 명함이 들어 있어 신문사에서는 그에게 농락당한 여자의 피해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경제적 이유로 카페에 갈 수 없던 이들 중에는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았다. 1933년 명치정 1정목(현 명동 1가)의 한 하숙집에 투숙하면서 양화와 파스텔화를 교습하며 생활하던 일본인 화가 고게 마사오(高下政雄)는 11월 25일 밤 종로 2정목에 위치한 카페 ‘목단’에서 1원 30전 어치의 음식을 먹고는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다가 여급 테루코(照子)에게 붙잡혀 본정경찰서에 인치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도 낙원동의 ‘킹홀’ 카페에서 창기 2명과 함께 유흥을 즐기다 회계 20여 원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잡화상 김복환이 종로경찰서에 붙잡혔다. 한편 카페의 팁 문화를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무전취식한 사건도 있었다. 1934년 1월 사직동에 사는 두 명의 청년은 카페 출입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관철동의 ‘왕관’ 카페를 선물집인양 들어가서 주머니에 있던 전 재산 2원을 선물로 내고 주는 대로 먹고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여급들로부터 선물한 2원은 팁이요, 먹은 술과 음식값은 모두 11원 70전이니 따로 내놓으란 말에 이를 지불하지 못하자 결국 무전취식 혐의로 종로경찰서 보안계로 끌려간 웃지 못할 희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카페 왕관의 외관, 1937

다시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절도와 횡령, 사취

카페에 미쳐 절도와 횡령을 저지르는 사건도 빈번했다. 1933년 5월 평양 남경사진관에 고용살이 하던 최의건이란 소년은 주인 몰래 거액의 돈을 훔쳐 경성으로 달아나서 카페와 식당을 돌며 밤낮없이 유흥을 벌이다가 본정경찰서의 형사에게 붙들려 취조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8일에는 종로 관내의 여러 카페를 돌아다니며 유흥을 즐기던 대학생 이종중도 검거되었는데, 그는 메이지대학 예과 2학년생으로 시내의 각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그것을 전당 잡아 그 돈으로 카페놀이를 했다고 한다. 또한 며칠 뒤에는 봉래정 염천교 부근에 있는 '카추샤' 카페 주인이 백 원짜리 지폐를 이집 저집 돌면서 교환하다가 서대문 경찰서원에게 붙들린 일이 있었다. 대현리(현 대현동)에 사는 신정휴라는 소년이 모친에게서 받은 장가비용을 들고 같은 카페에서 3원 어치의 술을 먹고 거액의 지폐를 내놓자 전기 주인이 잔돈 교환을 위해 돌아다녔던 것이다.

1934년에는 종로 2정목 우편소 위체계에 근무하는 한진경이란 청년이 공금을 횡령하여 기생과 여급을 상대로 유흥을 즐기다 경찰에게 체포되어 취조를 받는 일도 있었다. 그는 관철동 왕관 카페에 출입하면서 여급 4~5명을 상대로 횡령 공금 1,300여 원을 가지고 유흥하다가 신분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는 그를 의심한 동대문경찰서원에 의해 체포되었다. 같은 해 9월에도 영락정에 있는 카페 '바론'에 들어가서 백금 시계줄 한 개와 회중시계 한 개 그리고 손목금시계 두 개와 상아 두 개, 기타 값 비싼 물건과 현금 55원 등을 훔쳐다가 전부 유흥비로 쓰고, 다시 엔젤 카페에서 어떤 손님이 갖고 있던 현금 300원을 훔쳐 술을 먹다가 서대문경찰서에 체포되어 절도죄로 취조를 받는 전과 4범 황순룡의 대담한 범죄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리기도 했다. 10월에는 만주로 실업시찰 간다며 거금 1,700원을 들고 떠났다가 경성에서 김 모씨에게 유인되어 낙원회관의 여급 은자에게 반해 살림을 차린 철없는 아들을 찾아달라는 청원이 종로경찰서에 날아들기도 했다.

집금원으로 있으면서 거래처나 고객들에게서 수급한 돈을 횡령한 경우도 있었다. 1935년 크립코 스타상회 집금원 김윤배는 각 카페 여급들에게 화장품을 팔고 받은 돈 720여 원을 횡령하여 유흥비로 쓰다가 동대문경찰서원에게 발각되어 취조를 받았으며, 석탄상환삼상회의 점원 일본인 아마노 이치로(天野一郎)도 각 처에서 집금한 돈 천 원을 가지고 도주한 후 부내 유곽과 카페를 순례하다가 용산경찰서 사법계 형사에게 체포되었다. 1938년 5월 본정 2정목(현 충무로 2가)의 한 시계점 점원으로 있던 일본인 청년은 우연한 기회에 친구들과 카페에 몇 번 발을 들여 놓게 되었는데, 한 여급에 반해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 사진재료상에서 고급사진기 3대를 훔쳐 약초정(현 중구 초동)에 있는 전당포에 팔아 오다가 본정경찰서에 붙잡힌 일이 있었다. 사진관이나 사진재료상은 고가의 사진기 장비 때문에 늘 절도범들이 걸려들기 좋은 곳이었다.

1940년 6월에는 좀 더 지능적인 범죄가 일어났다. 통인정(현 통인정)에 사는 박진옥이란 여성은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귀여운 어린 소녀가 다가와 자기는 일본에서 오래 살다가 오늘 조선에 처음 왔는데 조선 집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으니 좀 보여줄 수 없느냐는 말에 집 구경을 시켜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잠시 다른 방에 간 사이에 그 소녀가 현금 29원이 든 지갑을 훔쳐 도망한 것을 발견하고 전차정류장까지 쫓아 나와 붙들려 종로경찰서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소녀는 한강동 삼각정에



카페 바론의 외관, 1937

있는 ‘스즈랑’ 카페의 여급 이정숙으로 밝혀졌으며, 놀랍게도 나이가 16살에 불과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 냈는지 소녀를 취조한 경관들조차 다들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폭행과 살인, 강도와 유괴

술을 마신 후 다른 고객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휘두른 사건도 잦았다. 1929년 잡화상을 하는 23세의 우태명이 황금정 2정목(현 을지로 2가)의 ‘공작’이란 카페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옆자리에 있는 중앙관의 고용인에게 자기는 종로경찰서 형사라고 거짓말을 한 후 폭행을 하다가 본정경찰서에 인치된 일이 있었다. 술이 들어가면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야료를 부리기 마련인데, 1931년 12월 12일 경성제국대학의 의학부 조수로 있는 두 명의 손님은 낙원회관에서 각종 집기와 유리창을 부수고 출동한 순사를 구타하고 야단을 치다가 경찰서에 붙들려가기도 했다.



카페 여급들과 손님, 1928

1932년 25세의 박종오는 ‘마적’이란 폭력단체를 조직한 후 경성 시내의 각 요리점과 카페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무전취식을 하고 걸핏하면 손님들에게 싸움을 걸어 술을 강요했다. 6월 15일 그는 낙원동에 위치한 ‘태평양’ 카페에서 맥주를 강탈하여 모 상점에서 1원 20전을 받고 판 돈으로 술을 먹고 돌아다니다가 종로경찰서에 검거되어 취조를 받았다. 폭력단체의 난동은 여급을 둘러싸고 일어나기도 했다. 1933년 2월 27일 시내 일출소학교 운동장에는 본정에 사는 두 일본인 미치시타 마사오(道下正雄)와 오쿠무라 켄로쿠(奥村源六)가 모 카페 여급을 상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자 승부를 내자며 일대 결전에 나섰는데, 싸움에서 진 전기 미치시타가 평양과 부산 등지의 동료 폭력배들에게 전보를 놓자 이를 첩보한 본정경찰서에서는 그들을 검거하여 취조하였다. 이 사건을 취재한 동아일보 기자는 당시 소동에 대해 ‘에로와 테로의 쌍주곡’이라 표현했다.

술에 취하면 학교 선생도 행패를 부리기는 마찬가지였다. 1934년 10월 공평동에 위치한 ‘평안’ 카페에 세 명의 취객이 들어와 술을 먹다가 차츰 트집을 잡더니 가오루, 요시에, 글로리아 등의 예명을 쓰는 조선인 여급 세 명의 옷을 찢고 폭행을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다. 종로경찰서에 인치하여 조사한 결과 시내 모 중등학교 교원들로 판명되자 이는 교육계의 일대 불상사라 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치하였다고 한다. 1935년에는 낙원회관에 예기(藝妓)와 함께 들어와 술을 먹다가 갑자기 폭행을 시작하더니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휘두르며 실탄을 예기에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취객 한 명이 종로경찰서원에게 검속된 일이 있었다. 취조 결과 그는 칠도국에 근무하는 높은 신분의 일본인 관리로 판명되어 경고 후 석방되었다 한다.

폭행은 가끔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 1931년 대도정(현 용문동)의 한 카페에서는 일본인 남성이 한덕희라는 28세 조선인 남성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려 노막염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1935년 7월에도 대도정의 ‘약생헌’이란 카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태석 외 여러 명이 이곳에서 여급을 상대로 술을 먹다가 말다툼 끝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마침 그 앞을 지나던 두 명의 일본인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니 자신들이 사랑하는 여급들을 폭행한다하여 단도로 전기 이태석의 복부를 찔러 결국 사망케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용산경찰서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그들의 신병을

다시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확보하여 경성검사국으로 송국하였으며, 담당 검사는 취조를 끝마친 후 처음부터 살의를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며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하여 공판에 회부하였다 한다.

여급들을 대상으로 한 강탈과 유괴도 일어났는데, 1934년 6월 계동 사는 손명환은 식당의 여급 이계월을 꺾어 손목시계를 보여 달라고 그대리 가지고 도망가는가 하면 종로와 명치정, 신정(현 중구 목정동) 등지의 카페와 유곽을 돌며 그와 같은 수법으로 밤거리 여성들의 물품을 무수히 강탈 도주하

다가 본정경찰서에 체포되기도 했다. 같은 해 8월 목포가 고향인 정규철은 인쇄 직공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이금순에게 서울 가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자는 말로 꺾어 상경했다. 그러나 취직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돈이 떨어지자 고향서 꿈꾸었던 스위트홈에 대한 생각은 아침이슬처럼 사라져 버리고 갑자기 변심하여 상기 이금순을 카페 여급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자신은 만주 방면으로 도피하려다가 서대문경찰서원에게 검속되어 유인죄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겨져 취조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여성을 유인해 카페에 여급으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는 식민지 조선이 1930년대 후반 전쟁 상황에 빠져들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38년 5월 6일 태평동에 사는 모기에 학교 3학년 일본인 여학생 야마베 요시코(山部芳子)가 모친에게 꾸지람을 듣자 한 반 친구 모리 미치코(森道子)와 함께 가출하여 모 카페의 여급으로 있던 같은 학교 졸업생 선배인 후루마이 에츠코(古舞越子)와 나가타 미사오(長田操)를 찾아간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급들은 미더운 선배라 하여 찾아온 후배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미치코는 본정의 ‘쓰

바메’라는 카페에 소개해 버리고 요시코는 인천의 한 카페에 팔아넘겼다. 이어서 같은 달 14일에도 인신매매 사건이 일어났다. 종로 5정목에 위치한 바(bar) ‘오월’에서 손님에게 카라멜을 팔려고 들어온 소녀를 감언으로 유인하고 있는 괴신사가 동대문경찰서원에게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그는 죽침정에 사는 35세의 이응수로 14~15세 되는 소녀만을 골라 유괴하여 매춘을 시켜왔다고 한다. 그에게 걸려 무참히 정조를 유린당한 소녀는 파악된 것만 해도 다수에 달했다. 학생 풍기 문제와 함께 이러한 어린 소녀들의 인신매매는 자녀를 둔 일반 가정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사상범과 학생 풍기 문제

한편 사회주의 사상을 손님들에게 유포하려는 목적으로 조선의 카페에 잠입한 여급들의 사례도 있었다. 1932년 5월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온 요시코(能子)라는 일본 여성을 사상범으로 검거하였는데, 그녀는 대련의 한 카페에서 여급 노릇을 하면서 좌경운동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연락을 취하여 그 운동에 가담한 전력이 드러났다.

1933년에는 8월 1일 ‘반전 데이’(反戰 Day)를 앞두고 낙원회관의 여급 전영란이 종로경찰서에 검거되었는데, 그녀는 연극계에서 5년간이나 활동하다가 생활난으로 어쩔 수 없이 모친과 동생을 위해 여급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틈틈이 사상서적을 탐독하여 소위 적색 여급이란 평판을 들었을 정도라고 한다. 구체적인 적색(사회주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가택 수색과 문서를 압수당하는 등 엄중한 취조를 받았다.



낙원회관 여급 전영란의 관련 기사, 조선일보, 1933.8.2

같은 해 12월에는 고향에서 보내온 거액의 학비로 카페 여급을 적화하려다 붙들린 조선인 유학생이 있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박용철은 경성중앙고등보통학교 5학년 재학 중 광주학생사건에 연루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을 받고 퇴학 후 도쿄로 건너와 메이지대학에 입학, 예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그는 반제국주의동맹 메이지대학 예과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무산청년우회 등을 조직하여 회원 확보에 나섰다. 그러던 중 카페 은묘의 여급들과 여배우 등 십수 명을 포섭하여 적화활동을 하다가 검거되었는데, 많은 여성들이 미남자인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알고 미인계를 이용하여 포섭했다고 한다.

한편 학생들의 카페 출입이 잦아지고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서 학생 풍기 문제는 사회적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일어나자 사범당국과 학교당국에서는 보도연맹을 만들어 불량 학생들에 대한 단속과 숙청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났으며 심지어 여학생들조차 카페 출입을 하였다. 1934년 1월 보도연맹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연말연시에 카페에 상시 출입한 전문학교생이 28명, 중학생이 27명이며 그 외에 여학생도 4명이나 있어 놀라움을 주었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방학을 맞아 누그러들던 학생 풍기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더니, 정복정모의 중학생이 종로의 '은하식당'이란 카페에서 술을 먹고 여급들을 희롱하는 것을 순찰 중이던 종로경찰서원이 발견하고 인치한 일까지 있었다. 그는 모 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인 강의경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시내 모 관설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이런 탈선행위가 더욱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일반 사회가 통탄할 정도로 학생풍기가 극도로 문란해지던 1934년 11월, 종로 2정목 엔젤 카페에 모 전문학교 학생 김열영과 노운환 두 명이 나타나 그곳에 있던 여급 박정자를 무수히 난타하고 이를 말리던 카페 뽀이 등과도 싸움을 하다 돌아간 일이 있었다. 감정이 상한 이들은 다음날 각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15~6명의 친구들과 작당하여 다시 같은 카페로 가서 학생으로서는 차마 취하지 못할 폭행을 저지르다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이처럼 경성 시내의 각 카페에는 매일같이 몰려와 폭음을 한 후 싸움을 일으키거나 여급에게 키스를 요구하다 거절당하면 폭행하는 학생들의 풍기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는 1930년대 중후반 카페의 진풍경 중 하나였다. <장군의 아들>이란 영화에서 보았던 카페나 음식점을 배경으로 일어난 학생들 간의 폭력 장면들이 신문지상에 수없이 반복 재연되던 그런 시대였다.

글 | 이경민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2005년 중앙대 첨단 영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사진아카이브연구소를 운영하며 근대 사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진사 연구에 관심을 두고 사진 평론과 전시 및 출판, 기획 등의 일을 해왔다.

우린 영화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② 디지털 보정 전문가와 필름복원 전문가를 만나다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영화계에서는 영화를 업으로 삼는 수많은 영화인들이 폭발적으로 양산되었다. 특히 연출, 촬영, 조명, 예술 등 프리프로덕션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든 영화도 후반작업에서 퀄리티가 갖춰지지 않으면 웰메이드 영화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다. 두 번째 비하인드 코너에서는 한국영화 후반작업의 선두주자 HFR 랩의 디지털 보정 전문가와 필름복원 전문가를 만나 잘 알려지지 않은 그들의 일에 대해 들어보았다.



디지털 보정 작업실에서 색보정 작업 중인 이혜민 대리. 컴퓨터와 연계된 영상막에 영화를 틀어놓고 보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아침햇살을 맞으며 출근길의 사람들 속에 섞여 강남대로를 걸었다. 오늘의 인터뷰 장소 HFR 랩은 과연 이곳에 한국 최고의 영화 후반작업의 산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서민적인 건물 내에 위치해 있었다. 회사의 간판조차 없어 초행길에 찾기가 쉽지 않았다. 계단을 세 층 오르고 엄중한 경계태세가 느껴지는 세콤 스티커가 붙어있는 대문 앞에 당도해서야 연두색 벽 위로 HFR이라는 회사 CI가 보였다. 외부에 간판이 없는 회사는 그만큼 팔고 있는 상품에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리라.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일찍부터 출근해 있던 김용범 대표가 반가이 기자를 맞았다.

전국에 열 명 있는 디지털 보정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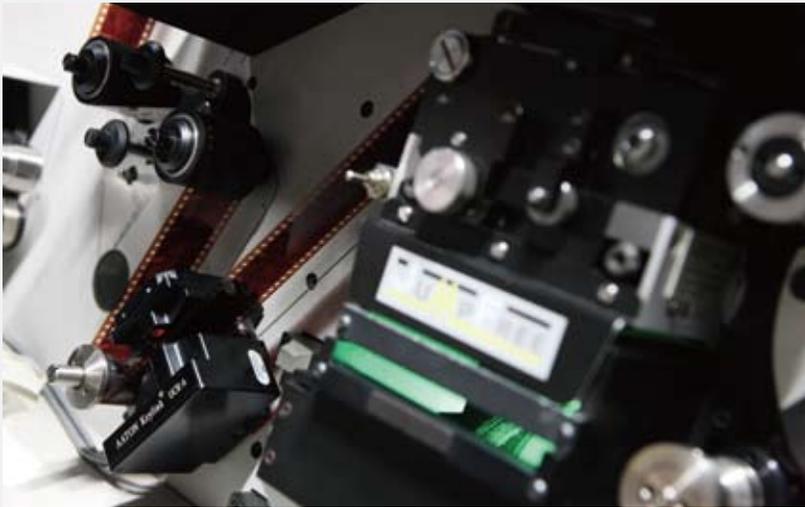
시간은 오전 열시, 다른 회사에 비하여 늦다면 늦다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HFR 랩이 아침 기지개를 켜는 시간이었다. 조용하던 사무실에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만큼 평소에 야근이 잦은 모양이었다.

HFR은 국내 최초, 혹은 국내 유일의 디지털 보정(Digital Intermediate), 필름복원(Film Restoration) 전문 회사로서 2001년 창립 이후 영화후반작업 분야에서 십년동안 한길을 걸어오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후반작업 전문 스튜디오다. 영화 및 영상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HFR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2004년 김지운 감독의 <달콤한 인생> 이후 DI 분야에 첫 진출한 HFR은 이후 <친절한 금자씨> <형사> <괴물> <놈놈놈> 등 화제작의 DI를 담당하면서 시장점유율 60%를 넘는 메이저급 스튜디오로 급속히 성장했다. 2004년 이후부터는 필름 디지털 복원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여 <열녀문>(1961), <미몽>(1936) 등의 복원에 성공, 호평리에 상영한 바 있다.

김용범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시간은 오전 열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옛된 얼굴을 한 두 명의 아가씨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디지털 보정 팀의 이혜민 대리(27)와 필름복원 팀의 최진숙 사원이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줄라서 시작했어요.” DI파트 이혜민 대리(27)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영화로 전공을 바꾸어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만 해도 영화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들었던 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영화후반작업 수업을 들으면서 “이걸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때마침 현 HFR의 이용기 대표가 그 수업의 교수였던 것이 인연이 되었다. “하고 싶으면 해라. 하지만 정말 힘들니까 중간에 그만뒀도 괜찮다”라고 너그럽게 입사를 허락한 이용기 대표한테는 지금도 감사한단다. 하지만 후반작업 전문가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함께 입사했던 동기는 1년 만에 그만두고 이혜민 대리만 남아 지금까지 3년째 디지털 보정 일을 담당하고 있다.

옆에서 침묵을 지키던 김 대표가 한 마디 거들었다. “이 일ियो,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예요. 이혜민 대리를 포함해서 전국에 열 명 정도



HFR 내부 전경. 필름을 스캔하고 디지털화하여 색보정, 복원을 마치고 출고하기까지의 과정이 이 랩안의 기계실에서 이루어진다.

밖에 없어요. 칼라 감각도 있어야 하고 영화 제작과정과 영화의 흐름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쉽지 않아요. 스킬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작업해야하니까요.” 학부에서는 미술을 전공했다가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한 이혜민 대리의 입장에서는 이 후반작업 일이 미술과 영화의 접목이었다고. 옆에서 듣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혜민 대리도 덧붙였다. “이 일은요, 머리로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몸으로 실무 경험을 쌓아야만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녀의 작업과정을 들어보니 한 편의 필름이 개봉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의 면면이 장난이 아니다. 우선은 완성된 네가 필름을 스캔한다. 스캔을 통해 디지털화된 영화 필름파일을 장비에 올려서 편집본대로 편집을 마친다. 전체적인 편집을 맞추고 색보정을 시작한다. 색보정이 끝나면 디지털 믹싱을 해서 믹싱용 테이프를 돌려보면서 또 한 번 색보정을 한다. 드디어 감독이나 촬영감독으로부터 색보정 컨펌이 나면 다시 필름으로 리코딩하고 복원실로 보낸다. 복원을 끝낸 필름은 현상소로 가서 아날라인저 색보정(필름 색보정)을 하고 상영관 수대로 필름을 떼서 각 극장에 배급을 하게 된다.

한 편의 영화를 작업하기 위해 30번 관람

DI(디지털 보정)는 정확히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까? 1차적으로는 감독과 칼라리스트들이 영화의 장르에 맞는 영화의 색을 찾아준다. 예를 들어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같은 영화의 암울하고 무거운 색조는 <소피아의 연애매뉴얼> 같은 로맨스 영화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영화를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영화의 내러티브에 맞게 색을 맞춰줘야 한다. 2차적으로는 촬영현장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DI를 통해 채워준다. 촬영한 뒤에 필름을 틀어보니 조명이 부족해서 빛이 더 필요하면 빛을 만들어 내고 색감이 부



족하면 그부분을 채우게 된다. 예를 들어 <소피의 연애매뉴얼>이란 영화를 최근에 담당했는데 클라이언트는 전체적으로 채리 열매같이 밝고 명랑한 색감이 좋겠다고 해서 그느낌으로 보정작업을 진행했다.

한편으로는 다른 영화들도 많이 본다. 작업을 하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다른 영화를 찾아보면서 적합한 색감을 연구한다. 이렇게 한편의 영화를 DI 작업하는데 매 작업마다 영화 전체를 서른 번은 본다 고 한다. 직장 연차가 늘수록 극장가서 영화 보는 일이 예전처럼 즐겁지는 않은 게 단점이라고.

지금은 이 일이 익숙해졌고 재미있으니까 앞으로 더 하고 싶은데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DI가 아직 대중적이진 않다는 점에서 좀 힘들었다. 공부할 만한 책이 서점에 전혀 없었다. 앞으로의 목표는 좀 더 공부해서 책도 쓰고 교수도 되고 칼라리스트도 되는 것이라. “기왕에 입문을 했으니 역사가 짧은 DI를 체계화시켜서 영화계에 공헌하고 싶어요.” 이렇듯 포부가 대단한 디지털 보정 전문가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될까?

“하루 일과요? 출근을 오전 열시 정도에 하면... 그날 할일을 체크하기 시작해요. 보통 오전 11시 정도에 촬영감독님이나 감독님이 오시면 디지털 보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금방 점심 먹고 저녁 6,7시 정도 까지 보정 작업을 한 후 마무리 작업을 30분~1시간 정도하면 퇴근이예요. 예전에 일에 적응 못했을 적에는 새벽까지 야근하고 그랬었죠. 이제는... 영화마다 다 달라요. 어떤 영화냐에 따라 감독님 성격에 따라 작업 시간이 달라져요. 야근 심하게 할 때는... 한 달 내내 밤 샌 적이 있었어요.” 이쯤 되면 가장 힘들었던 영화 제목을 물어볼 법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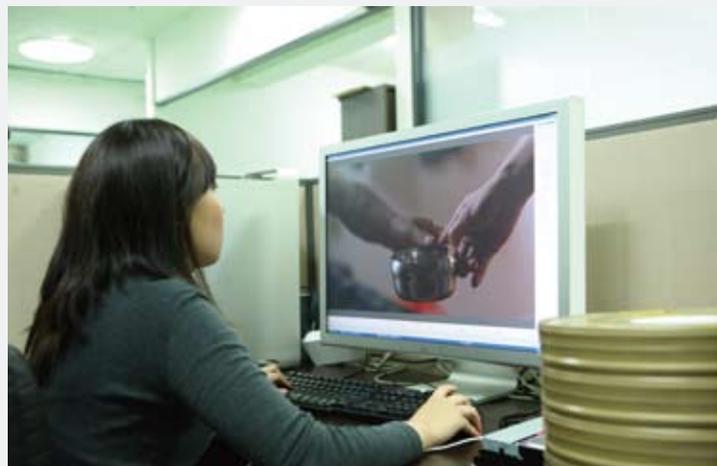
“힘들었을 때요?” 이 대리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일이 마냥 재미있기만 했나? 그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꽤 오래 뜬을 들인 다음에서야 답이 나왔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작업은 김지운 감독님의 <놈놈놈>이예요. 일단 영화 길이가 너무 길었고 버전이 많았어요. 국내 버전, 칸 버전, 캐나다 버전... 감독님도 꼼꼼하시고 CG도 많은데다가 CG가 바뀌면... 또 전부 새로 작업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후반작업은 영화의 뭘까요?’라고 이혜민 대리와 최진숙 씨에게 질문했다. “화장이 아닐까요? 물론 원본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영화 자체가 나쁘면 색보정을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겠죠.” 이혜민 대리가 짹짹 대답했다. 최진숙 씨는 뜬들이다 말을 던졌다. “색보정이 화장이라면, 복원은 컨실러? 그런데 컨실러라고 하기엔 너무 큰일이라서...” 결국 최진숙 씨는 “복원이 뭐라고 딱히 말 못하겠어요”라고 힘겹게 마무리를 한다. 그만큼 그녀의 직업이 인생에 차지하는 무게는 무거운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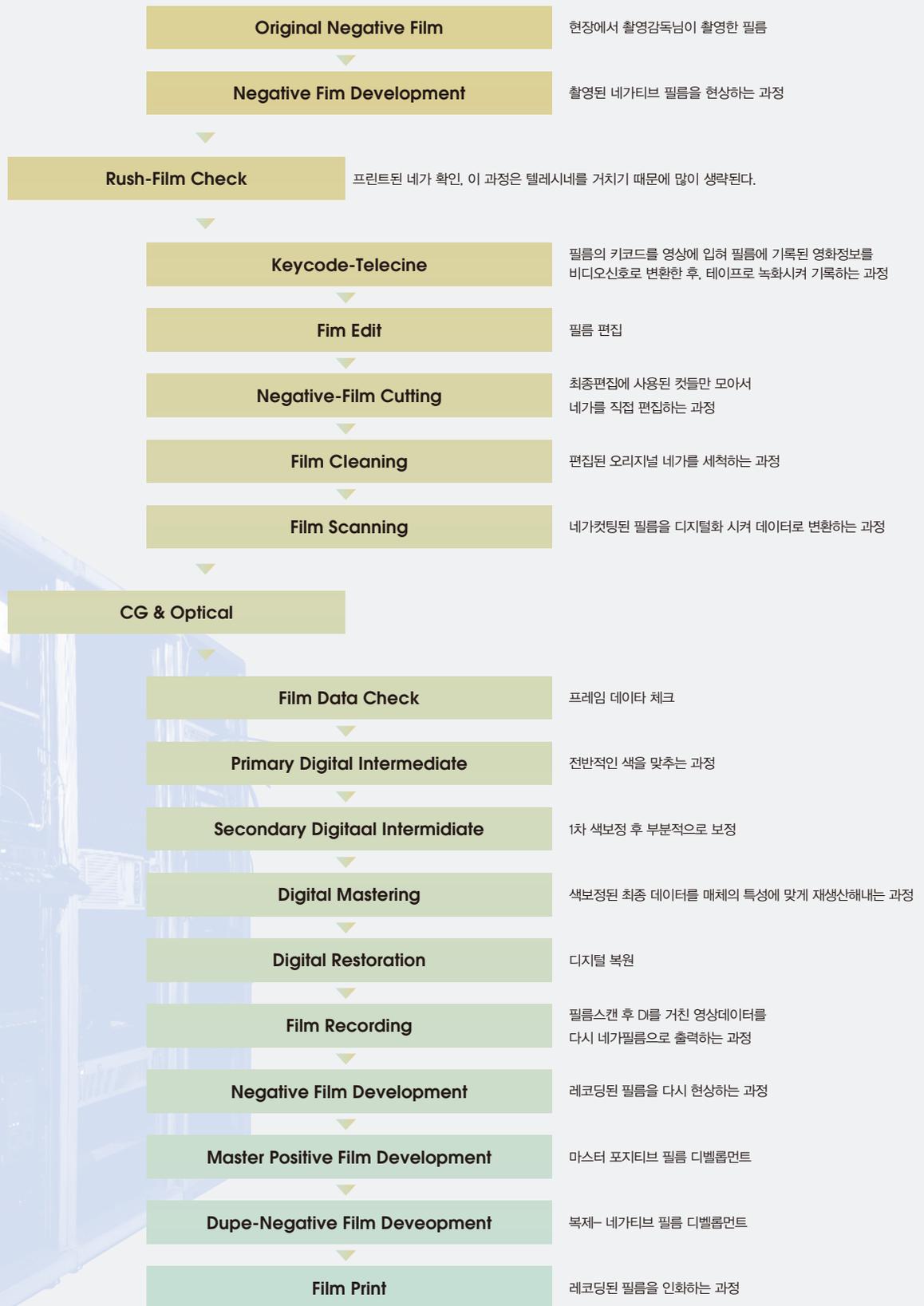
이제 3년차인 이혜민 대리는 대리를 달고 일하는 지금이 마냥 좋단다. 연이어 필름복원 전문가 최진숙 씨의 인터뷰를 마치고 두 사람이 각자의 작업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작업실로 향했다. 인터뷰 내내 당차게 대답하던 그녀들은 카메라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변해 포즈 하나 취하는 데에 수줍기 짝이 없었다. 사진작가와 인터뷰에 필요한 사진을 다 찍었을 때 훗날을 기약하며 HFR 랩을 떠났다.

국내 최고의 후반작업 전문가가 될 때까지 이 두 젊은 영화인의 힘찬 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필름복원작업중인 최진숙 씨. 다지워란 이름의 국산 복원프로그램으로 필름에 있는 먼지를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필름복원작업과정





“사람들이 복원을 모르면 화가 난다”

HFR 부산 필름복원 팀의 최진숙 씨

Q1. 필름복원이란 무엇인가?

일단 필름복원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상업영화 상영을 위해 필름을 깨끗이 만들어주는 거죠. 필름에 생긴 스크래치, 먼지, 플릭커(번쩍임), 흔들림 이런 것들을 복원에서 잡아줍니다. 포커스가 잘 안 맞을 경우 포커스의 사프니스를 올려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진정한 복원에 가까운 개념으로 오래된 클래식 필름의 손상되거나 소실된 부분을 복원해서 완성본으로 만드는 거예요. HFR은 후자의 개념에 더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회사의 주력사업으로 삼으려 합니다.

Q2. 서울은 주로 D.I작업을, 부산은 주로 복원 업무를 한다고 들었다.

부산의 작업환경은 확실히 서울보다 좋아요. 새 건물이어서 넓고 조용하고 깨끗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일만 하고 대화를 안 해서 다소 살벌해요(웃음). 부산에서 <호우시절> <토끼와 리저드> <파주> 같은 상업영화를 위한 필름복원 작업을 막 끝내고 올라왔어요. 추석 연휴 끝나고 내려가서는 이만희 감독님의 <검은 머리>(1964)를 복원할 거예요. 그 뒤에는 유현목 감독님의 <오발탄>을 복원할 예정이에요. 필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Q3. 복원전문가로서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비전은?

이 일이 좋긴 한데 개인적인 스케줄을 계획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친구를 만날 때에도 늘 번개를 쳐야 해요(웃음). 언제 퇴근할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D.I가 끝나야 복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D.I에서 수정이 생기면 우리도 수정해야 되죠. 일 시작한지 1년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제야 할 만하다 싶은 정도예요. 디지털 보정 전문가들은 많이 생겼는데 필름복원 쪽으로는 아직 국내에 몇 명 안 되요. 우리 회사의 경우도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 전부예요. 원래는 광고영상을 전공했거든요. HFR 들어오기 전에는 영화후반작업에 복원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복원은 필름의 먼지만 지우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화가 나요. 이 분야가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직업을 잘 알게 되면 좋겠어요. 앞으로 하게 될 <오발탄> 복원 작업은 벌써부터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복원의 미래는 세계 시장이다”

HFR 랩 서울지점 운영 김용범 대표

Q1. 필름복원을 주력 사업으로 삼는다고 들었다.

2007년에 <열녀문>, 2008년에 <하녀>, 2009년에는 <연산군>을 복원하고 칸 영화제 복원 섹션에 나가서 상영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시다. 현재 우리 회사는 복원에 있어서는 국내 유일의 업체나 마찬가지예요. 최진숙 사원처럼 복원에 참여하는 인력들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한국 유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필름이 거의 망가져버린 고전영화를 복원했을 때, 상영할 수 없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만들었을 때 느끼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DVD보다 많은 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블루레이라는 매체가 자리를 잡게 되면 필름복원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겁니다. 필름의 수명은 100년이 고작이니깐요. 그런 면에서 우리 HFR 랩은 현재 인도 같이 필름복원 일을 많이 하는 나라들처럼 해외로부터 필름복원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해오는 복원프로그램 하나가 2,3억 정도 하는 비싼 가격인데, 국산 기술로 1/10 밖에 안 되는 저렴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원전문 양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Q2. 영화계에서 영화후반작업의 위상은?

영화산업에서 최밀단에 위치한 을이죠... 보이지도 않아요(웃음). 후반작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도 한국에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예산을 짜면서 비용을 절감할 때 후반작업부터 예산을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중국과 대만영화를 유치해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Q3. 복원 및 후반작업의 비전은?

세계 시장 진출도 중요하지만 국내 클래식 영화들을 복원하는 일에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영화 <미몽>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도 했죠. 이런 오래된 영화들의 가치를 살려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노력으로는 힘들어서 영상자료원이나 국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문화적인 차원의 예산이 증강되어 이런 복원 사업을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에서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 | 박초로미

現 그라우 갤러리 대표. 본업은 미술인이지만 부업은 프리랜서 기고가다. 인터뷰, 여행, 문화예술 관련 원고를 쓰고 있다. 와인에 사족을 못 쓰며 분위기 좋은 곳에서 분위기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분위기 좋은 책을 쓸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

사진 | 강진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 졸업. (주)AMANA JAPAN을 거쳐 현재 AO STUDIO를 운영하고 있다.





가을걷이

들판은 가을을 거둔다.

찬서리 내리기전 가을걷이를 기다리는 들판

이제는 우리네 도시에선 옛이야기, 추억 속에 자리한다.

도시의 가을걷이는 자연이 사람을 거둔다.

황금빛의 역새가 더운 여름, 숨 가쁘게 지나온 일상을 거둔다.

까르르 웃음소리도, 추억의 사진 한 장도 그 가을걷이 속에 자리한다.





촬영장소 상암동 하늘공원

글 및 사진 | 한금선

판자촌, 독거노인, 거리의 아이들 등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7년 <집시 바람새 바람꽃>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통해 작업을 발표해 왔다. 현재 월간 <인권>에서 사진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HOT SKETCH

명성황후의 숨결을 찾아서
현장기행 시즌3

〈명성황후〉와 함께 일본 규슈 구마모토에 가다

명성황후의 숨결을 찾아서 현장기행 시즌3

태풍도 잠잠해졌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객석을 채운 700여 명의 관객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낸 생채기를 마주 대하고 있었다.
선조들이 휘두른 칼에 쓰러진 이웃나라의 왕비,
〈명성황후〉는 그들의 심장을 뛰게 했다.





HOT SKETCH

명성황후의 숨결을 찾아서
현장기행 시즌3

“돌아가신 명성황후와 구마모토 출신 무사들이 땅속에서
서로 영혼의 화해를 한 것 같은 느낌이다.”

최근 5년 새 가장 강력하다는 제18호 태풍 ‘멜로르’가 일본 열도를 강타한 10월 8일, 최고 500mm가 넘는 폭우와 순간 초속 50m가 넘는 강풍에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속출했다. 이날은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게 시해된 지 114년 된 기일이였다. 동시에 뮤지컬 〈명성황후〉가 1995년 서울에서 초연된 이후 무려 14년 만에 처음 일본 땅을 밟는 날이기도 했다. 오후가 되면서 공연이 열리는 규슈 구마모토의 하늘은 비를 멈추고 있었다. 스태프들 사이에서 ‘태풍도 비껴갔다’는 말이 나올 만 했다. 공연 시작 시간인 오후 7시가 가까워지면서 구마모토 가쿠엔대학 14호관에는 일본 관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700여 석을 가득 메우고도 일부 관객들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할 정도였다. 뮤지컬 〈명성황후〉의 일본 특별공연은 이렇게 막을 올렸다.

1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명성황후를 생각하다

‘이해와 화해의 시간 속으로’라는 부제를 내건 이날 공연은 일본 규슈 중앙부의 구마모토에서 열렸다. 구마모토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다. 또한,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일본인 48명 중 21명의 고향이자,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반성하고 연구하는 일본인 전·현직 교사들의 모임인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이 단체에는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낭인 중 한 명인 구니토모 시게야키의 외손자 가와노 다쓰미(87)도 포함되어 있다.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뮤지컬 〈명성황후〉 구마모토 실행위원회’를 설립해 이번 공연을 성사시키는 데 큰 힘을 보탤다. 〈명성황후〉의 제작사 에이콤 인터내셔널과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의 첫 만남은 2007년 10월 ‘명성황후의 숨결을 찾아서 현장기행 시즌 1-건청궁에서 흥릉까지’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지난 4월 구마모토 특별공연이 기획되고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한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어 구마모토 니치니치 신문사와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영사관, NHK 구마모토방송국 등의 후원이 확정되었다.

이해와 화해의 시간 속으로

이날 공연은 2시간 10분 분량의 원작 공연의 주요 장면을 대형 스크린에 상영하면서 배우들이 라이브 연주에 맞춰 노래하는 1시간짜리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이태원, 박완, 지혜근 등 배우들은 민비가 무당 진령군을 궁 안에 불러 들여 득남을 기원하며 은밀히 곶을 벌이는 노래 ‘수태곳’, 고종이 총주 사가로 피신한 민비가 살아있기를 기원하며 부르는 ‘그리운 곤전’, 명성황후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빛을 갈구하며 죽기 전날 밤에 부르는 ‘어둔 밤을 비춰다오’ 등 다섯 곡을 열창했다. 무대 위의 배우도, 무대 뒤의 제작진도,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도 그 어느 공연보다 진지하고 숙연한 표정이었다. 화려한 세트도, 무대 장치도 없이 단 한 회만 이뤄진 공연이었지만 그 울림은 컸다. 객석을 가득



1 공연장으로 입장하는 관객들
2,4 <명성황후> 구마모토 공연 장면
3 <명성황후> 일본공연을 소개하는 윤호진 대표

HOT SKETCH

명성황후의 숨결을 찾아서
현장기행 시즌3



〈명성황후〉 구마모토 공연 관객

메운 700여 명의 관객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주부 하야시 키요코(68)는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연이었다”라며 “아픈 과거를 다루고 있지만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불편하지는 않았다. 일본에는 역사를 잘 모르는 뮤지컬 팬들이 많은데 이런 교류가 앞으로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객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었지만 10~20대 젊은 층도 눈에 띄었다. 구마모토 현 쇼케이 대학에 다니는 나가타 유키(19)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고 있어 이 공연을 찾았는데 한국 뮤지컬의 박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오늘 공연을 보고 그 역사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가슴에 안겨준 꽃다발보다 더 벅찬 이야기

한국과 일본이 양국 역사를 함께 돌아본 이날 공연은 한일 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공연 의의처럼 곳곳에 화해의 발판을 놓았다. 공연에 앞서 후원사 구마모토 니치니치 신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가와 상무는 “구마모토 출신을 중심으로 황후를 암살한 슬픈 사건이 있었다. 양국의 과거사 극복을 위해 후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공연이 서로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사 에이콤인터내셔널의 윤호진 대

표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성사됐으며 한일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뮤지컬 〈명성황후〉 정식 공연이 이른 시일 내에 일본에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공연 직전에는 시해자의 후손이자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의 회원인 가와노 다쓰미가 분장실을 찾아 이태원 등 주연배우를 만났다. 가와노 다쓰미는 이태원에게 팔찌를 선물하면서 “리허설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 당당하게 본 공연에서도 잘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태원이 “나 역시 눈물이 나려한다”며 “일본에 와서 공연하게 돼 가슴이 훈훈하다. 이번 기회에 한국과 일본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와노 다쓰미는 눈시울을 붉힌 채 이태원에게 꽃다발을 전하며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워져야 하는 나라로 양국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위해 이 작품이 도쿄에서 공연돼야 한다”고 했다.

〈명성황후〉가 일본에 초청될 날을 꿈꾸며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이번 특별공연을 마친 배우 및 제작진과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 회원 등 일본 측 인사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공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명성황후 역의 이태원은 “돌아가신 명성황후와 구마모토 출신



명성황후를 시해한 낭인의 후손 가와노 다쓰미와 명성황후 역의 이태원 배우와의 만남

무사들이 땅속에서 서로 영혼의 화해를 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이번 공연이 앞으로 한국과 일본을 더 연결해 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시해 100주년인 1995년 국내 초연 이후 2년 만에 한국 최초로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했으며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공연되었다. 일본에서도 수차례 공연을 타진했으나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이번 특별공연으로 일본 정식공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윤호진 대표는 “미흡하지만 하이라이트 영상 공연이라도 하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며 “지금도 여러 일본 단체에서 공연하자는 제의가 많은데 오늘 공연이 이뤄졌으니 조만간 정식 공연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 | 강종훈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Delaware에서 매스컴을 공부했다. 현 연합뉴스 문화부 공연(연극, 뮤지컬) 담당 기자로 있다.

사진제공 | 에이콤인터내셔널

<미니인터뷰>

뮤지컬 <명성황후> 구마모토 실행위원회
아마나미 쥬페이 회장

뮤지컬 <명성황후>의 일본 공연이 초연 이후 14년 만에 성사된 데는 명성황후 시해범의 후손이 포함된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한 '뮤지컬 <명성황후> 구마모토 실행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아마나미 쥬페이(57) 실행위원회 회장은 “<명성황후>가 일본에서 막을 올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처음 시작할 때 관객들이 얼마나 올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큰 반향이 있을 줄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연극을 통한 한일 문화 교류에 관심을 뒀고 그 과정에서 한일 간 역사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한일 문화 교류의 통로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1995년 초연 이후 그동안 수차례 일본 공연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특별공연에도 반발이 없지 않았다. “극단 홈페이지에 비난 글이 올라오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은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주장부터 '당신이 나라를 파느냐'라는 전화가 왔어요. 어려웠다고보다는 웃기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지하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앞으로 뮤지컬 <명성황후> 공연을 구마모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일본 관객에게도 숨겨진 일들에 대해서 뮤지컬이나 연극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아마나미 씨는 이날 공연이 열린 가쿠엔대학 출신으로 현재 시모노세키에서 극단 유메사지키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연극 페스티벌을 계기로 한일 문화 교류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측의 제의에 실행위원회에 참여했다.



HOT SKETCH
정릉3동
민속조사 보고서



“ 배밭골은 70년대 그대로예요. 복개천만 바뀌고 고가가 생겼다는 거지 70년대 그 자체지요. 드라마 ‘야인시대’ 할 때 여기 빵집 나오고, 70년 때 배경으로 영화 촬영 할 때 이 동네 골목들에서 많이 찍어요. ”

“ 옛날에 여기 산골이었지. 처음 이사를 왔는데, 아주 그만 산골이야. 들이 넓으면 눈 하나가 넓은데, 여기는 비탈이 저서 하나로 넓지 않고 비탈 따라 선반처럼 눈이 있었지. 이 근방에 집은 하나도 없었어... ”



“ 우리 동네는 산신제가 유명해. 일 년 열두 달 무사하게 해달라고 비는데, 시월 초하루에 지내지. 요 근래 들어 구청장이니 뭐니 다 와서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해가고 그래. 옛날에 제물로 돼지머리를 올렸지. 시방은 간단하게 할라고 해. 60년대까지 돼지를 잡았어. 그거 오래된 거야 백년도 넘을 거야. 주소 올리고 이름 써서 소지 올리고... 산신령한테 지내는 거지. ”



내 주변의 모든 것들과 대화를 나누다

정릉3동 민속조사 보고서

정릉3동 민속조사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 도시민속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동네 보고서. 이름 없는 촌부의 일상에서부터 낱아빠진 살림살이까지, 정릉3동은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기억될까.

민속학-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

역사는 승자(勝者)만을 기억한다고 했는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학창시절 역사수업의 대부분은 그간의 큰 사건들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배우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갔던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과연 역사라는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것일까? 왜 단 한 번도 평범했지만 정말 가족을 위해, 자신이 살던 이 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을까? 자식들을 위해 온 몸이 부서져라 노동을 하고 살아온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삶에 대한 애착과 그들이 삶을 헤쳐 나가는 능력이 과연 역사 속 이른바 위인들에 비해 하찮아서였을까?

민속학은 바로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그동안 누구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결코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질 수도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학문이다. 역사에 배제된 듯이 보이지만 실제 역사를 끌어온 민중들의 삶과 그들이 만든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민속학인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네 민속학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조사 연구하였다. 아무래도 시골에는 우리 고유의 오랜 전통풍습들이 그런대로 전승되었기 때문 이리라.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다. 하늘과 땅에 기대어 살던 우리들은 이제 콘크리트 건물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숫자(주가, 금리 등)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을 뒤로 하고 우리들은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조사하게 되었고, 아주 평범하기 그지 없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보고서도 발간하게 되었다.

아현동에서 정릉까지-도시를 재구성하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국립민속박물관의 도시민속조사를 접한 분들은 이번에 발간한 정릉3동의 보고서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박물관 도시민속조사팀은 2007년 아현동에서 도시민속 조사의 첫걸음을 떼었다. 한국 전쟁 때 홀출단신 월남한 사람들, 기차표 하나 달랑 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 이미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이들의 자녀들과 또 그 자녀의 자녀들. 참 많은 이들을 만나 도시에서의 삶과 현대 한국에서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현동 조사를 통해 얻은 각종 경험을 가지고 정릉3동을 조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 아현동과 정릉3동이냐고 말이다. 글썄. 솔직히 많이 듣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항상 웅색하다. 그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 까... 좀 더 덧붙인다면 서울 중심가와 멀지 않고 교통이 대단히 편해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던 아현동의 동적인 모습과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여 항상 조용하고 고즈넉한 정릉3동을 통해 도시의 삶을 조명해보고자 했다는 정도다.

확실히 정릉3동은 조용한 곳이었다. 산이 있어서 그런지 공기도 좋고, 마치 시골 같은 인심도 남아 있었다. 주민들은 이

HOT SKETCH
정릉3동
민속조사보고서

곳이 '여성의 자궁' 형태의 풍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돈을 벌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결국 망하고 다시 들어온다고들 하였다.

풍수적으로 희한한 이야기도 들었다. 북한산은 예로부터 기가 강했다고 한다. "북악터널이 하나 있죠. 그리고 내부순환도로를 세우면서 정릉터널을 뚫었는데 터널이 두 개 생기니까 동네에서 초상이 나도 쌍초상이 나오. 산신을 노하게 했나보죠."

또한 북한산은 육산(肉山)이라 하여 고기를 먹는 산이라고 한다. 동네에서만 두 건의 산신제가 음력 시월 초하루에 열리는데, 동네 노인들이 모여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도시민들의 삶-우리 시대 이모님들을 찾아서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사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민속지와 살림살이 보고서가 그것이다. 민속지는 동네 개관부터 각 계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살림살이 보고서는 한 집을 택해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꺼내 조사한 결과를 수록한 책이다.

정릉3동 민속지는 여기서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시대와 계층별로 어떻게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지를 서술한 장과, 동네의 역사와 사회조직의 활동을 통해 '공감'하는 장을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필자는 '소통'이라는 장에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이 세 부분의 보고서에는 각각 대

학생, 종교인, 오래된 아파트 주민, 여성 상공인의 이야기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필자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학가 주변에서 밥집을 경영하는 흔히 우리가 '이모'라고 부르는 식당 사장님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다. 시골에서 상경해 서울이라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곳'에서 더구나 '여자와 그릇은 밖으로 돌리지 마라'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길들여진' 여성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찾고 삶을 개척해왔나 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렇게 사람 조사를 하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다. 특히 자신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드러내야 하고 그것이 또 책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리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가 식당 '이모님' 등 많은 여성 제보자들은 남편과 자녀들의 눈치 때문에 인터뷰가 번번이 무산되기 일쑤였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다니는데, 그저 대화만이 오고 갈리는 없다. 젊은 대학생 커플을 조사 했었는데, 조사를 마치고 이들과 거하게 술까지 마셨다. 그런데 일주일 후 이 커플은 어찌된 이유인지 헤어졌고, 기껏 조사한 내용은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폐기 되는 일도 있었다.

살림살이들-냉장고 속의 소소한 역사

주위를 둘러보면, 참으로 많은 물건들이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별다른 의미 없는 물건에서부터 아련한 추억



정릉3동에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 하나인 스카이 아파트가 있다. 영화에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대학가 식당 '이모'. 우리 이모들의 삶을 통해 한국 현대 여성사를 듣기도 하고, 대학생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들 수 있었다.

을 간직하고 있는 물건 그리고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들과 굳이 없어도 상관없을 물건까지.

도시조사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추진해 보았다. 한 가정을 택해 그 집에 소장된 모든 물건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입수경로와 사용자, 숨겨진 의미 등을 기록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어느 집이 낯선 조사원들에게 장롱과 책상 서랍을 열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숙옷도 보여줘야 하고 학창시절 성적표도 공개하며 이 물건들이 곧 책으로도 나온다는 사실에 선뜻 조사에 임하는 가정은 참으로 구하기 힘들다.

그래도 교회 목사님의 추천으로 한 가정을 소개 받았고, 그 집의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경북 김천에서 상경하여 온갖 고생 끝에 어엿한 목재소 사장님이 된 가장, 서울 출신으로 불우했던 과거를 이겨낸 두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대학생 쌍둥이 남매의 살림살이를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남의 집 물건을 통째로 드러내다 보니 에피소드가 없을 리 없다. 조사 도중 화투와 트럼프가 나왔는데, 이것을 촬영하려고 하자 아주머니가 대경실색하며 “은혜로운 집안에 이렇게 나오면 안돼요.” 하고 여기저기 감추기도 했다. 딸아이의 인형이 나왔을 때는 예전 남자친구가 선물한 것이니 보고서에서 빼달

라는 엄마의 ‘사려 깊은’ 충고도 있었다.

조사를 하다가 가슴 아이라는 경험도 하였다. 아현동 조사 때인데, 등나무가 집 안을 휘감고 있길래, 나무가 예쁘다고 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큰 아들이 요절을 했다고 한다.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바지에서 동전이 나왔는데, 이 동전으

로 나무를 키웠고 십년도 안 되서 이렇게 자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햇볕 피할 그늘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자라났다고, 우리 아들 효자라고 하며 눈시울을 붉히던 부모를 뵈는 적도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세상을 위해

도시민속조사는 상기 지역에 직접 거주하면서 수행하였다. 아현동에서는 옥탑방에서, 정릉3동에서는 반지하 연립주택에서 거주하며 주민들과 소통하였다. 민속학이란 바로 현장학이며 주민들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설정해야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많은 고생과 노력 끝에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보고서는 책의 형태로뿐만 아니라 미처 책에 수록하지 못한 동영상 자료와 사진자료들이 담긴 DVD가 함께 발간되었다. 도시를 대상으로 했던 농촌을 대상으로 했던, 민속보고서의 가치는 바로 일반 민중들이 역사 속에서 응당 받았어야 할 자신들의 역사적 몫을 찾아주었다는 데에 있다. 그 가치를 찾아 준다는 것은 바로 인간 모두는 존중받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사람 하나 하나가 소중한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보자는 데 있다.

*원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http://www.nfm.go.kr>)

자료마당 ▶ 자료이용 ▶ 발간자료 원문검색

〈정릉3동 민속지 - 변화 공감 소통〉

〈정릉3동 생활제 - 김정기 조성복 가정의 살림살이〉

글 | 이건욱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민족지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있다. 도시민속, 시베리아 샤머니즘, 슬라브족 전통 풍속 전공. 주요 저서로는 『아현동 사람들 이야기-세상에 남의 일이란 없다』, 『김종호·김복순의 물건이야기』, 『정릉3동 민속조사 보고서-변화, 공감, 소통』, 『부라트 샤머니즘-어둠 속의 작은 등불』 등이 있다.

사진제공 | 국립민속박물관



냉장고를 열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반찬까지도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HOT SKETCH
Text@Media Fest

문학과 미디어 아트의 만남

어떤 아름다운 지대의 체험



한 시인의 시에서 단어 몇 개를 훔쳐온다.
그 단어를 꼭 사용해야 할 시의 도구로 또 다른 시인에게 넘긴다.
이 스릴 넘치는 작업이 문학과 미디어 아트가 만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다른 사람의 상상의 산물을 넘보는 것,
낮선 장르의 경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묘한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문지문화원 사이’로부터 Text@Media Fest(부제: 텍스트, 미디어와 날다)에 참여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기대와 우려가 반반씩 섞인 묘한 느낌을 가지고 그 의뢰에 응했다. 문학과 미디어 아트의 접목이란 시도는 한국 예술계에서 매우 보기 드문 실험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했으나 그 형식에 있어 우려도 없지 않았다. 즉 서로 안면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협업 경험이 없는 타 장르의 작가들이 모여 1회의 퍼포먼스를 위해 구상과 실행을 함께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단발성에 그칠 위험이 있어 보였다.

탈장르, 혹은 다원예술이라는 개념에는 다소간 오해가 있다. 분리된 두 장르가 서로 교류하며 새로운 창작과정과 결과물을 낳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해다. 실은 역사적으로 문학과 미술과 디자인의 만남은 탈장르라든지 다원예술이라는 개념과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운동이었다. 탈장르와 다원예술의 선구적 사례로 여겨지는 20세기 초 다다이즘이나 이탈리아 퓨처리즘 혹은 러시아 구성주의 등은 탈장르나 다원예술이라는 개념이 인도한 운동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운동들은 당대의 역사적 현실, 즉 혁명과 전쟁에 대한 예술 공동체의 대응이었다. 따라서 예술 공동체의 실존이 개념을 우선했으며, 이 공동체는 시각예술가와 문학인들의 느슨한 우정과 연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20세기 중반 백남준이 참여했던 플럭서스 운동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백남준은 음악으로부터 출발해서 음악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 TV라는 미디어를 사용했다. 그의 첫 번째 전시인 <EXposition of music – ELectronic television>에서도 잘 나타나듯, 백남준은 탈장르라는 개념의 인도 없이, 음악 그 자체를 극단으로 밀어붙이며 음악 바깥으로 탈주했다. 결국 이러한 운동들은 애초부터 분리된 장르들의 만남이 아니었다. 예술가들의 몸짓,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말과 행동, 그것들이 엮이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새로운 예술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현대의 미디어 아트가 선보이는 최근의 탈장르적 프로젝트들은 물론 과거의 문화 혁명적인 전위의식과는 무관해 보인다. 일군의 프로젝트들은 공동체가 아니라 랩Lab에서 생산된다. MIT 랩이나 USC의 애년버그 센터 등은 협력이라는 제도적 모듈을 모든 프로젝트의 기획과 추진 실행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산학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아카데미, 예술계와 기업 사이의 협력, 그리고 디자이너, 엔지니어, 시각미술가, 인문사회학자들 사이의 전문가적 협력, 물론 이 거대한 복합체의 바깥에서 또 다른 게릴라적 프로젝트들과 보헤미안적인 작업들이 등장한다. 몬트리올의 철거민을 주제로 한 J.R. Carpenter의 <in absentia> (2008)의 협동적 글쓰기가 보여주는 소박함과 정치적 명료성은 USC 애년버그 센터의 <Labyrinth>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멀티미디어적 세련됨과 도시에 대한 노스텔지어적인 감수성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Janet Cardiff의 <Walks> 시리즈 사운드 아트는

HOT SKETCH
Text@Media Fest

최소한의 기술로 최대치의 포에틱스를 이끌어낸다. 그녀의 아름다운 작품은 예술가의 고독과 비밀의 나눔이라는 오래된 보헤미안적 우수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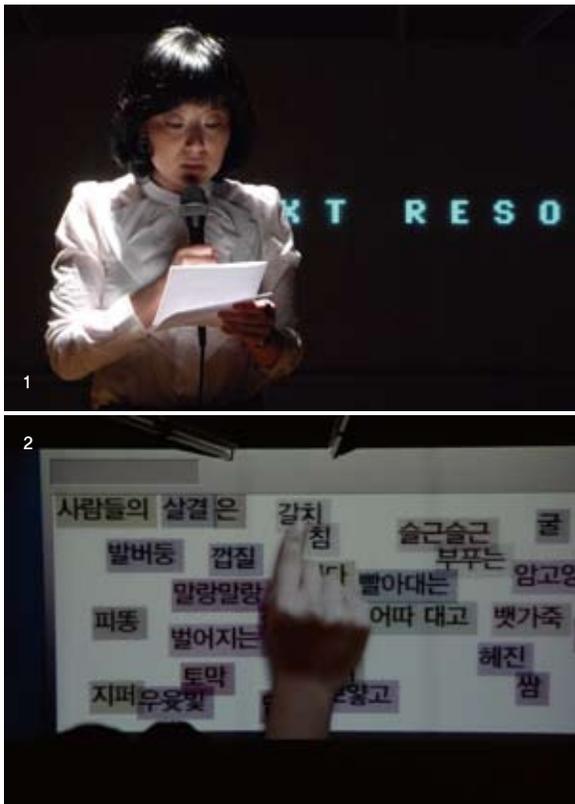
요컨대 탈장르와 다원예술은 예술계 안의 역학과 네트워크, 제도적 공간과 틈새로부터 탄생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탈장르와 다원예술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통섭'이라는 유행어로 등장한다. 문지문화원 사이의 Text@Media Fest는 이 유행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자 그 유행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양가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문학판에서 탈장르적 실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디어 아트와 문학의 만남이라는 일관된 콘셉트를 가지고, 미디어 아티스트와 작가가 동등한 자격과 지위에서 만나 구상과 실행을 함께 하는 식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제 참여한 작가로서 구체적인 작업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필자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태한 작가와 함께 <텍스트 해

상도>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우리는 시를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시 쓰기를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종의 기계적 컴퓨팅으로 보자고 합의를 한 후 실험을 시도했다. 실험 방식은 다음과 같다. A라는 시인의 첫 번째 시에서 중개인(M)인 나와 이태한 작가가 약 30~40여 개의 단어들을 선택한 후 그것들을 B시인에게 넘겨준 다음 새로운 시를 쓰게 한다. 마찬가지로 B시인의 시에서 단어들을 선택한 후 그것들을 A시인에게 넘겨주고 새로운 시를 쓰게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단어들을 맞교환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네 명의 시인들이 쌍을 이루어 동일한 실험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 실험의 과정과 절차는 철저하게 비밀이었고 발표 당일에서야 이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동일한 데이터가 다른 컴퓨팅 알고리즘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가 궁금했던 것이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에 직면했을 때 어떤 시가 탄생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지면이 허락지 않아 여기서 그 결과와 의의를 상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사실 이 실험 속에서 드러난 것은 시 쓰기의 평범한, 그러나 숨겨진 진실인지도 모른다. 이질적인 것들과의 충돌, 이질적인 것들의 강제 속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사물들. 발터 벤야민의 말대로 그 낯선 "돌들이 상상의 양식"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태한 작가는 특히 이 창작 과정을 발표 당일에 직접 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관객의 흥미를 돋우었다. 관객들과 함께 필자가 김민정 시인의 시에서 단어들을 고르면 이 단어들은 화면상에 마치 오려진 종이조각들처럼 등장한다. 필자와 관객들은 단어들이 새겨진 그 종이조각들을 마우스로 옮겨가며 사이사이에 새로운 단어들을 채워 넣어 새로운 시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미디어 아트는 이 과정을 단순히 비주얼로 보여주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역으로 이 비주얼 자체가 콘셉트의 구상과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즉 시 쓰기 과정을 비주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란 '내면의 표현'이 아니라 데이터 조각들로 구축된 사물이라는 진실을 드러낸다.



1 심보선+이태한의 <텍스트 해상도> 중 김민정 시인의 낭독무대
2 <텍스트 해상도> 중 관객과의 시작 시연 장면



3 성기완+구동희의 <파라렐귀지 : 페이션트 컨트롤> 중 독일언어학자 채팅영상
4 김종혁+최수환+이세옥의 <자동기계들의 밤, 쌍쌍-바에서 불려요> 중 야외빌딩 프로젝션
5 <자동기계들의 밤, 쌍쌍-바에서 불려요> 참여작가 최수환

이러한 과정은 다른 작가들의 작업들 속에서도 확인된다. 소설가 김종혁과 미디어 아티스트 최수환, 이세옥씨의 작업에서도 새로운 글쓰기가 시도되었다. 김종혁은 당일 관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구축한 작업 환경에서, 즉 이질적인 것과의 충돌 속에서 흥분적으로 소설을 써내려간다. 이 텍스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출력되어 사람들에게 읽힌다. 앞으로 12월 초까지 '김민정+오재우', '한유주+이준', '이원+임민욱' 작가들 역시 새롭게 구축된 미디어 인터페이스로부터 일련의 이미지+텍스트를,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쓰기와 만들기"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란 우연한 상황 같지만 오랜 대화와 협력이 전제된 상황이다. 그것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번 Text@Media Fest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이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었다. 가장 실험적이라 여겨지던 각 장르의 작가들조차 타 장르의 작가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다지 과감하지 못했다. 그들은 협력 작업이라는 형식을 어색해 했다. 대화할 때는 말을 아꼈고 어떤 구체적 기획을 해야 할지 난감해 했다. 아이디어가 붓물이 터지고 신명나게 회의를 하게 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결국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장르라는 제도적 벽 안에서만 새로움을 추구했는지도 모른다. 새로움을 밀어 붙이다가 '문학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의 경계가 흐려지고 사라지는 지점에서는 멈춰 섰는지도 모른다. 사실 '문학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은 언제나 그 경계 바깥과의 조우 속에서 갱신하고 확장함에도 말이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즐거웠던 체험은 바로 협력의 즐거움이었다. 나의 아이디어는 이태한 작가의 아이디어와 만나 긴장하고 타협하고 상승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둘도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사이의 어떤 야릇한 지대에 함께 존재했다. 그 야릇한 지대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점멸하듯 이어질 것이다. 이 점멸 상태의 야릇한 지대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만들어낸 공동체적 감각으로부터 구상과 실행을 이끌어내는 것,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작품보다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어떤 말과 행동을 예술과 삶 모두에 충실한 방식으로 구사하게 될 것이다.

글 | 심보선

199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됐다. 시집으로는 2008년 발간한 <슬픔이 없는 심오 초>가 있다.

사진제공 | 문지문화원 사이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11 vol 33

EMERGING SPACE
잠실종합운동장의
문화적 변모

주 경기장 하늘을 뒤덮은 흰색 천의 물결. 디자인올림픽 슬로건 'I-DESIGN'의 'I'를 형상화한 조형물이다.

스포츠 공간에 디자인을 접속하다

잠실종합운동장의 문화적 변모

20년 전 88올림픽의 기적을
이루었던 잠실종합운동장이 디자인의
기적을 이루는 동지로 변하고 있다.
제작년부터 장애인 예술가들이
창작열을 불태우는 스튜디오로
활용되는가 하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곳에서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열렸다.
잠실종합운동장의 새로운 변화의 현장에
다녀왔다.



“잠실종합운동장이 20여 년 전 스포츠라는 하드웨어적 요소를 통해 서울을 세계에 알렸다면, 21세기에는 디자인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통해 창의문화도시 서울, 디자인도시 서울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잠실종합운동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를 치르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개·폐회식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경기가 개최된 경기장. 온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전 세계에 서울이라는 도시를 각인시킨 역사적 현장. 최근에는 국제적인 축구경기과 각종 콘서트를 비롯한 행사가 열리는 공간. 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프로필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바로 예술이 꽃피는 디자인 산실로서의 공간이다. 잠실종합운동장이 20여 년 전 스포츠라는 하드웨어적 요소를 통해 서울을 세계에 알렸다면, 21세기에는 디자인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통해 창의문화도시 서울, 디자인도시 서울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2만여 관중석을 뒤덮은 ‘에코 및 그린’ 전

지난 10월 9일, 서울 잠실에 한 송이 꽃이 피었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의 화려한 서막과 함께 주 무대인 잠실종합운동장이 거대한 꽃처럼, 세계 최대의 설치예술작품으로 재탄생되었다. 88 서울올림픽의 기적을 일구어낸 그곳이, 서울디자인올림픽을 통해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서울의 면모를, 그리고 디자인의 기적을 향한 커다란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주경기장 입구인 호돌이 광장에서부터 디자인의 물결



을 감지할 수 있다. 곳곳에 서울의 상징물인 해치 조형물들을 놓아서 덩그러ん 광장을 생동감 있게 바꾸어 놓았다. 작년 서울디자인올림픽 때 전시했던 최정화 작가의 페트병을 재활용한 4m 높이의 ‘리사이클링 해치’를 비롯해 한복 입은 전통 해치, 카우보이 해치, 선글라스 쓴 해치 등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조형물 앞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상징 조형물은 메인 무대인 주경기장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 해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찾았던 사람이라면 주경기장을 둘러싼 거대한 플라스틱 벽을 보며 감탄한 바 있을 것이다. 올해는 그 감동을 하늘로 옮겼다. 주경기장 하늘을 온통 ‘I’자 모양의 하얀색 폴리에스테르 천으로 수놓았는데 꽤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할뿐더러 바람에 나부끼며 물결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었다.

경기장을 둘러싼 관중석에는 ‘에코 및 그린’을 주제로 연출한 세계 최초의 경기장 관중석 전시가 열리고 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기업·학교 등이 친환경 소재로 저마다 제작한 전시물을 주경기장 1·2층 약 2만여 관중석에서 선보이는데, 맛있게 황량하던 플라스틱 의자들이 다양한 컬러와 모양을 입고 상상 이상의 창의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친환경 주제에 맞춰 전시물 설치대와 각종 사인물의 주요 소재는 목재가 아닌 자연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등 친환경적인 소재로 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송파구청은 독특한 리메이크 자전거 디스플레이를 통한 체험 전시 공간을 연출하고, 중랑구는 나무 유닛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대형 스케일의 설치 아트 ‘움직이는 숲’을 선보였다.



1



2



3



4



5

- 1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전경. 디자인 콘퍼런스, 전시회, 공모전,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곳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 2 서울문화재단의 <문화가 있는 놀이터> 전.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체험 학습 놀이터와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3 서울의 상징인 해치 퍼레이드. 디자인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한 43점의 해치가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 4 마블러스 모션, 마린보이 등 서울문화재단에서 선발한 <서울거리아티스트>들의 공연 참여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한 서울디자인올림픽
- 5 관중석을 '그린'과 '에코'로 채운 i-Green Design전. 서울시 자치구 및 시민, 기업들이 개성을 담아 꾸민 의자와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EMERGING SPACE
잠실종합운동장의
문화적 변모

이동거리를 최소화한 집약적인 전시 공간

주경기장 그라운드에 들어서면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두 개의 '에어돔'이 양편에 보인다. 서쪽 돔 안에는 주제전인 '디자인 장터전'과 세계 디자인 제품이 전시된 '월드디자인 마켓_서울' 장터가, 동쪽 돔에는 디자인으로 변화된 서울의 모습을 그린 '서울미래비전' 행사장과 아시아 대표 3국의 문화 차이에 따른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는 '한중일 생활문화 일상에서의 休',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 INDEX Award 2009'가 마련되었다. 디자인 장터전은 시민 누구나 디자인을 사고, 팔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장터형 전시'로, 전시는 물론 현장에서 비즈니스가 이뤄져 디자인이 불황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도록 꾸며져 있다.

주경기장 1층 내부 통로도 전시장으로 활용된다. 국내외 신진 또는 유명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세계건축디자인 초대전과 서울디자이너의 꿈, 세계디자인문화전, 기업·단체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1층 내부 홀과 휴게 공간, 그리고 남 직문 전시장에서는 총 11개의 '시민참여전시'를 만날 수 있는데, 2009 벤치마크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를 비롯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전시, 2009 서울시 좋은 간판 전시, 2009 스티디자인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총 11개의 시민참여전시가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1층 외부 전시장은 기업전 일부를 포함한 예비 디자이너인 대학생들의 실험적인 작품이 전시되는 디자인탐구전이 열린다.

사실 서울디자인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다소 위험한 발상일 수 있

다. 전시나 콘퍼런스 같은 행사를 열기에는 너무 개방된 공간이고, 이미 20년 전에 올림픽을 치른 곳이라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부적합성을 딛고 2009 서울디자인올림픽은 잠실운동장을 새롭고, 밝은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관람을 위해 지난해보다 동선을 단순화시켜 시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점이 눈에 띈다.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그라운드와 관중석을 최대한 집약적으로 사용해 이동거리를 대폭 줄이고, 행사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했다. 호들이 광장에서 경사로를 따라 2층으로 곧장 올라가 그라운드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슬로프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전시장인 주경기장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게 꾸민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디자인을 만지고 체험하는 놀이 페스티벌

주경기장 한쪽에 위치한 보조경기장은 디자인과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온 가족이 함께 오감을 통한 디자인 체험으로 디자인에 대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i-DESIGN 놀이터'와 서울거리아티스트 공연이 그것이다. i-DESIGN 놀이터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현장체험 학습관으로, 재미있게 놀면서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학습전과 디자인의 기초학습 및 창의력 증진을 도모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보조경기장 내 에어돔에서 펼쳐지는 '아이디어 상상 체험관'은 생활 속에서 쉽게 디자인의 원리와 활용법을



서울문화재단의 <문화가 있는 놀이터> 전.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체험 학습 놀이터와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내체육관 데크에 자리 잡은 장애인 미술창작스튜디오. 갤러리와 개인 창작 공간이 있으며 각종 미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 체험물을 직접 만지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체험 전시로 한번쯤 관람해볼 만하다. 뿐만 아니라 '문화가 있는 놀이터', '상상 어린이 공원'에서는 프로펠러 달린 자동차, 날개 달린 미끄럼틀처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면서 디자인 원리를 배우고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각종 놀이 기구와 놀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 관람객이 심심할 틈이 없다. 주로 오후 시간대에 펼쳐지는 서울거리아티스트 공연도 아이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안겨 줄 것이다.

장애인 미술작가의 꿈과 희망을 품다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문화창작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7년 실내체육관 데크에 장애인 미술창작스튜디오를 마련했다. 장애인들의 예술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100평의 공간을 족필, 구필, 청각, 지체장애인 미술 화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창작스튜디오로 조성하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들었다. 이곳은 매년 장애인 작가들을 선발해 독립적인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작품 활동과 작품 전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창작스튜디오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술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성인 미술교육과

가족과 함께 하는 장애아동 미술교육, 두 개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성인 미술교육은 서양화, 한국화, 서예·서각, 누드 크로키, 그림동화, 심리미술치료 등으로 구성되며 수강인원은 10명이다. 매주 토요일에 이뤄지는 장애아동 미술교육은 다양한 종류의 매개체를 활용한 미술교육을 실시함으로 장애아동에게 창의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활동을 통한 자존감 향상과 표현력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족 관계를 증진시키고 또래 장애아동과 가족 간의 만남을 통해 소통과 이해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장애아동미술대회나 미술캠프, 외부 연계 전시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갈 계획이다.

글 | 이은아

세상의 새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프리랜서 에디터. 글 쓰고 사진 찍는 걸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 현재 잡지, 사보, 웹진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진 | 김병규(신기루스튜디오)

잡지 필름 2.0과 DAZED & CONFUSED의 사진을 찍었다. 지금은 문화와 예술에 관한 오브제를 찾아 국내외를 여행하고 있다.

서울을 말한다

나는 서울에 산다

나는 서울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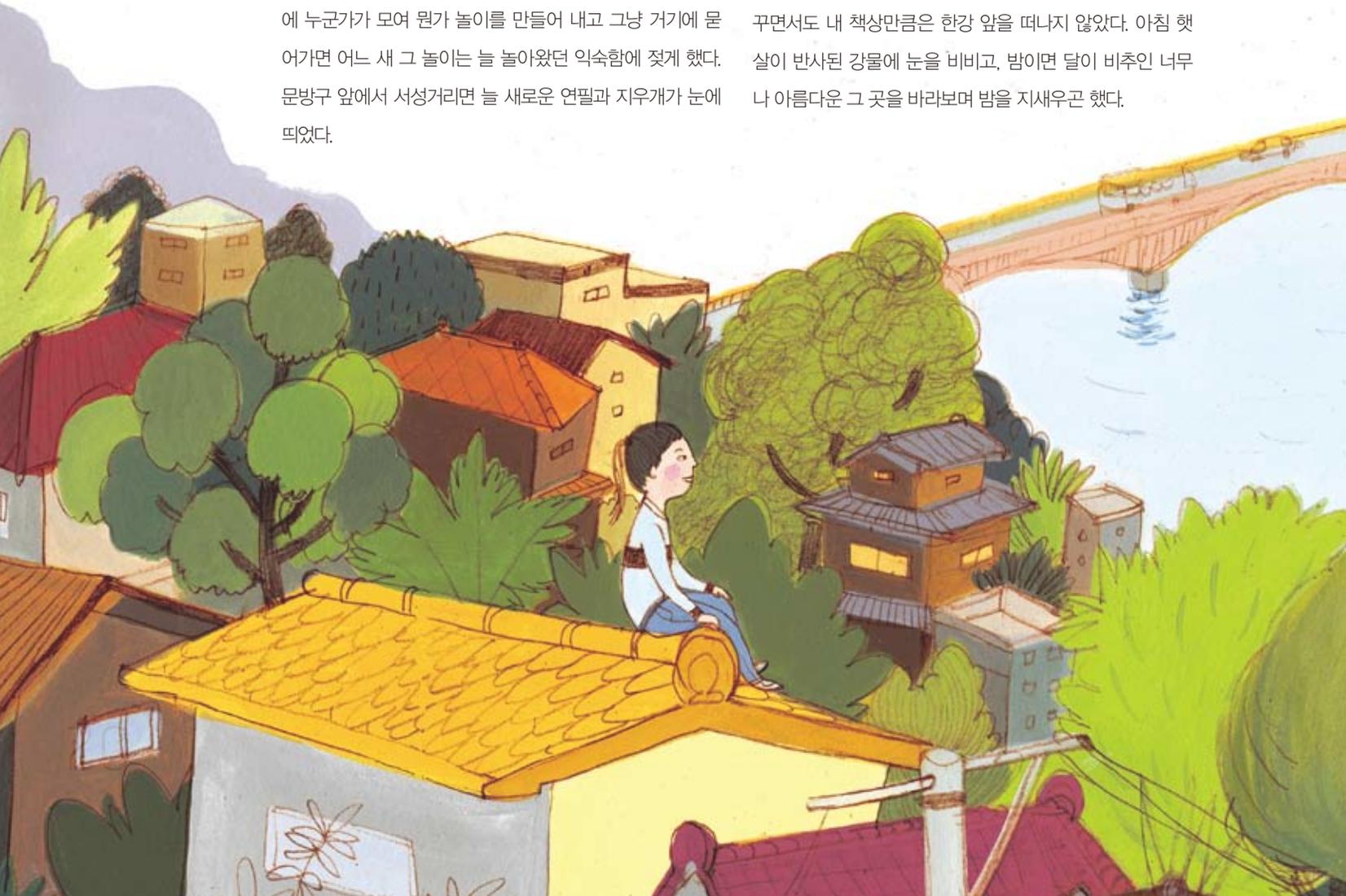
본 쪽지는 이 시대의
문화예술인들이
보고 느끼는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에게 서울은 고향이며 추억이다.
한강을 늘 바라보던 사람에게 한강은 마음의 고향을 가져다준다.
도심 속 바쁜 일상을 지내다 문득 걸음을 멈춰보면
지금 서 있는 이곳, 서울도 그리워질 때가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대다수 생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내 어린 시절 추억은 오직 서울에서뿐이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을 부러워도 했지만, 도시에서의 성장은 또 그런대로 재미도 있고 늘 새로웠다. 대문만 나서면 골목길에 누군가가 모여 뭔가 놀이를 만들어 내고 그냥 거기에 묻어가면 어느 새 그 놀이는 늘 놀아왔던 익숙함에 젖게 했다. 문방구 앞에서 서성거리면 늘 새로운 연필과 지우개가 눈에 띄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서울.

그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을 참으로 가까이 두고 살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기억한다. 구석방에 자리 잡은 내 책상은 언제나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공공거리며 방 안의 구조를 바꾸면서도 내 책상만큼은 한강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반사된 강물에 눈을 비비고, 밤이면 달이 비추인 너무나 아름다운 그 곳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곤 했다.



이렇게 나는 한강과 참으로 오랫동안 살을 비비고 살아왔다.
나는 학교로 가기 위해 언제나 한강을 건너가야 했다.
어두컴컴한 새벽, 정류장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바라보던 한강...
만원버스에서 사람들에게 지친 얼굴을 기대고 바라보던 귀갓길의 한강...
강을 건너가고 건너올 때마다 늘 그렇게 흐르고 또 흘러가던 한강...
아주 희미한 기억 속 외할아버지 손에 잡힌 작은 내 손...
미끄러져가는 전차를 타고 내린 마포 나루터...
나룻배 뱃전에 앉아 바람을 지른...
아, 그래. 강은 머나먼 그 곳에도 있었다.

이렇게 한강은 나의 세월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흘러 보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어김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서울 사람들의 삶이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때나 지금이나 한강을 바라보며 살고, 건너가고 건너오는 삶을 산다. 내 어린 날의 기억들은 모두 삼켜버리고 오직 한강만이 살아서 내게 이야기를 던진다.

나는 서울에 산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을수록 서울은 나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밀라노 스칼라오페라극장에는 무대 막(幕)을 열고 닫는, 여든 살 넘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오페라 지휘자에 따라 속도와 강약을 달리하며 막을 여닫는 줄을 잡아당겨, 공연의 맛을 다르게 할 줄 알았다. 나 같은 연출가에게 무대의 막은 현실과 이상(극·劇)을 가르는 경계다. 우리는 인간의 상상력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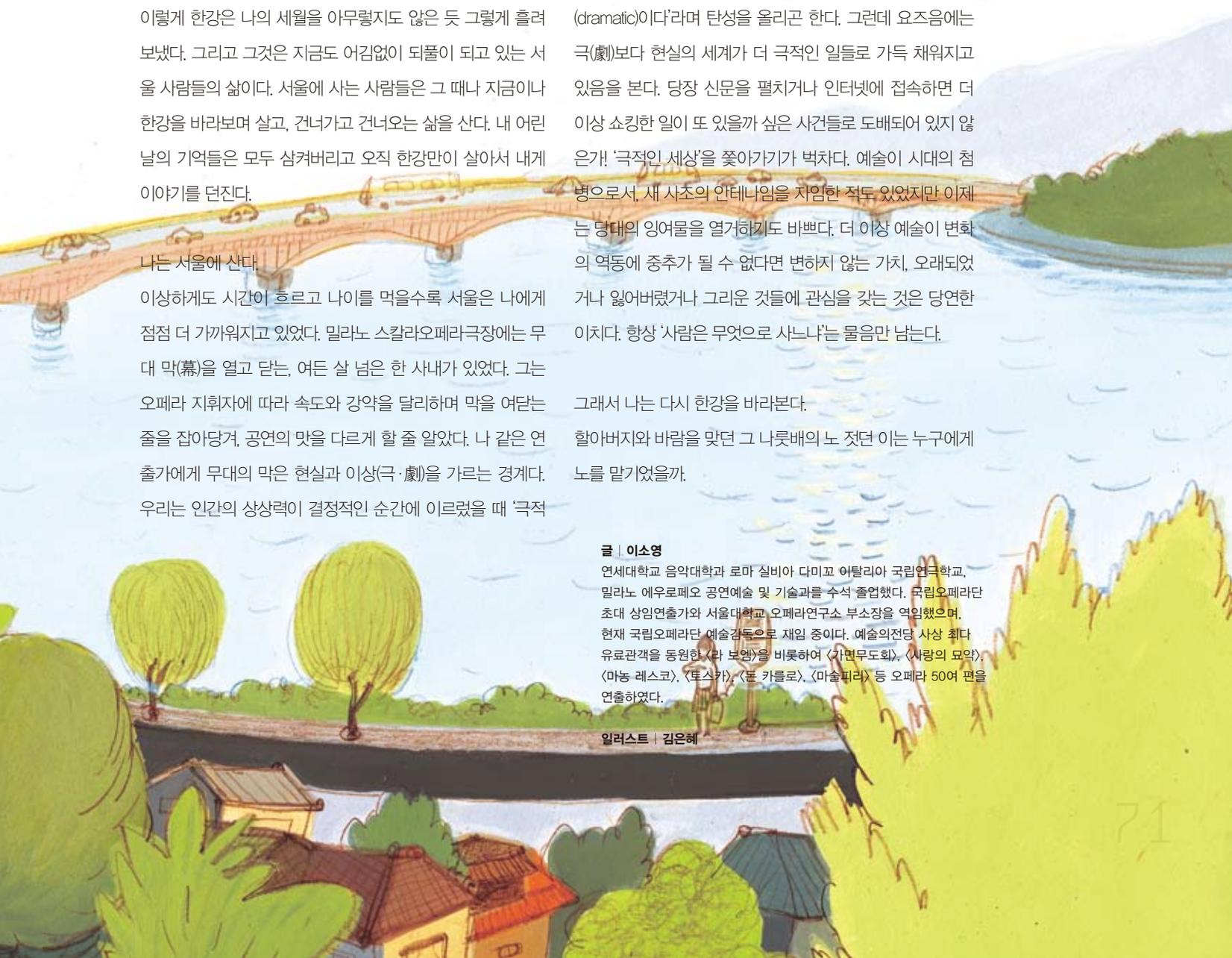
(dramatic)이다'라며 탄성을 올리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극(劇)보다 현실의 세계가 더 극적인 일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음을 본다. 당장 신문을 펼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면 더 이상 쇼킹한 일이 또 있을까 싶은 사건들로 도배되어 있지 않은가! '극적인 세상을 쫓아가기가 벅차다. 예술이 시대의 첨병으로서, 새 사츠의 안테나임을 자임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당대의 잉여물을 열거하기도 바쁘다. 더 이상 예술이 변화의 역동에 중추가 될 수 없다면 변하지 않는 가치, 오래되었거나 잃어버렸거나 그리운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항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는 물음만 남는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강을 바라본다.
할아버지와 바람을 맞던 그 나룻배의 노 젓던 이는 누구에게 노를 맡기었을까.

글 | 이소영

연세대학교 음악대학과 로마 실비아 다미코 이탈리아 국립연극학교, 밀라노 에우로페오 공연예술 및 기술과를 수석 졸업했다. 국립오페라단 초대 상임연출가와 서울대학교 오페라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재임 중이다. 예술의전당 사상 최다 유료관객을 동원한 〈라 보엠〉을 비롯하여 〈가면무도회〉, 〈사랑의 묘약〉, 〈마농 레스코〉, 〈토스카〉, 〈돈 카를로〉, 〈마술피리〉 등 오페라 50여 편을 연출하였다.

일러스트 | 김은혜



FOCUS INTERVIEW

〈정말 별 일 없었는지〉

드라마 콘서트 연출자 장기하

내 노래가 삶이라면,
내 삶이 노래가 될 수 있다면?

〈정말 별 일 없었는지〉 드라마 콘서트 연출자 장기하

남산예술센터 개관 2009 시즌 프로그램을 훑다가 손이 멈춘다. 창작 공연 중심의 개관 프로그램에 뮤지션의 이름이라니. 그것도 작년부터 입소문을 타고, 인디 음악의 붐을 일으킨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다. 작사, 작곡 때로는 무대에서 묘한 퍼포먼스를 하던 장기하가 이번에는 연출도 한다. 드라마콘서트 연출자로 나선 장기하를 어느 하늘 높은 가을에 만나보았다.

작년 연말이었던가. 일찍 귀가해 봐야 별 일 없는 몇몇 지인들이 어느 집에 모여 맥주를 마시며 밤을 새고 있었다. 이럴 때 꼭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하나쯤 있다. 괜한 이메일도 체크하고 음악 사이트에 들어가 노래도 몇 곡다운받는다. 생경하지만 충분히 매력 있는 플레이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컴퓨터와 연결된 값싼 스피커의 잡음과 함께 노래가 흘러나온다. 조금 있으니 자, 이제 우리 노래 시작합니다. 라고 말해주듯 짧은 전주와 함께 ‘짜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누군가 술에 취해 기타를 튕기며 주절거리듯 노래를 한다. 가수 이름이 뭐야? 장기하와 얼굴들. 이름 좋네. ‘늑늑한 비닐장판에 발바닥이 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몇 살이야? 젊어. 애늬은이네.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이빨싸 담배꽂초가’ 이제는 노래가 ‘찌질’함의 절정을 지나 처절해진다. 실연에든 시련에든 몇 일간 집밖으로 안 나오고 혼자 지내본 사람은 짜구려 커피의 맛을 안다. 그리얼한 고백의 의미를 안다.

2009년 정말 별 일 없으셨어요?

공연 연습은 어떻게 돼가요? 회의는 계속 하고 있고... 캐스팅도... 그러면 대충 구성안이 나왔나보네요. 아, 지금 인터뷰 시작한 건가요? 테이블 위에는 수첩과 녹음기 대신 주문한 핫초콜릿과 시원한 호가든 한 병이 놓여 있다.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과 기사에 담길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해요. 괜찮죠? 뭐, 상관없죠. 카페로 성큼성큼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다. 별 말씀이 없으시리라는 것을... 다만, 검색해본 자료들에서 보지 못한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별 다른 질문이 없더라도...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된다. 중학생 시절 기타를 배웠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몇몇 친구들과 엉터리 작곡을 하며 노래도 불렀고 대학에 와서는 괜히 노래가 좋아 밴드활동을 했다.

“본격적인 음악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건 ‘눈뜨고 코베인’ 시절부터라고 할 수 있죠. 형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음악도 많이 들었어요. 신중현, 송창식, 산울림, 송골매... 주로 한국 7,80년대 가요들과 외국 밴드의 곡들... 예전에는 그냥 흘러들었다면 그때는 지겹도록 들었어요. 특히 산울림은 음악 뿐 아니라 그분들이 추구하는 정신까지도 닮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틈틈이 써놓은 곡이 있어서 ‘장기하와 얼굴들’을 만들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EBS 스페이스 공감에 헬로

FOCUS INTERVIEW

〈정말 별 일 없었는지〉

드라마 콘서트 연출자 장기하



“우리말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음악에 담는 게 상식인데 요즘에는 노래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곡들이 많잖아요. 7,80년대 한국 밴드와 영어권 밴드들은 그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배철수 선배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 방송을 들어보면 말이 가지는 뉘앙스, 장단이 정확하세요.”

루키가 된 거죠. 아무래도 방송출연 하니까 많이 알려졌어요. 씬지사운드페스티벌 ‘숨은 고수를 찾아라’에 나간 것도 비슷한 시기예요.”

그 후 ‘장기하와 얼굴들’은 바쁜 일정을 보냈다. 속된 말로 뜬 것이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콘서트에 초청되고 세 곡이 실린 봉가봉가 레코드의 수공업 싱글 앨범은 1만 장이 넘게 팔려 나갔다. 뉴스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인터넷 검색어에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의 노래가 이 시대 젊은이들의 초상을 담고 있단다. 네티즌들 사이에는 인디계의 서태지라 불리고, 문화평론가들 사이에는 88만원 세대의 정서를 담은 문화아이콘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에이,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는 88만원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 등록금 받으면서 대학도 다녔고, 취직 준비를 해본 적도 없고. 대학 때는 어떻게 하면 음악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 했었죠. 답이 없더라고요. 졸업하고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MBC 보도국에 외신이 들어오면 기사 번역하고 헤드라인 잡아주고 하는 일이었어요. 거기서 일하던 선배가 소개해 주면서 그거 하면 시간도 많이 남고 생활도 된다고, 그럼 음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일을 시작했어요. 뭐, 재미있었는데 두 달 만에 관렸어요. 곡이 뜨는 바람에…”

그때부터 일년 반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다. 요즘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공연을 한다. 가을이라 대학 축제에도 초청되고 꾸준히 클럽 공연도 한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존경하는 뮤지션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 좋다.

“안 좋은 점은 계속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 대부분 인터뷰 하다보면 음악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이 곡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어떤 곡이냐는. 처음에는 ‘그냥 노래를 들어 보세요’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말도 자꾸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설명을 해드려요. 마찬가지로, 일년 반 동안 계속 같은 곡만 부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다른 곡들이 더 나와서 다른 방식으로 불러보면 재미있을까…”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좋다

11월 24일 남산예술센터에서 올리는 드라마 콘서트는 일년 반 동안의 ‘장기하와 얼굴들’의 음악 생활을 정리하는 자리다. 1집 활동을 돌아보며 있었던 일들로 공연을 구성한다. 일주일에 한번 스태프들과 회의를 하며 공연 콘셉트와 구성을 잡았다. 영상도 사용하고, 퍼포먼스를 하는 배우들도 나오고 나레이션이 흐른다. 6일 간의 공연 중 매일매일 특별한 게스트들의 깜짝 출연도 있다. 작년, 인사미술공간에서 ‘얼굴 좀 봅

시다' 스펙타클 공연을 연출해 보고 나서는 새로운 공연 형식에 대한 재미와 호기심을 느꼈다.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장기하는 휴식기에 들어갈 생각이다.

“쉬고 싶죠. 가을 공연이 끝나면 차차 활동을 정리하고 무조건 쉴 거예요. 그냥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여행도 하고 싶고, 2집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활동 중에 틈틈이 곡을 써놓은 것도 없고, 추구하는 음악 이라기보다... 잘들리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보컬도 악기인데... 우리말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음악에 담는 게 상식인데 요즘에는 노래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곡들이 많잖아요. 7,80년대 한국 밴드와 영어권 밴드들은 그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7,80년대에는 한국말을 가장 잘 살리는 리듬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송창식, 산울림, 송골매... 배철수 선배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 방송을 들어보면 말이 가지는 뉘앙스, 장단이 정확하세요. 심지어는 잠깐 포즈를 두었다가 다시 말하는 타이밍까지, 랩 같아요. 노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 들리는 음악'의 의미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사에 매료된 사람들이 많다. 싸구려 커피에 갑자기 등장하는 주절거리는 랩답지 않은 랩도 그렇고 일상의 구질구질함과 찌질한 연애의 지난함을 여과 없이 담아내는 것도 그렇다. 그의 음악이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산울림도 그런 맥락에서 존경하는 뮤지션이고, 한 사람 더 들자면 한비야 씨를 존경한다고 했다. 20대 들에게 닳고 싶은 사람 1위에 손꼽히는 한비야 씨. 무엇이 젊은이들의 펄펄 끓는 열정에 뜨거움을 더하는 것일까.

“뒤편까. 일단 저지르는 힘? 한비야 씨가 쓴 책을 읽다보면 이 분은 자기가 하고 싶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행동을 하세요. 망설이지 않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머릿속에서 많이 머뭇거리요.”

그래도 지금,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며 소박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작년 5월, 싸구려 커피를 들고 대중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우리는 느리게 걷자'라고 말했다. 다소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지만 허튼 소리 하지 않고 살았으니 다행이고, 많은 이들에게 불러준 노래가 위안이 되었다니 감사하다. 2009년 돌아보면, 정말 별 일 많았다. 그러나 지금 제 자리를 잃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니 장기하는 정말 별 일 없이 살았던 것 같다.

글 | 김민정

희곡, 뮤지컬, 라디오 드라마를 쓰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 종종 인터뷰 기사도 쓴다. 행복한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과연 그러할지는 잘 모르겠다. 가을 하늘을 보며 다시 생각 중이다.

사진 | 손승현

한국인을 비롯하여 역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 글, 비디오, 영상설치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2 광주비엔날레, 뉴욕의 데니스 비브로 파인아트, 최근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에세이로 기록한 <원은 부셔지지 않는다>가 있다.

YOUNG ARTIST 2009

서울문화재단

문학창작활성화지원 작가

소설가 김성중

스타인벡을 읽는 시간

2009 서울문화재단 문학창작활성화지원 작가 소설가 김성중

우리가 흔히 상상이라고 발음할 때 떠오르는 느닷없음이나
허공에 몇 센티미터는 붕 떠 있는 것 같은 공허함 대신,
그의 소설에는 열심히 길을 걸은 신발의 튼튼한 바닥이,
기존의 상상에는 생략되던 엄연한 그림자가,
모든 사물에 흐릿하게 겹쳐있는 하나의 상들이 현실보다
더 생생한 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나는 소설가 김성중을 김작가, 하고 부른다. 김작가, 하고 부를 때마다 아파트 새로 내려다보이는 한강이, 우레탄을 칠한 녹색 시멘트 옥상이, 그러니까 월급쟁이였던 시절의 드문드문한 시간과 장면들이 떠오른다. 우리는 일로 처음 만났다. 어떤 기획물의 편집자와 작가로 명함을 주고받은 뒤, 자주 가끔 만나 일감을 앞에 두고 웃고, 이마를 찌푸리고, 한숨을 내쉬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녹차와 커피를 챙겨 그 직장의 나무 한 그루 없는 옥상에 올랐다. 처음에 우리의 대화는 한없이 건넜다. 스타인벡과 혁슬리, 연암과 허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월든』... 동서고금의 문학 속 인물들이 마치 타임머신에서 불시착한 것처럼 우리의 대화 속에 스스럼없이 등장했다. 그렇게 옥상에 오르내리는 동안 우리는 어느새 펍 가까워 있었다.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에도 일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건전한 일꾼'들은 어느 순간부터 일을 뒤집는 상사의 태도와 푸른 하늘, 놀진 강물을 핑계로 답답한 현실에 관한 푸념을, 자신의 수줍은 꿈을 슬그머니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거기서 그가 처음에는 통계학을 전공했지만, 늘 오가는 버스 안에서 문득 손잡이를 거머쥔 니은(L) 자세(마치 삶의 엑스(현실), 와이(꿈) 두 축이 교직하는 순간 같은)로 팔꿈치가 찌르르 떨리면서 '소설을 쓰고 싶어' 늦깎이로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 잡지사를 전전하다 '소설에 대한 꿈'을 접을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작가를 하게 되었다는 사연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씩씩하게 소설을 맡음하는 그 앞에서, 나도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선뜻 고백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직장에 대한 부침과 일이 뒤엎기는 와중에, 그러니까 마흔 개 넘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수록, 마치 다다를 수 없는 꼭대기를 함께 걸어가는 심정으로 나도 소설에 대한 꿈을 고백했을 것이다. 솔직히 그가 비웃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도 같다. 하지만 그는 화들짝 반가워했고, 우리의 쉬는 시간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이미 창조한 문학보다 우리가 꿈꾸는 소설 이야기에 더욱 집중했다. 아마 그가 큰 주목을 받은 단편 '그림자'가 그의 상상과 현실 사이에서 '두 개로 겹치며' '일순 제자리로 돌아온 것도 그때였을 것이다. 그렇게 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연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끝난 줄 알았다. 더욱이 우리를 붙들고 있던 일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펍 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는 '소설가가 되어 다시 만났다.

신발 끈을 질끈 잡맨 상상력

김성중은 지난해 「내 의자를 돌려주세요」란 단편소설이 중앙신인문학상에 당선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딱 일년이 되는 9월까지 「그림자」, 「개그맨」, 「간」을 발표했고(올해 겨울까지 2편의 단편소설을 더 발표한다), 갓 등단한 작가로는 드물게 2009서울문화재단 문학창작활성화지원 작가로 선정됐다. 김애란, 백가흠, 한유주 등 이미 한두 소설집으로 문단에 탄탄히 자리 잡은 이름 가운데, 낯선 그의 이름이 당당하게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눈 밝은 독자라면 이미 몇몇 문예지에서 그의 이름을 심심찮게 발견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대문학』 4월호에 신춘문예특집으로 발표한 「그림자」는 『문학과사회』의 '선택젊은소설'로 선정돼 재수록됐고, 평론가 우찬제는 그의 예사롭지 않은 상상력에 대해 "현실과 환상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하는 활달한 상상의 창...을 통해 작가는 건널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을 가볍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무겁게, 조망하는 혼치 않은 수완을 보인다"고 상찬했다. 그가 발표한 소설은 겨우(?) 네 편이지만, 그는 그 작품들만으로 '김성중'이란 색깔을 확실히 보여준 셈이다.

그의 소설은 대개 '상상력'이라는 말로 설명된다. 실제로 그의 소설은 구립도서관에서 '글을 쓰고 싶어 하는데, 그다지 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정직한 욕망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 세계 말을 거는 의자를 만나고, '수많은 사람이 소음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숲보다 고요한 강남역 앞'에서 즐기고 있을 때 별주부전의 거북이를 만난다. 펜션과 술집이 즐비한 어촌 마을에서 모든 사람의 그림자가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지고, 어항 같은 유리 파티션 안에서 '나무옹이'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먼 우주에서 외계인을 상대로 우스갯소리를 늘어놓는 개그맨과 앵무새의 꼬리처럼 색색의 깃털의상을 입은 드래곤이 등장한다.

'상상'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 보'는 작업이라면, 그의 소설을 단순히 '상상'이란 키워드로 꿰는 것은 절반의 진실이다. 우리가 흔히 '상상'이라고 발음할 때 떠오르는 느닷없음이나 허공에 몇 센티미터는 붕 떠 있는 것 같은 공허함 대신, 그의 소설에는 열심히 길을 걷은 신발의 튼튼한 바닥이, 기존의 상상에는 생략되던 엄연한 그림자가, '모든 사물에 흐릿하게 겹쳐있는 하나의 상'들이 현실보다 더 생생한 실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늘 상냥하고 씩씩한 모습만 봐왔던 터라, 그의 일상 어디쯤에 그런 상상들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일까, 궁금해졌다. 상상력도 오랫동안 단련돼 온 것일까.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저 받아 적는 타자수에 지나지 않'다고 손사래를 친다. 여전히 의자에 앉으면 마치 받아쓰기 숙제를 하는 아이처럼 이야기를 받아 적는 데 급급하다고. 그래서 때로 문장의 밀도와 이야기를 꿰는 방법이 미숙하고 (소설의 원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럴싸한 소설의 틀을 그려내지 못해, 내 소설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타고난 상상력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언가를 상상해왔던(꿈꿔왔던) 사람의 표정으로.

이른 꿈, 늦은 시작

한 문방구집 소녀가 있다. 소녀는 문방구를 제집 드나들듯 하는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아버지가 근처 초등학교 생들에게 팔 요량으로 갖다놓은 이원수, 강소천의 창작동화와 문고전집을 주전부리를 탐하듯 읽는다. 소녀는 눈이 나빠지는 줄도 모른다. 책은 아무리 읽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다. 글자에 굶주린 아이는 대개 자신이 직접 창조한 걸로 탐을 달랜다. 소녀도 글을 쓴다.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소녀가 그려진 예쁜 노트 한 권. 소녀는 연필을 쥐고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술술 풀어낸다.

한쪽으로 돌리면 연필이, 한쪽으로 돌리면 볼펜이 나오는 '투투펜'이 있다. 문방구의 다른 학용품들은 두 가지 심을 품고 있는 투투펜을 이중인격자라고 왕따를 시킨다. 어느 날 수줍은 소녀 하나가 문방구에 들러 투투펜을 발견한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변신할 수 있는 투투펜을 그 소녀만이 인정해준다. 학용품들은 자신의 편견을 반성한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의 글에 낙담한다. 제가 무척대고 삼켰던 책꽃이의 책들을 보면서, 자신은 책등에 썬 작가들의 이름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도 소녀는 작가는 될 수 없어도 성실한 독자는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소녀는 늘 학교도서관에 붙박여 책벌레가 된다. ...그리고 늦깎이 문예창작과의 학생이 되어서도 소녀는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진다. 조금 늦더라도, 그곳에 다다를 수 있다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건 조금 늦게 와도 좋다'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그림자쯤에서 있으면서도 휘파람을 불고, '이빨이 새하얗게 빛'난다.

그는 오랫동안 소설이 아니라 팔리는 글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등단하기 전까지 그는 소설책 몇 권은 좋음을 매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습작 하나 없이 덜컥 등단했을 때, 그는 이제까지 품었던 꿈을 현실 속

에 내려놓는 출발점에 선 심정이었다. 많은 작가가 등단이라는 출발점을 결승선에 다다른 것 마냥 여겨 시행착오를 겪는 걸 감안하면, 그는 자신이 되레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출발점에 서기까지 그는 한번도 꿈꾸는 소설(상상)을, 밥벌이 글(현실) 속에서도 놓아본 적이 없다. 만드는 글의 상업적인 냄새를 행구기 위해 끊임없이 문장연습을 했고, 기다림의 기술을 단련했다. 그러니까 그는 꿈의 베테랑답게, 상상을 밀친으로 타자수의 끈기만 발휘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의 시간을 더 잘 견딜 수 있으리라, 오히려 기대하고 있다. 그는 늦었다고 초조하기는커녕 내일이 궁금해죽겠는 ‘빨강머리 앤’처럼 보였다.

어느 지각생의 현재진행형

그러고 보면 그는 솔직히 지각이 잦은 편이었다. 독서와 글쓰기로 밤을 샌 그의 눈은 토끼처럼 빨강게 충혈돼 있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는 조금 늦게 걷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나 초조함 없이 늘 씩씩했다.

소설가가 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다. 가끔 홍대나 삼청동에서 만날 때도 그는 밤을 새 몇 분씩 늦었다. 하지만 그가 전혀 지각생답지 않게 미안, 하고 씩 웃으면 머릿속에 시곗바늘이 돌아가는 것 같은 내 초조함이 되레 멎었다. 우리는 서른을 넘어 있었고, 내가 게으름을 어떤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강박으로 변명하며 소설에 대한 자격 따위를 의심해도, 그는 심지어 늘 마감과 다투고 있으면서도 밝고 느긋했다. 시간과 견줘야 하는 것이 불안할 만도 한데, 그는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져 다행이고, 지금이 자신의 진정한 습작기라는 말을 자주 했다. 남들에 비해 아주 운이 좋은 편이라고. 그렇게 발음하는 그에게선 충분히 진심이 느껴진다. 조급함은커녕 “고통스러웠고, 고통스러워서 행복할 지경”인 사람처럼 ‘지금’이 즐거워 보인다.

그의 책상에는 지금 『저장과 마르가리타』, 스타인벡의 『의심스러운 싸움』 김원의 시집 『소설을 쓰자』가 놓여 있다. 러시아에 대한 풍자이자 시공간을 넘나드는 환상소설과 1930년대 리얼리즘 문학의 걸작, ‘한 예외적인 시인의 도발적인 모험’이 그의 책과 함께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머릿속에서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그 세 권의 소설 같은 타자수의 지금이 지난 뒤, 그의 소설에는 어떤 책 한 권이 남을지(어쩌면 그 세 권의 책을 모두 흡수하고 장악해 한 권의 책을 만들지도) 나는 궁금해졌다.

그는 올해 단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도보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또 어딘가를 부지런히 걸으면서, 긴 소설을 쓸 힘을 여탈 것이라고 한다. 그때의 소설은 상상의 타자수가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사건과 평범한 인물이 맞닥뜨리는 굉장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한다.

나는 그가 ‘받아쓰기’를 끝내고 보여줄 다음 소설이 못내 궁금하다. 그 긴 여행이 끝난 후에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이 와도 전혀 조급하거나 지친 기색 없이 씩 웃으며 운동화 끈을 잠매고, 또 어딘가로 씩씩하게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늘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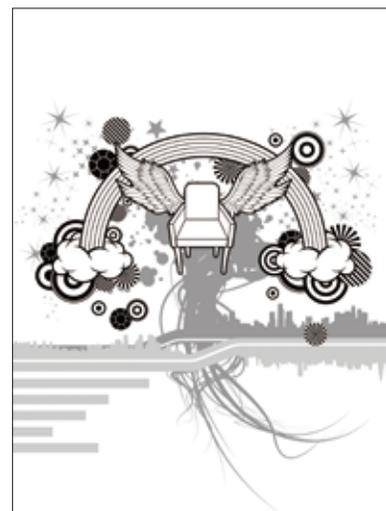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1권을 들추지 않는다.”

글 | 임수현

소설가.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2008년 문학수첩신인상에 단편소설 <앤의 미래>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단편소설 <뽕> <개의 자살> <아이들은 가리>를 발표했다.

사진 | 천현정

여러매체를 거쳐 사진작업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사진가. 연예인, 기업홍보 촬영과 다수의 개인전. 단체전경력도 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늘 흥미롭다.



일러스트 | MOZO

“우주를 여행하는 그 의자에게 돌아오라는 말을 건네기 위해 이 글을 쓴다. 도서관 의자가 있다면 이 글은 이렇게 서툴게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기 없고 나는 그 겨울을 떠올리고 있다. 종이위에 글자가 끝나가는 순간이 몹시 두렵고 그가 그림다. 등을 기대고 깊숙이 앉을 때 건네 오던 도서관 의자의 명량한 첫 인사가. 오늘 같은 오후에 나는 내 인생에게 말하고 싶어진다. 내 의자를 돌려주세요, 라고.”

- 『내 의자를 돌려주세요』 중에서

OPEN REPORT

서울 너머로

런던 디자인페스티벌

텐트 런던 참가기



TENT
LONDON
EAST LONDON'S
DESIGN HUB

Partners of



LONDON
DIGITAL
WEEK

the
design
trail



3M textured wall film by

Surface
View

www.surfaceview.co.uk



TENT LONDON

이곳이 나의 출발점, 내 작업의 시작이다

런던 디자인페스티벌 텐트 런던 참가기

국내에서 활동하다보면 해외 전시가 두렵고 멀게 느껴진다. 욕심나는 해외 전시가 있다면 주최 측에 프로필과 함께 참여를 희망하는 간단한 이메일을 보내보자. 의외로 친절한 답변에 놀랄 것이다. 만약 전시할 부스를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홍보할 준비를 하는 것, '텐트 런던'에서의 일정은 기대 이상의 흥분을 가져다주었다.

OPEN REPORT

서울 너머로

런던 디자인페스티벌
텐트 런던 참가기



젊은 디자이너들을 지원하다

국내에서 신진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하지 않다. 매년 진행되는 많은 페어들이 있지만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이나 자본이 따른다. 서양의 디자인 선진국들을 보면 그 작업의 결과물보다는 진행과정을 중요시하여, 실험적인 작업 과정을 전시하고 전시를 통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의견으로 작가는 좀 더 자신의 작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시공간이나 전시기회가 국내에서는 현저히 부족하다. 반면 영국의 경우 디자인을 담당하는 재단인 Design Council에서는 디자인도용방지, 초기사업모금, 비즈니스, 광고, 각종 워크숍 등으로 디자이너들이 더 좋은 환경, 좋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필자도 이 재단을 텐트 런던 전시 중에 알게 되었는데 런던에 거주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적극적으로 Design Council을 홍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이 재단은 축제 중 관련한 다른 분야 5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디자인과 관련된 강의를 5일간 진행하기도 했다.

또 런던의 Art Council에서는 2008~2011년 사이에 16억 파운드의 정부 공공자금으로 시각예술, 문학, 음악, 공연 등의 예술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곳은 일반인들이 예술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공연, 각종예술센터,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예술가들의 작품을 구입하여 컬렉션을 만들고 그 컬렉션을 영국이나 해외 갤러리에 전시함으로써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영국 왕실의 지원을 받는 Prince's Trust는 소기업과 도시빈민가의 자영업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젊은 학생이나 어린이들의 예술적 감각을 양성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아티스트들의 색다른 놀이터, 런던 디자인페스티벌

2003년에 시작하여 7회째를 맞은 런던 디자인페스티벌(LDF)은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Central, West, East, South 네 지역에서 200여 가지 이상의 전시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시내에서 길을 걷다가 LDF 2009의 사인을 발견하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전시를 관람하면 된다. 무료로 배포되는 가이드북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이벤트는 트라펠가 스퀘어에서 진행된 하이메아온(Jaime Hayon)의 퍼포먼스로 사람과 기만한 체스를 디자인하여 토너먼트를 진행, 우승자를 가려 내었다.

한국에서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의 설계자로 알려진 일본건축가 반 시게루는 100여 개의 종이관을 사용하여 만든 22미터의 구조물을 선보이기도 했다. 영국 디자인잡지회사인 Wallpaper가 마르티노 캄피에게 요청, 영국 가구회사인 Ercol의 의자를 이용한 구조물 <Chair Arch>도 V&A 박물관 정원에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1877년 빅토리아와 여왕의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만들어놓았던 아치(Arch)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하였다고 한다.

2009년 서울문화재단 수시기획 지원사업 선정자로 참여하게 된 텐트 런던(TENT LONDON)은 앞서 얘기한 런던 디자인페스티벌의 메인전시 중 하나로 젊은 디자이너들의 유틸리티 있고 개념적인 작업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 전시는 젊은 아티스트들과 개성 있는 스타일이 물려 있는 Brick Lane의 Truman Brewery에서 9월 24일부터 4일간 열렸다. 이곳은 과거에 맥주 공장으로서 사용되던 곳이라고 한다.

텐트 런던은 크게 네 가지의 전시로 나누어져 있다. CONTENT는 개인이나 디자인 그룹이 참여하여 자신

들의 작업을 선보일 수 있는 독립부스 전시로 제품, 인테리어, 소품 등의 아이템을 공개하였다. TENT DIGITAL은 올해 처음 생긴 전시로 영상물, 광고, 인터랙션 디자인(Interaction Design) 등의 작업을 볼 수 있었다. TENT SPACE는 기업이나 도시에서 하나의 홀을 대역하여 자신의 이미지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전시로 이번에는 영국,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출신의 그룹에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TALENT ZONE은 Mydeco.com과 함께 진행한 공모전에서 수상한 디자이너 10인의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해외전시, A부터 Z까지

사실 국내에서 해외전시를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작업부터 운송, 홍보, 디스플레이, 다양한 서류들 등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행동이다. 필자 역시 학생 때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막연히 해외전시를 꿈꿨지만 그 벽은 높아만 보였고 혼자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자신의 작업을 더 넓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저 없이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꿈을 실제로 이루어보겠다는 다짐으로, 작업을 소개하며 참여하여 좋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메일을 보냈다. 주최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포트폴리오와



1 VAUGHSHANNON & WEDGE의 조명작업과 액자를 모티브한 연필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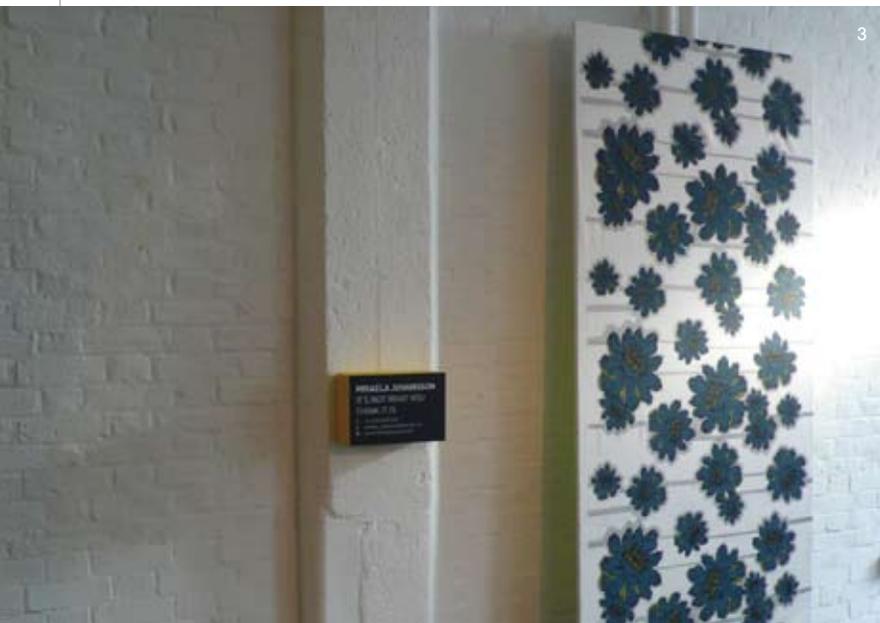
2 YOUR SPACE의 POLSKA FOLK



1



2



3



4



5

1 JEONGWONJI

런던 센트럴세인트마틴 제품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런던에서 활동 중이다. 평범한 삶과 사람들, 사회변화에 대한 문제를 그녀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작업은 Theo Jansen kinetic sculpture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사진은 매커니즘적으로 접근하여 풀어낸 The legged light

2 LIM JAEKWANG

서울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로서 버려진 오브제를 통하여 인지하지 못하던 새로운 개념을 도입, 해석하여 디자인한다. 이번 전시에는 조명을 의인화시켜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종류의 조명 옷과 램프를 디자인했다. 사진은 스틸프레임으로만 이루어진 Hexagon lighting (small size)

3 MIKAELA JOHANS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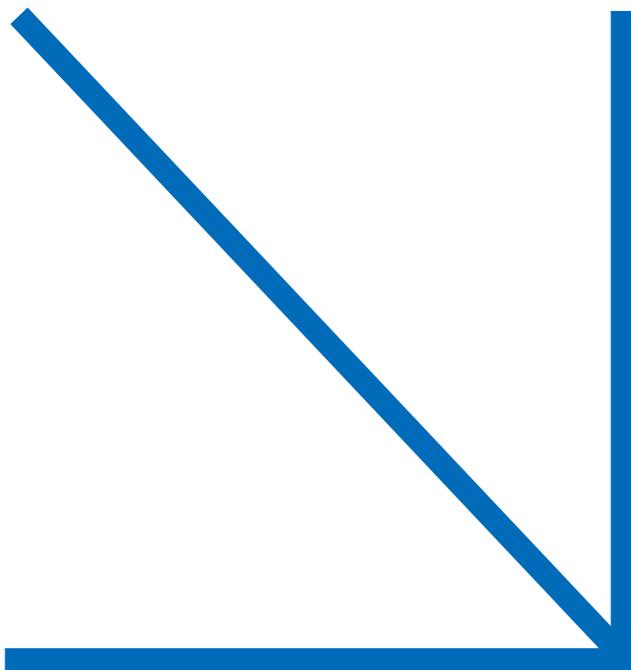
TENT LONDON과 MY DECO.COM이 함께 진행한 공모전을 수상한 스웨덴 출신의 텍스타일 디자이너다. "It is not what you think it is"라는 제목으로 독일 나치의 리더십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고 한다. 사진은 Telent Zone의 전시풍경

4 COOPERATION//STANDARD

2명의 스위스 디자이너와 2명의 독일 디자이너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주얼리, 가구, 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의 아트웍을 진행중이다. 각자 다른 디자인 파트를 전공,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제품에 새로운 해석을 도입하여 그들만의 색깔을 찾아 작업 중이다. 사진은 세라믹 작업으로 컵을 이용한 상드리에

5 BRICOLAGE

영국출신의 5명의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퀘일링, 니팅, 실크스크린의 다양한 방법으로 텍스타일을 이용한 작업을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에 적용하여 작업을 한다. 사진은 모노톤과 비비드한 컬러를 퀘일링으로 잘 매치시킨 의자



진행하게 될 작업들을 검토한 후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었고 몇 달 후, 필자는 항상 인터넷에서 이미지로만 봐오던 텐트 런던 CONTENT D10이라는 자리를 부여받게 되었다. 생각 보다 간단하고 친절한 이메일에 해외전시에 대한 두려움은 반 이상 사라졌다.

전시가 다가올수록 준비해야 하는 것은 점점 늘어나고 운송문제 또한 골칫덩어리였다. 한 달 전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이라면 안전하게 배로 보내면 되지만 작업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수화물 사이즈에 제한이 있고 가격도 상당히 비싼 비행기를 이용하여 작업물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듯 현지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운송문제는 작업하면서 크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작업을 훌륭하게 끝냈더라도 운송문제에서 걸리면 그동안의 작업들을 선보일 수 없으니 말이다. 운송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다음 할 일은 관심분야의 회사나 디자이너에게 자신의 부스 위치를 알려주고 그들이 작업을 보러 오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외국 디자이너들은 www.coroflot.com, www.twitter.com, www.facebook.com 등 홍보하기 쉬운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자신의 프로필과 작업을 홍보하고, 미리 개설해 놓은 웹사이트에 찾아오게끔 흥미로운 이미지들을 구성해 놓는다. 마지막으로 텐트 런던에서의 홍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팁을 준다면, 빠른 속도로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전시를 진행하다보면 각 나라의 디자인 잡지회사, 자신의 디자인을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어,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각국의 사람들, 일반 관람객, 디자인 전공학생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때 능동적인 자세로 작업을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작업에 대한 코멘트를 주의 깊게 듣는다면 다음 작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칭찬이나 지적을 해준다.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들을 수 있는 피드백은 이번 전시체험 중 가장 흥미로웠던 요소였다.

필자도 미처 이 부분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전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 데이터와 정보(Press kit)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로필과 작업 소개물, 이미지, 콘셉트, 보도자료 등을 CD로 만들어 넣은 Press kit을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건네면서 본인에 대해 적극 알리면 된다. 그들로부터 받은 명함을 데이터로 정리하여 전시가 끝난 후 다시 메일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자신의 작업을 인지시키며, 새로운 작업물이 나올 때마다 먼저 알려 소개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머지않아 그들에게 초청 이벤트를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작업을 남에게 선보인다는 것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능동적인 자세로 대하면 남들보다 더욱 값진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그것은 언젠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많은 생각을 갖게 해준 텐트 런던 전시와 그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지원해준 서울문화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글 및 사진 | 임재광

서울문화재단 수시기획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텐트 런던에 참여하였다. 계원조형예술대학 전시디자인과를 졸업하고 <Design Made2008>, <Saving by design>, <Design Cube> 등 다양한 전시에서 최소화시키기, 재활용 등 환경문제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WWW.LIMJAEKWANG.COM

I AM A SEOULITE
한글을 배우고,
정을 알았다

본 쪽지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눈으로 본 서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글을 배우고, 정(情)을 알았다

짧지만 깊은 만남은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한국 음식으로부터 시작한 한국과의 인연은 한글 사랑, 한국 사랑으로 이어졌다. 어느새 그들이 보여준 끈끈한 정이 내 마음에도 들어와 있었다.

처음 한국을 접하게 된 계기는 10년 전 네팔에서부터다. 나는 네팔에서 산악인들을 상대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왠지 모를 정을 느꼈다. 여행이나 산행을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처럼 가슴 속의 말들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꼈고, 한국 사람들과 더 친밀해지고 싶었다.

한국 고유의 문화는 무엇일까, 내가 반했던 한국인과 정(情)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마음에 한국말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다가 한국 손님에게 얻은 한국어 책으로 자음과 모음을 혼자 익히기 시작했다. 간혹 내 이름을 한글로 써서 한국 손님들에게 보여주면 한국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한국말을 배워 한국 사람들과 더 깊은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한국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갈 무렵, 서울의 건국대학교에 있는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기쁨에 주저하지 않고 그 기회를 꼭 잡았다. 네팔에서 독학으로 배웠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사실, 힌디어는 자음이 36개이고 모음이 10개인데 비해 한국어는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여서 단순한 글자로 착각했던 것이다.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면서 많은 받침과 연음 현상, 높임말, 한자어와 복합어, 복잡한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에 놀랐고, 총 24개인 자음과 모음으로 수많은 글자를 만들고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심지어 나의 모국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단어와 어구들도 있었다. 한글을 공부할수록 이러한 한글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 들었고, 더불어 한국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동국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렇게 역사를 공부하던 중 벽에 부딪혔다. 대부분의 역사 서적에는 한문으로 된 단어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교수님과 상담 도중 한글로 되어 있는 서적을 소개받고 그 후 더욱더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한글의 역사에 대해 배워가면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과학적인 창조법(글자모양과 획의 모양이 같다) 등을 알게 되었고,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느끼고 존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힌디어와 한글의 차이점, 유사한 점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네팔에서부터 인연을 맺었던 한 지인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 방송에 출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외국인 몇 명과 한글날을 기념하면서 '한국말을 사랑하는 외국인의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그 모임에서 만난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가까워지면서 그 나라의 말에 서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각 나라의 언어들과 한국어의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한글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갔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어를 배울 경우 히라가나, 가타가나만 배워서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 한자를 익혀야 신문이나 뉴스, 거리의 간판 등을 읽을 수 있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 자음과 모음의 결합, 단어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말하기가 가능하다. 한글은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아야 하는 정말 위대한 글자다.

돌이켜보면, 한글은 내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었다. 한글로 인해 소중한 인연들을 맺게 되었고, 지금의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네팔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점에 관한 정기적인 칼럼을 쓰게 되면서 '김비르'라는 이름을 조금씩 한국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바라던 대로 한국 사람들과 한국어로 말하면서 정을 나누고, 한글을 쓰면서 내 생각과 마음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글은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앞으로도 한글을 더 공부하고, 한국을 더 사랑할 것이다. 한글을 통해 맺은 모든 인연들에 감사드린다.

*이번 I am a Seoulite 원고는 필자가 직접 한글로 보내오셨습니다.



글 | 김비르

2003년 인도 Bihar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 현재는 동국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 2005년 한국말을 사랑하는 외국인의 모임(한외모)을 결성해 활동 중이며, 예티 여행사, 예티 네팔 & 티벳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나눔 경영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LG 연암문화재단의 '즐거운 나눔 티켓·스쿨콘서트'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경영의 주요원칙 중 하나다.

그렇다면 '누구와 무엇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

기업의 경쟁력은 경제 수치로만 환산해 비교할 수 없다.

결국 문화후원이야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비밀병기가 될 것이다.

"감미로운 선율에 마음이 포근해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소중한 경험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각장애 부부와 함께 '즐거운 나눔 티켓' 공연을 본 관객이 한국메세나협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LG 연암문화재단은 2006년부터 '즐거운 나눔 티켓' 프로그램을 후원해 문화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원하는 사람은 한국메세나협의회로 회원가입을 하고 간단한 신청정보를 기입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티켓신청 게시판에 소개되는 공연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에는 <프레제베이션홀 재즈밴드>의 공연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고, 10월에는 LG와 함께 하는 <이사오 사사키 전국 투어-WITH YOU> 공연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처럼 기업은 메세나 활동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고 예술단체에게 안정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업의 전문성과 자본력이 문화예술의 도전정신, 창의성과 만나 기업이 창조적인 문화생활의 주체가 될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메세나협의회는 기업의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후원 활

동에서 나아가 기업과 예술단체가 일대일 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후원이 가능하도록 도우며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LG 연암문화재단에서는 'LG 아트클래스'를 마련해 예술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웠던 저소득층 및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은 한국메세나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2009 아트클래스'는 음악, 영화, 연극 세 개 장르 중 시설별로 한 장르를 선택해 8회 방문교육, 1회 외부체험, 자체 발표회를 갖는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의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가 부발청소년문화의집과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해 음악을 가르쳤고,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미디액트>가 보화센터와 창진청소년문화의집에서 영화 관람의 즐거움을 전했다. 또 연극 부분에는 극단 <진동>이 램턴트지역아동센터와 광정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해 문화를 통한 행복을 나누었다.

이외에도, 전국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메세나 활동인 '스쿨콘서트'가 LG 연암문화재단과 (사)한국메세나협회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총 여섯 차례 열렸다. '스쿨 콘서트'는 전국 고



'즐거운 나눔티켓'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참석한 <소년 예수의 집> 아이들



'스쿨 콘서트' 공연무대

등학교를 대상으로 참가 접수를 받아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공연을 여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6년 처음 시작돼 올해 4년째를 맞는다. 작년부터 수도권에서 전국 고등학교로 신청 대상지역이 확대되어 TV, 인터넷, 게임 등 대중문화에만 익숙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순수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2009 스쿨콘서트'는 경북에 있는 김천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대학로의 화제작 창작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를 올렸다. 스쿨콘서트에 신청한 김천고등학교 박종근 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스트레스도 덜고, 얼마 남지 않은 입시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신청했다"며, "아이들에게 멋진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이 끝난 뒤 스쿨콘서트 관람후기 게시판에는 "배우들의 뜨거운 연기가 그대로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좋은 뮤지컬을 보며 마음을 식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라며 LG연암문화재단과 열연한 배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이번 <영웅을 기다리며> 뮤지컬을 시작으로 입시전쟁에 찌든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생활의 재미를 깨닫게 해준 것 같다"며 즐거움을 표했다. 이에 LG 연암문화재단 심우섭 팀장은 "2009 스쿨 콘서트가 학생들의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여줄 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하며 보다 많은 학교들에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요즘 기업들은 경제와 예술의 만남을 주저하지 않는다. 점차 문화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과 예술단체가 서로 책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류해 간다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화합하는 문화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11월, 수능수험생들에게 추천하는 공연

<국립중앙박물관 'JAZZ STORY from 유열'>

일자 11.6~12.3(총 4회)
 시간 오전 11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메인오디토리움(대강당)
 문의 (재)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1544-5955

파사우용단 기획공연 <서랍속의 시간>

무용을 통해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춤의 언어로 표현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꿈과 이상에 대한 도전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정 2009.11.3~11.4(3일 화요일 19:30 / 4일 수요일 16:30, 19:30)
 장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 청소년(초,중,고) 5,000원
 문의 및 예매 마포문화재단(mapoartcenter.or.kr) 3274-8600, 8665

한화와 함께하는 2009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청소년들과 클래식 입문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유익한 클래식의 세계를 선보이기 위해 지휘자 성기선과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해설을 맡아 공연한다.

일정 2009.11.28(토요일 17:00)
 장소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
 관람료 어른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및 예매 예술의전당(http://www.sac.or.kr)

글 | 김나현(오픈리포터)
 '문화'가 들어가는 일이라면
 뭐든지 찾아 경험하며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
 대학생. 현재는 멋진 로미오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줄리엣 역을
 자처하고 있다.

사진제공 | LG 연암문화재단

본 쪽지는 필자가 직접 꼽은
세권의 책으로 엮어낸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독백과 단독의 트릴로지

그 시절 우리가 꿈꾸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현실에서 멀리 혹은 현실 깊숙이,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떠돌던 것은 우리가 아니라 어쩌면 먼지였을지도 모른다. 누렇게 퇴색된 책장을 넘기는 손은 성스런 기도였을지 모른다.

R. M. 릴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내 인생에서 가장 관념적인 시기는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학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콘텍스트였고 동급생들은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이국의 보케블러리였다. 나는 이방의 땅에 불시착한 경비행기처럼 좁은 책상에 선체를 파묻고 매일 녹이 슬어갔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 얇은 책 한권이 어떤 경로로 내 손에 들어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막연히 시인을 꿈꿨으므로 서점을 어슬렁거리다가 그 제목에 반해 구입했을지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이 책을 통해 미지를 향한 공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릴케의 시보다 그의 서신을 먼저 만났다.

릴케가 내게 던진 두 개의 어휘는 '기도와 방랑'이었다. 그는 방랑 속에서 낯선 도시와 문화를 접하고, 기도를 통해 사물과 사람을 사랑했다. 천상의 완성된 성체보다 지상의 사물에 감춰진 신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작업을 시인의 사명으로 여겼다. 고독으로 점철된 인생에서 시와 편지는 그의 경건과 욕망을 고백하는 유일한 통로였을 것이다.

모서리가 접힌 부분을 다시 읽다보니 1911년 12월 28일 릴케가 두이노 성에서 머물 때, 열세 살 연상인 루 살로메에게 보낸 편지에 눈길이 간다. 그의 나이가 36세였고 『말테의 수기』를 출간한 직후이니 마침 같은 나이에 두 번째 소설집을 출간한 내 상황과 흡사하다.

“『말테의 수기』를 쓰고 난 이후로 나는 나를 위해 있어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받아서 나의 고독을 좀 더 가볍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 예술이 무섭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일 겁니다. 예술에 정진하면 정진할수록 보다 궁극적인 것,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산모에게 산후 우울증이 있듯이 작가도 때로는 출간 후 우울증에 시달린다. 결과물에 대한 허탈함 때문일 수도 있고 예술의 궁극에 닿지 못한 불안 탓일 수도 있다. 릴케는 서신의 말미에 이렇게 썼다.

“하느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 대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는 그 문을 통해서 비로소 넓은 들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는 때때로 그곳에 가서 그 당시 나의 성장을 표시해둔 문기둥에 서서 나의 성장을 재어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도록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주십시오.”

연상의 유부녀에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도록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의 절박한 처지가 짐작된다. 릴케가 뒤에 『두이노의 비가』를 완성한 것은 이런 내적 고백의 힘 때문이 아니었을까.

전혜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학 1학년의 생활은 그야말로 찬란했다. 나는 마치 삼류 극단의 견습배우처럼 매 시간 누군가와 어울려 웃고 울고

마시고 논쟁하고 사랑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과장된 포즈로 쓰거나 읽거나 울적해했다. 때마침 어느 여학생이 수줍게 선물한 전혜린 수필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열치기 문학도에겐 더할 나위 없는 텍스트였다.

“내 속에는 몇 방울의 집시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 먼 곳의 그리움(Fernweh)! 모르는 얼굴과 마음과 언어 사이에서 혼자이고 싶은 마음!”

책의 갈피마다 발견되는 존재의 아픔, 먼 곳을 향한 동경, 매력적인 외국어, 축고 음습한 뒤편, 헤르만 헤세, 회색의 포도(鋪道)와 레몬 빛 가스등, 낭만적 우수, 과일인 제스처, 이방의 외로움과 술잔 등은 작가의 고독한 내면을 표현하는 장치들이다.

“가을은 토카이의 시 속에서처럼 저녁놀에 박쥐가 퍼덕거리는 숲을 지나서 오솔길을 한없이 걸어가다가 길목에 있는 선술집에 들어가 ‘어린 포도주와 파란 호도’를 먹고 죽음 속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버리기에 꼭 적합한 계절인 것만 같다”

이국의 향수와 인생의 비애를 자극하는 이런 독백체의 문장은 읽는 이의 심장으로 여과 없이 파고든다. 게다가 글 말미에 적힌 1950년대와 60년대 매체의 출처들은 당대의 시대상과 묘한 반응을 일으키며 텍스트를 더욱 애잔하게 만든다. 혼란한 정치 사회의 격변 속에서도 존재에 천착한 지식인 여성의 독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흥미롭고 유효하다.

법정, 『일기일회(一期一會)』

대학을 졸업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나는 간혹 그 시절 지도교수님의 전화를 받는다. 여전히 선생님은 내게 ‘독서 과제’를 내주신다.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을 하시므로 나는 통화가 끝나자마자 서점으로 달려간다. 이번 여름에는 추천받은 『일기일회(一期一會)』를 책상 위에 두고 틈틈이 목상했다.

법정 스님은 경전이나 어록에 나오는 법문을 남의 일이

나 과거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유독 인상에 남는 부분은 한 스님이 백장 선사에게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하고 묻자, “독좌대웅봉(獨坐大雄峰), 홀로 우뚝 대웅봉에 앉는다.”라고 답한 부분이었다.

이 문답에 대해 법정 스님은 “선방에서 정진을 하든, 절의 후원에서 일을 거들든,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든, 달리는 차 안이나 지하철에 있던 언제 어디서나 홀로 우뚝 자신의 존재 속에 앉을 수 있다면 그 삶은 잘못되지 않습니다.”라는 설명을 달으셨다. 다시 말해 그 현장에서 홀로 우뚝 앉는다면 늘 깨어있게 된다는 뜻이다.

강원도의 산중에서 단독 수행하시는 법정 스님은 홀로 우뚝 앉는 일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 깊이 체득하신 분일 것이다. 치열한 흔들림과 깨우침 속에서 길어 올린 이런 단독자의 진중한 음성은 목마른 우리들에게 선사된 석간수와 같다. 또한 이는 릴케의 기도 혹은 전혜린의 독백과 색갈이 다를 뿐 상당한 연관성을 지닌다. 돌아보면 우리는 가장 절실한 순간 자아의 목소리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잠을 자면서도 외로워서 혼잣말을 한다. 그러니 내면의 소리란 얼마나 진실하고도 애처로운 것인가.

글 | 하이수

소설가. 2000년 <현대문학> 증편소설 부문으로 등단했으며 작품집으로 『깡겨루가 있는 사막』(2006)과 『젤리피쉬』(2009)가 있다.



1 R. 릴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범우사, 1987년 9월 15일 초판 1쇄)
2 전혜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삼중당, 1993년 7월 20일 중판)
3 법정, 『일기일회(一期一會)』 (문학의 숲, 2009년 5월 27일 1판 1쇄)

공공미술을 넘어 소통하는 예술을 바란다

‘우리동네 문화 가꾸기’ 사업이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워크숍을 통해 지역주민의 숨은 예술가적 기질을 발휘하고, 마을의 공공 공간 환경을 개선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2009 우리동네 문화 가꾸기’는 예술을 통한 소통이 물리적 공간에서 정서적 공간으로 확대하여 넘나드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올해의 우리동네 문화 가꾸기를 되돌아보면서 예술로 소통하기 위한 흔적들, 소통 후에 남겨진 것들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예술 하기 위해 소통하기

지역주민들에게 예술을 던져 놓고 먹으라고 강요하기보다, 예술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도록 소통의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공공’을 위한 예술의 첫 걸음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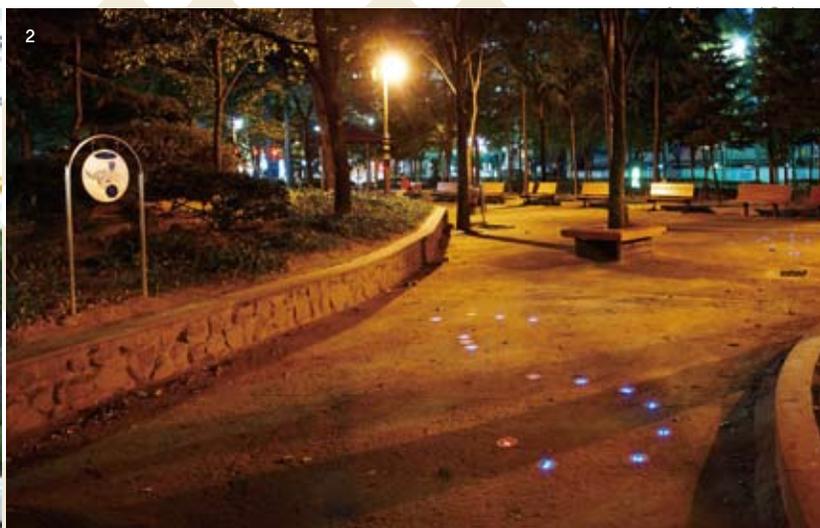
예술 하기 위해 소통하기, 그 첫 번째 방법은 ‘교육’이다.

구로구 구로거리공원을 꾸미기 위해 발 벗고 나선 프로젝트 그룹 ‘아랫실’은 이러한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내 마음속의 풍경’은 어르신들이 흙을 이용한 조형표현, 색채표현을 직접 경험하면서 스스로가 원하는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각 재료에 대한 설명, 제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이들의 ‘상상 별자리 만들기’와 ‘상상 동물그리기’는 자신이 원하는 상상물을 드로잉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상 동물원’과 ‘상상 별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작품을 구로거리공원에 설치하여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표현의 기쁨을 선사하였다.

‘문화사랑 나눔터’의 시흥2동 동광초등학교 옹벽 타일은 인근 유치원 아이들이 그리는 상상마을을 표현한 것이다. ‘문화사랑 나눔터’의 작가들은 아이들이 상상하는 이미지를 종이위에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잘 정리하여 거대한 옹벽에 표현하였다. 아직은 미숙한 자신의 그림이 작가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타일벽화로 거듭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예술 하기 위해 소통하기, 두 번째는 ‘정서적 회복’이다.

노원구 동광어린이집을 담당한 프로젝트 그룹 ‘스펙트럼’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정서적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대부분 모자원의 아이들이 원생인 이곳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 편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무너진 정서적인 공간의 회복, 즉 자존감의 회복이 있을 때 아이들은 비로소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게 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아름답다는 것,



- 1 문화사랑 나눔터와 함께한 시흥2동 동광초등학교 응벽 타일 벽화
「시흥동 아이들이 그리는 마을풍경」에 참여한 청담초등학교 아이들
- 2 아이들이 그린 상상 동물들과 상상 별자리가 숨어있는 구로거리공원
- 3 프로젝트팀 스펙트라의 동광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 4 퍼블릭아트 피마 「소통을 통한 오해의 극복」에 참여한 주민들의 졸업식
- 5 동네예술가의 「책 읽어주는 늑대」
어느덧 아이들은 늑대를 무서워하지 않고 함께 책을 보고 있다.

재단사업

2009

우리동네 문화 가꾸기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을 누릴 권리가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예술로 소통하기

예술 하기 위해 소통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술을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소통할 차례다. 예술가와 소통한 주민들을 예술이라는 매개로 소통하게 하는 것이 공공을 위한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면, '2009 우리동네 문화 가꾸기'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쌍방향교류방식의 공공미술 프로세스를 도입한 프로젝트 그룹 '공공미술 놀이터'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접근하여, 예술가와 주민의 소통을 이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쌍방향 교류 프로그램으로 얻어진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이미지들은 작품 '생활의 발견'으로 옮겨진다. 예술을 통한 지역주민간의 소통 이전에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의 소통일 것이다. 예술가를 이해하는 주민과 주민을 이해하는 예술가가 있기에 예술은 공공성을 발하게 된다.

프로젝트 그룹 '퍼블릭아트 피바'가 준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단순히 주민들의 그림을 작품으로 옮기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작품을 통해 서로 다른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교환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재미를 느낀은 물론, 쉽게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체'가 의미하는 이미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음을 모으게 되었다.

제작식의 주인은 당연히 모든 과정을 마친 주민들이었다. 학사모를 쓴 주민들은 그들이 함께하는 공간에 설치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회상하며 모두 한마음이 되어 기쁨을 나누었다.

뜨거운 여름, 어느 때부터인지 망원동에는 기이한 동물이 정자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바로 "책 읽어주는 늑대"다. 망원동 한솔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되었던 '동네

놀이 공작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등장한 "책 읽어주는 늑대"는 참여 프로젝트 그룹 '동네예술가' 중 한 작가가 직접 전신 늑대 옷을 입고 벌인 해프닝이다. 작가로서가 아니라 소심한 늑대로 변신, 주민들에게 다가가 주민들의 일상에 기이함을 이식함으로써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술의 구성원이 되어 예술가와 소통하도록 했다.

'동네놀이 공작단'은 아이들이 함께 동네 이야기의 인형극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인형극의 제목은 <공짜마을>이다. 물도, 전기도 공짜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마을에서 아이들은 넌텐도 게임을 밤새도록 하며 게임기 속으로 빠지게 된다. 마음껏 물과 전기를 쓰다가 불이 나서 이웃끼리 싸움이 나기도 한다. 심오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에 대한 고민이 아이들의 위트로, 해학적으로 표현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연기력이나 공연 진행 과정은 다소 미숙했지만, 온 동네 사람들은 아이들의 생각에 공감하며 웃을 수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예술가가 되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소통 후에 남겨진 것들

예술이 어떻게 생활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았던 예술가들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예술로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의 소통. 이러한 시도가 남긴 것은 거대한 벽화, 예쁜 구조물, 정돈된 한 평 공간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시도했던 소통의 노력은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예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충만해진 일상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주민들, 예술 행위를 하며 소통하는 주민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작품 또는 벽화를 멀리서 바라보고 감상하는 단계를 넘어, 그들이 향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며 소개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글 | 오영주(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참여 작가 인터뷰>

프로젝트 그룹 아랫실 대표 안경진

우리동네 문화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의 미술은 대중에게 언제나 어려운 존재였고 그 괴리감이 커져 가는 것에 나 또한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우리동네 문화 가꾸기 사업은 대중으로부터 소외된 미술을 다시 모두가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으로 여겨졌고 이 기회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프로젝트 기획 의도는?

프로젝트 그룹 아랫실은 조각을 전공한 젊은 작가들로 구성된 팀이다. 평면적이거나 벽화로 일관된 공공미술보다 입체적인 조형작품을 위주로 구상하였고, 구로구에 위치한 거리공원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탄생된 이미지를 조각 작품으로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해 예술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몇몇 어르신들은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는 질타도 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제작 설치된 작품들이 당장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제 논리를 벗어나서 그 작품들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예술의 본질이며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참여 주민 인터뷰>

'소통을 통한 오해의 극복'에 참여한 양인찬 주민

산기슭공원 숲 넘어 보이는 여성 발전센터의 기다란 회색 콘크리트 옹벽 덩어리는 늘 무미건조하고 삭막하며 답답했습니다. "아! 저걸 자연석 화단으로 만들어 돌 틈에 꽃단장을 하거나 아이들의 미술 전시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또 청계천 벽면처럼 타일을 이용해 소망의 벽을 만들거나 사회적으로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벽화로 새 단장한다면 생명력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짙게 남곤 했지요. 그러던 차에 지역 주민이 공공공간을 꾸며보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소식과 함께 참여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공공미술 그룹 퍼블릭아트 피바의 도움으로 진행된 <소통을 통한 오해의 극복>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는 '아코디언 북 만들기', '오해의 벽 이해하고 조명하기', '오해의 벽 인정하고 소통하기' 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토대로 옹벽에 설치될 작품의 시각적 의미와 이미지를 도출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나온 주민들의 결과물을 토대로 옹벽에 설치될 작품은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이미지는 서로간의 소통의 장애를 의미하는 것이며, 밤의 어둠 속 불빛을 이용한 숨은 그림의 발광은 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생성하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두 개의 그림이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위, 아래 두 동네는 결국은 하나의 일체감 속에 오해의 벽을 허문 '빛으로 표현된 소통의 장'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SFAC News

서울문화재단-예술경영지원센터 공동 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10월 8일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업무적 차별성을 상호보완하여 문화예술지원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술단체의 역량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루어졌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로는 통계자료, DB 등 예술정보 구축과 공유를 위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사업, 예술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술경영 컨설팅 지원,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실무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예술단체의 해외 진출, 국제행사 개최 등의 국제교류 지원,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예술지원박람회(11.16~11.17)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2009 아트마켓 참가 10월 13~15일 3일간 부스전시 참여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에서 국립극장, 남산예술센터에서 열렸던 서울아트마켓에 서울문화재단이 부스를 설치, 적극적 홍보에 나섰다. 2005년을 시작으로 5회째를 맞은 2009 서울아트마켓은 홍보 부스 전시,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정하여 쇼케이스 자리를 마련하는 팸스 초이스 2009 외에도 다양한 테마세션, 실무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다. 서울문화재단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로비에서 진행된 부스전시에 참여했다. 이번 아트마켓에는 총 83개의 예술단체 및 기업, 관련 기관들이 부스를 설치해 활발한 네트워킹 및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선정단체에게 최대 5억원 지원 2010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 공연작품 공모

서울의 고궁을 무대로 한 '고궁뮤지컬 공연사업'은 <화성에서 꿈꾸다>(2007), <공갈전>(2007), <명성황후>(2008), <대장금>(2008, 2009) 등 한국의 대표

창작 뮤지컬을 공연해 온 바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2010 고공뮤지컬 창작공연을 공모한다. 공모부문은 뮤지컬 또는 음악극 형태의 공연예술로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정체성과 역사성을 지닌 작품이어야 한다. 응모자격은 창작에서 제작, 마케팅까지 가능한 단체 및 사업자로, 선정단체는 최고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예정이다. 오는 11월 8일까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에서 원서를 배부한다.

‘책, 영화와 만나다’ 11월의 프로그램 SF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 대해 전문가들을 통해, 또는 감독과의 만남을 통해 심도 있게 이야기 해 보는 시간 ‘책, 영화와 만나다’가 11월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달은 SF영화 중 최고의 걸작이라 불리는 <블레이드 러너>와 <솔라리스>, 두 편의 영화를 중심으로 SF 작가들이 어떻게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상상이 시각화되는 과정에 대해 SF해설가 박상준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일시	11.24(화) 19:30~21:00
장소	서울문화재단 1층 책사랑
강사	박상준 (SF 해설가)
신청방법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문화공간)책사랑 책다방 책으로 만나다 신청계시판



‘Leader&Reader’ 11월 저자와의 만남 ‘잘가요 언덕’의 저자 차인표와 함께

서울문화재단은 2009년도 ‘책 읽는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매달 저자와의 만남 ‘Leader & Reader’를 주최하고 있다. 중앙일보, Yes24와 함께하는 독서캠페인 ‘YES Book’ 책을 읽자 희망을 읽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본 프

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노희경, 김용택, 신경숙, 박범신, 구병모, 김탁환 이상 총 6명의 작가를 초대한 바 있다.

11월에 만나볼 저자는 소설 「잘가요 언덕」을 통해 작가로 데뷔한 차인표다. 선 굵은 연기와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등의 반듯한 생활로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영화배우 차인표의 장편소설은 어떠할까. 문학평론가 이어령은 추천 글에서 이 작품을 “배우 차인표가 아닌 작가 차인표의 행보가 궁금해지게 만드는 역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신인작가답지 않은 노련한 솜씨를 극찬하기도 했다.

행사는 팝칼럼니스트 김태훈의 진행으로 오는 11월 25일(수) 서울연극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YES Book 캠페인 사이트(joins.yes24.com)에서 받고 있으며, 총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팀(02-3290-7145)으로 문의 바란다.

일시	11.25(수) 19:30~20:30
장소	서울연극센터 (혜화역 4번 출구)
초청작가	차인표 (소설 「잘가요 언덕」의 저자)
참가신청	joins.yes24.com에서 접수



서울문화재단-링컨센터예술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및 '09 LCI 초청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개최

서울문화재단은 재단 설립 직후부터 LCI와 지속적으로 맺어온 5년간의 인연을 바탕으로 링컨공연예술센터 부속 링컨센터예술교육원(LCI : Lincoln Center Institute for the arts in education)과 향후 5년간의 업무 협약(양해각서)에 조인(2009년 9월 8일)했다. 재단은 LCI의 35년 노하우를 통해 정립된 다양한 미적체험교육의 파트너로서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젊은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를 위한 예술교육” 철학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다.

이에 재단과 링컨센터예술교육원은 2009 링컨센터예술교육원(LCI) 초청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을 필두로, 201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자대상 국제워크숍" 등 국제 규모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적체험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준비 중이다.

2009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은 국내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링컨센터의 예술교육전문가들이 직접 구성한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오는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총 5일간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에서 개최된다. 7인의 LCI TA(Teaching Artist : 전문예술교육가)가 직접 강의 및 교안 개발에 투입되고,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교육 전문가 70명(공고 및 선발)이 참가하는 이번 워크숍은 사다리움직임연구소의 <보이체크>, 설치미술가 안수진 작가의 개인전을 대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수료 시 링컨센터에서 매년 수행되고 있는 국제워크숍과 같은 인증서를 발급하며, 내년 뉴욕에서 열리는 링컨센터 워크숍 수강 시 입문과정 수료를 인정받아, 심화과정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워크숍 기간 중에 링컨센터와의 MOU 관련 설명회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공연 연계 미적체험교육 프로그램 진행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에서는 『2009 페스티벌 場[장]』 참가작품 중 2개 작품을 주제로 『NEW WAVE 체험 워크숍 - 공연 연계 미적체험교육』을 마련해 관객들이 참가하는 소통의 장을 펼쳤다. 10월 8일에는 4관객 프로젝트의 'The Blue'를 주제로 한 '소리와 오브제를 통한 연극성 체험공간 '연극 실험실'로 놀러 오세요', 13일에는 김윤진 댄스컴퍼니의 '다녀오세요, 구두가 말했습니다II'를 주제로, 공연의 중심 오브제를 활용한 체험을 통해 공연의 느낌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분출함으로써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미적체험교육, "나, 구두를 통해 입을 열다,

일상적 생활 속의 나 들여다보기"를 진행했다. 11월에는 '장기하와 얼굴들 : 정말 별 일 없었는지' 공연과 연계한 미적체험교육의 장이 준비되어 있다. 남산예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문화예술로 여는 인생 제2막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발표회 개최

서울 전역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체험형 통합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2009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이 올해를 결산하는 발표회를 연다.

오는 11월 25일(수) 오후 3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개최될 이번 발표회에서는 전체 20개 프로그램 중 국악뮤지컬, 연극, 무용, 마임 등 공연예술 관련 11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1년간 함께 만들어온 예술교육의 결과물을 선보인다. 또한 영화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발표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02-758-2018~9)으로 하면 된다.



우수 문화예술교육 전문미디어 상영회

‘보고보고 또 보고!’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정보자료관과 연계한 우수 문화예술교육 전문미디어 상영회를 개최한다. 2009년에는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나 수업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들을 위해 아동기 아이들의 심리, 학교생활, 청소년들의 교육현실 등을 토대로 향후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그 각각의 사례들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에서 진행하는 ‘통합예술교육공연 프로젝트’와 ‘저명예술가 예술공헌 프로젝트’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홈페이지(www.e-sac.or.kr)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02)758-2032 또는 derevo@sac.or.kr로 문의하면 된다.

일시 2009.10월~12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시간 오후 6시 30분~8시

장소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정보자료관

대상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일정	테마	내용
11.10	서울문화재단이 자체 개발한 독창적인 통합체형 예술교육프로그램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토우마를 상상여행')	연극과 무용의 만남
11.24	3부작 다큐멘터리 (열다섯 살 꿈의 교실 '꼴지라도 괜찮아')	한국은 공부를 잘하는 나라지만 부러운 나라는 아니다.
12.08	특별기획 세계의 예술교육, 그 현장을 가다 ('웨스트엔드의 미래, 교실에서 자란 영국')	전통과 현대의 조화
12.22	서울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저명예술가, 희망의 예술교사 (Arts-Educator)되다!)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명 예술가와 1:1학교 매칭 시스템



11월의 대학로연극투어

연극 '맥베드' 관람

서울연극센터는 오는 11월 22일(일) <11월 대학로연극투어 - 연극 '맥베드'>를 운영한다. 연극배우 오지혜의 진행으로 대학로 속 일일사색 만남을 통

하여 대학로, 그리고 연극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10월 26일(월)~11월 8일(일)까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www.daehangno.or.kr)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선정자 발표는 11월 9일(월)이며 참가비는 1인 1만원이다.

—日四色 하나	서울연극센터 및 연극 '맥베드' 소개
—日四色 둘	아르코예술극장의 백스테이지 투어
—日四色 셋	이야기가 있는 대학로 산책
—日四色 넷	연극 '맥베드' 관람

대학로연습실 II (5관, 6관) 추가 개관

저렴한 비용, 쾌적한 환경의 연습실 운영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온 대학로연습실이 지난 10월 6일 대학로문화공간 2층 (現)문화공간 이다건물 2층)에 두 번째 연습실을 개관했다.

2개월 단위로 정기대관이 진행되며, 연속 20일 이상 장기 대관을 원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기대관 공고 및 접수는 해당 정기대관 시작일 2개월 전 15일부터 진행된다.

세미나실은 매월 정기대관이 진행되며 연속 2일 이상,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만 접수 가능하다. 정기대관 공고 및 접수는 매월 1일부터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및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학로연습실(02-747-7805)로 문의 바란다.

대관장소	대관종류	신청자격	신청 접수기간
연습실 (1~6관)	정기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정기대관 기간 내 연속 20일 이상 장기대관을 희망하는 단체 1주일 이내로 다음 정기대관 기간까지 이월 대관 희망 시에는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정기대관 시작일 전 2개월 전 15일부터 30일까지
	수시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관신청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정기대관 시작일 전 15일부터 사용희망일 1일전까지
세미나실	정기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 2일 이상, 주 1회 이상 정기적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정기대관 시작일 전 1개월 전 1일부터 7일까지
	수시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관신청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정기대관 시작일 전 1개월 전 15일부터 사용희망일 3일전까지



서울열린극장 창동 11월 공연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해설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울열린극장 창동에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 '피가로의 결혼'이 국립오페라단의 현대판 버전으로 재탄생했다. 야구단이라는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구단주와 선수간의 관계로 새롭게 작품을 풀어나갔으며, 해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1월 13일(금)과 14일(토) 양일 간 저녁 7시 30분 무대에 오른다. 관람료는 R석 15,000원, S석은 10,000원이며, 만 7세(취학아동) 이상 관람 가능하다.

가족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아이들의 베스트셀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를 원작으로 제작된 가족뮤지컬. 어느날 갑자기 머리위에 똥벼락을 맞은 두더지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그린 본 공연은 11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평일은 2시, 4시 30분, 7시 30분, 주말에는 11시, 2시, 3시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다.

금난새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주부들이 자치 무료로 지나칠 수 있는 오전시간을 이용해 마련된 클래식 공연 '금난새의 브런치 콘서트'. 지휘자 금난새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진행으로 매번 매진행렬을 이룰 정도로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다. 11월 26일(목) 11시에 진행되며, 관람료는 전석 10,000원이다. 만 7세(취학아동) 이상 입장 가능하다.

노원구 주민들을 위한 무료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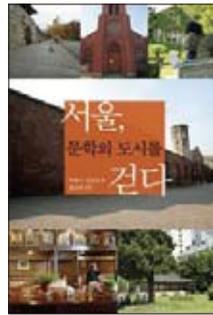
오는 11월 29일(일) 저녁 8시, 노원구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 클래식 음악회가 열린다. 전석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만 7세(취학아동) 이상 입장할 수 있다.

*공연 관련문의 : 02-994-1469



열두 개 문학 산책코스를 담았다

『서울, 문학의 도시를 걷다』



서울문화재단이 지난 8월 출간한 『서울, 문학의 도시를 걷다』가 출간 2개월 만에 2쇄를 찍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단행본은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의 서울문화예술지도 콘텐츠 구축사업의 첫 결실로, 문학을 통해 서울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책이다.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는 이렇게 숨어있는 서울의 문화자원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통해 600년 서울이 지닌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켜나 가려고 한다. 매년 다양한 문화예술을 테마로 서울의 이야기들을 개발해나 갈 계획이며, 2010년에는 그 두 번째로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를 출간할 예정이다.

연희문학창작촌 매니저 안현미

시집 『이별의 재구성』 출간

2006년 첫 시집 『곰곰』에서 활달한 상상력과 탄탄한 언어감각으로 개성 있는 시세계를 펼쳐 보이며 독자와 평단의 주목을 끈 안현미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이별의 재구성』이 출간되었다. 경쾌한 말놀이와 감각적인 환상은 독특하고, 그 안에 담긴 누추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은 묵직하며, 그 바탕에서 우러나는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은 간절하다. 이번 시집에서도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말을 다루는 시인의 능란한 솜씨다. 시집은 시중 활달한 언어유희로 유쾌하다. 비틀어 쓴 문화적 전거가 시편마다 경쾌한 리듬을 부여하며 시를 읽는 재미를 맛보게 해준다. 때로는 현실의 흔적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연상이 또 다른 연상으로, 환상으로 자유자재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불편한 듯 따뜻하고 활달하면서 애절한 시집의 작가 안현미 시인은 현재 서울시창작공간 연희문학창작촌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을 무대로 한

뮤지컬

2010년

공연 작품 공모



사업명

2010년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 공연사업
고궁뮤지컬 창작 및 공연 프로젝트 작품 공개 공모

지원대상 및 응모자격

창작뮤지컬 또는 음악극 형태의 공연예술 제작단체(순수창작 또는 기존 각색작품 모두 가능)
: 창작에서 제작, 마케팅까지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및 사업자

공모주제

고궁(경희궁)의 장소성, 야외무대 특성을 고려한 고품격 문화상품 개발

공모기간

2009. 9. 28(월) ~ 11. 8(일) / 42일 간

신청접수

2009. 11. 9(월) 10:00 ~ 18:00 / 서울문화재단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작품규모

1,000석 내외 중·대극장 규모의 100분 전후 공연이 가능한 작품

지원규모

최고 5억원 이내

서울문화재단
11월의 문화 캘린더

11

November

구분	사업	단체	연락처	일시	장소
생활속예술지원사업					
시각	골목길 프로젝트 - 효자동에서 길을 찾다	갤러리 콘스트독	02-722-8897	3/15 ~ 12/14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일대 골목길
	아트메신저 - 가상공간을 매개로 한 예술체험과 소통	현대미술발전연구원		5월 ~ 12월	인터넷 및 전시장
	문래3가, 독립영화 정기 상영회	이소주		1/31 ~ 12/19	문래철제상가내 골목길, 복합 문화공간 'laboratory39', 복합문화공간 그날, 스튜디오 증광장
	다이어고날 필름 아카이브 실험영화 Artist's film & videO 정기 상영회	다이어고날 필름 아카이브	02-3141-1841	1/1 ~ 12/1	
	"09년 발달장애인의 웃음이 넘치는 풍경"	사단법인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02-742-0142	5/14 ~ 12/31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및 서울역 오픈콘서트홀
	국영문 미디어아트 웹 EYEBALL 정보화사업	이안	031-521-0717	1/1 ~ 12/31	www.eyeball.or.kr
음악	정기발표회 및 앙르원 6회 봉사연주 활동	아마레첼레방안상블	02-776-8031	5/1 ~ 12/31	인디스페이스
	제 9회 정기연주회 외 1건	마론관현악단	02-923-1478	4/11 ~ 11/21	정독도서관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연주	아마레 앙상블	02-769-4180	1/1 ~ 12/30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통기타이야기	통기타이야기	02-446-3542	5/13 ~ 12/31	올림픽공원 88호수 수변무대
	살튀모클라리넷앙상블의 '찾아가는 클라리넷'	살튀모클라리넷앙상블	02-430-0574	1/1 ~ 12/31	나루아트센터 외
	젤로스 윈드 앙상블 사랑 나눔 연주회	젤로스 윈드 앙상블	02-521-7170	5/1 ~ 12/30	은평의마을, KBS홀
전통	맛노픈소리 정기발표회	맛노픈소리	02-2000-6421	2009-11-01	남산국악당
	북촌에서 한옥 배우기	(사) 한옥문화원	02-741-1441	4/3 ~ 11/24	한옥문화원강의실
	찾아가는 참소리 초마당	참소리 국악 전수원	02-711-9395	1/1 ~ 12/31	연봉경로당, 공덕1동 경로당
	'2009년 하늘명문 열려라~' 지신발기교육	하늘명 어린이 국악 예술단	02-3409-5600	3/10 ~ 12/20	하늘명 대관공간, 화양동 당산 나무
	신명나눔으로 찾아가는 사회 소외계층 방문 공연/연회	신명나눔	02-742-7959	5/27 ~ 12/31	
	전통예절	성익순	02-822-9186	4/1 ~ 11/30	북촌문화센터
	독거노인 및 장애인과 함께하는 우리소리 우리춤	박명옥	02-2066-2555	5/2 ~ 11월	강서구민회관, 청운로원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마을 풍물패 워크숍	성미산풍물패	02-338-3337	7/1 ~ 12/31	풍물굿패 살판 연습실, 성미산 마을극장
	2009 살판나는 세상	풍물굿패 살판	02-338-3337	6/12 ~ 11월	
문학	제10권 예미 시낭송 회원 사회집 발간 및 시낭송회(122회-133회)	(사)가죽아카데미	02-732-8144	1/1 ~ 12/20	
	조선조 과거 재현	한국한시협회	02-765-5675	6/8 ~ 11/20	
	제17회 전국 한시 백일장 개최 및 시집 발간				
	매월정기 시낭독회	공간시낭독회	02-2274-1340	1월 ~ 12월	
	디지털문학공연시리즈	문지문화원 사이	02-323-4207	6/20 ~ 11/14	
문화일반	사진 갤러리 레이소다(정보화, 웹사이트)	㈜레이소다	02-508-5063	1/1 ~ 12/31	
	꿈꾸는 작은나무 - 생활속 문화예술 만들기 프로젝트	문화예술기획네트워크 '작은사람들'	010-9982-0125	2/1 ~ 11/30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반대유지컬 예술치료	한국예술치료협회	02-575-7687	8/1 ~ 11/30	
	이웃과 함께 하는 잔치마당 "나랑 같이 놀자"	어린이 도서관 책임은 엄마 책임은 아이	02-2297-5935	7/1 ~ 11/15	
	고령화 사회의 문화복지를 위한 노인 문화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02-773-5465	9/3 ~ 11/12	
	'한국전통기본무' 책발간 : 출판/강좌/교육	안춘자(개인)	02-525-5080	4월 ~ 12월	
	구보박태원 탄생 100주년기념 문화사업	구보박태원탄생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보학회	02-3277-6663	5/30 ~ 12/12	
	대안공간 풀 저널-6페이지 발간사업	대안공간 풀	02-396-4805	1/15 ~ 12/15	
	'창립 20주년 기념' 2009년 고전문화강좌	(사)전통문화연구회	02-762-8401	1/5 ~ 12/30	
	2009 지하철예술무대 "SUBWAYTHEATER"	지하철예술인협회 (구, 공연예술기획 이일공)	02-3477-1531	3/1 ~ 12/31	
	서울지역 역사 및 전통문화연구 보존	서울문화사학회	02-762-0155	2/1 ~ 12/30	
	시민을 위한 행복프로젝트 - 종이문화예술작품 전시회 및 종이접기 종이문화체험교실	종이문화재단	02-2279-7900	6/22 ~ 12/30	
	다문화 이해를 위한 영상교재개발과 순회강연	이주 노동자의 방송 MWTV	02-776-0416	5/1 ~ 12/31	
	홍대 지역 월간아트 맵 "쓸모있는 종이" 발행	이스트 브릿지	02-333-0955	1/1 ~ 12/31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교실	신나는 문화학교 교사협회	02-334-8209	3/16 ~ 12/19	
	Play-ing 2009_Open the Source!	토탈미술관	02-379-7037	7/1 ~ 11/15	
	2009 지하철은 내 친구 - 시민노래자랑 대회	(사)철도, 지하철 예술진흥 연구원	02-3472-0797	5/9 ~ 12/5	
시민축제지원사업					
시민축제	2009 제 9회 젊은작가전	월간 춤과 사람들	02-712-1685	5/9 ~ 10/31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Jazz Park 공연	컬처캐스팅그룹	02-528-3355	1/21 ~ 12/16	성우센터 이벤트홀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한국무용	2009 율미라 무용단 <화첩-공무도화> 재공연	율미라 무용단	02-961-0395	11/10~11/11	아르코 예술극장
전통무용	전통 몸짓과 현대 몸짓의 만남(부제: 재움과 비움)	박영수	02-747-9242	11/1~11/2	한국문화의집 KIOUS
무용	2009년 K.B.A 창작 페스티벌	사단법인 한국발레연구학회	02-588-1848	2009-11-13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정극	마지막 20분 동안 말하다	투비컴퍼니	02-744-7304	10/8~10/1/3	아츠플레이씨어터 2관
	눈 속을 걸어서	극단코끼리만보		11/24~12/31	투신아트센터 스페이스 111
	테레즈 라캥	극단동	02-764-4368	11/4~11/29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나온씨어터
	스페인 연극	극단겨울	02-2696-2862	10/28~11/22	대혁로예술극장

■ 생활속예술지원사업

■ 시민축제지원사업

■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 2009공연창작활성화지원사업

■ 서울열린극장 창동 공연

■ 남산예술센터 극장 공연

■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연 및 전시

구분	사업	단체	연락처	일시	장소
	윤이상, 나비이마주	극단은세계	02-747-2250	10/22~11/8	엘림홀
	먼데이 PM 5:00	극단신기루만화경	02-997-3785	11/6~11/29	대학교예술극장 3관
	한국마임 2009	한국마임협회	02-325-8150	11/2~11/16	블랙박스 씨어터
	우리시대의 무용가 2009	공연기획 MCT	02-2263-4680	11/10~11/11	서강대 메리홀
	제5회 장애인 나눔연극제	사)한국장애인문화협	02-859-8288	11/1~11/8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김주원 플루트 독주회 음(음)시리즈 8,9	김주원		11/7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Mozartlike-모차르트 협주곡 전곡 시리즈1	민유경		11/17	장천아트홀
	권정구 첼저콘서트 '기타와 양상불'	권정구	02-3452-9703	11/28~11/29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최경일의 호른시리즈 세번째 이야기 -20세기 음악속의 호른	최경일	031-276-6030	11/1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전희연 독주회	전희연	02-412-0885	11/22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베리타스 뮤지케 음악제 -정기작품 발표회, 초청강연회	베리타스 뮤지케	02-3216-5879	11/25	세라믹팔레스 홀
	밀레니엄 신포니에타 연주회 "Mendelssohn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	밀레니엄 신포니에타	02-395-9916	11/29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김주현 바이올린 독주회	김주현	02-514-3753	11/3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양소운의 예술과 배뱅이굿 추모공연	황해도 춤, 소리보존회	02-743-3371	11/26	남산한옥마을
	민속악회 시나위 창단 40주년 기념공연[시나위]	민속악회 시나위	070-7626-6765	11/5	국립국악원 예악당
	전통가곡연구회 정기발표회(가곡,가사,시조)	전통가곡연구회	02-392-1211	11/5~11/19	남산국악당
	사단법인 한국정악원 개원 100주년 기념음악회	사단법인 한국정악원	02-3277-2449	11/17	한국문화의집 코코스
	안은경 피리 콘서트 'Sound Painter'	안은경	02-454-0555	11/1	DS홀
	사주현의 네번째 수련(手鍊) Singing	사주현	02-569-7546	11/5	DS홀
	마술과 함께하는 한층은의 빼빼로데이 퓨전콘서트 "금성신화VI" 2009 신악회 작품발표회	한층은		11/11	나루아트센터 대극장
	신악회	신악회	02-967-8145	11/30	한국예술종합학교 소극장
음악(국악)	서울음악의 재발견, 신민요의 멋 속으로	신민요연구회	02-375-0595	11/24	아트홀 불
음악(시조)	제2회 전국 시조명인명창초청발표회	(사)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	02-860-8608	11/9	한국문화의집
국악	양금과 함께하는 국악창작의 하루	송승은	070-8237-5753	11/11	서울남산국악당
기악	금화악회 정기연주회 '현의 노래'	금화악회	02-3277-2449	11/19	국립국악원 우연당
시각	제7회 서울미술대상전	사)서울미술협회	02-723-2491	11/24~11/28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universal resonance amid lights -west meets east	이민주	02-732-3777	11/24~12/3	한백원갤러리
	이세경 개인전 - Hair on the white Porcelain	이세경	02-3448-2112	10/8~11/7	갤러리2
	김밝은터 개인전	김밝은터	02-730-5454	11/4~11/10	갤러리라베르
	필들의 산책II-제6회 정경화 개인전	정경화	02-741-2296	10/21~11/1	북촌미술관
	제7회 이윤정개인전 <근>	이윤정	02-720-2235	11/11~11/17	노암갤러리 제1전시실
	Wraps-made Architecture	배기열	02-730-6540	10/28~11/3	신상갤러리
	정성윤 개인전	정성윤	02-725-6751	11/19~12/11	김진해갤러리
	버려진 God For Saken	노재운		7/1~12/31	http://God4Saken.net
	제10회 이택근 개인전-다르게 생각하기	이택근	02-722-8897	11/4~11/20	쿤스트독 프로젝트 스페이스
	Cinemat Installation 전	김태은	02-540-2017	11/2~11/19	인더박스 갤러리
	media in life	전지윤	02-363-2093	10/21~11/13	대안공간 총정각
	양화100주년 기념	문화미래포럼 미술분과	02-3447-5100	11/6~11/27	갤러리 루미나리에
	플렉시블 아우라 (Flexible Aura)	변현주	02-725-9520	10/15~11/1	브레인 팩토리
	해외전시 (개인전) 및 창작활동	김진란		8/1~11/30	Gallery Brobrecht, St.-Matthaeus Kirchof 베를린
	유비호개인전	유비호	02-3445-5123	10/21~11/6	123갤러리
	임승천 개인전	임승천	02-739-1666	11/18~12/1	모로갤러리
	나진숙 개인전	나진숙	02-733-1045~6	11/25~12/8	그림슨 갤러리
	개인전 "Cloud - Cuckoo - Land"	이소영	02-542-7050	10/27~11/13	갤러리&카페-호기심에대한책임감
	신진 작가 릴레이 쇼 지원 프로젝트	언더그라운드아트채널		5/1~2010/1/31	오프도시
	FEAR-극복의 도구들	윤상열	02-733-6469	10/28~11/10	관훈갤러리
	사과의 받아쓰기III	정명국	02-3701-5755	11/4~11/17	문화일보 갤러리
	김성희 개인전	김성희	02-736-6669	11/4~11/10	갤러리이즈
	Momental Play! (사운택 개인전)	사운택	02-515-3970	11/7~11/17	UM갤러리
	더 북 소사이어티 The Book Society	미디어버스	02-733-8945	10/23~11/5	한국디자인문화재단, 아트선재센터 1층더북스
	허혜욱 개인전(전시홍보)와 작가정보 Network구축 (인터넷웹사이트)	허혜욱	02-3675-3396	7/8~11/30	갤러리 소나무
	김영은 개인전	김영은	02-3141-1377	11/13~12/22	대안공간 루프
	박은선 개인전 : <Castle_성>전	박은선	733-8500 3210-2300	11/4~11/22	갤러리 아트파크
	트라이앵글프로젝트(전시)	할아택	031-774-4147	6/12~11/1	상명대학교 스페이스원, 제로
	윤명순 전(전시)	윤명순	02-3474-0013	11/26~12/9	비주얼아트센터 보다갤러리
	박상희 개인전 <THE 2nd LIFE>	박상희	02-515-3970	11/19~11/29	UM갤러리
	'Mind map 마음의 지도'-신혜림 장신구전	신혜림	02-734-1333	11/11~11/17	가나아트스페이스
	"Planning a Year" (한해 계획세우기)	권소정	02-738-2745	11/28~12/10	갤러리담
	김주호조각전(삶의 돋보기)	김주호	02-722-7760	10/28~11/10	나무화랑

구분	사업	단체	연락처	일시	장소
	김순철작품전 - 이미지와 실재, 그 사이	김순철	02-730-5824	11/4~11/17	백송갤러리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연극	눈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	극단이루	02-747-3226	9/25~2010/1/03	선돌극장
	"Morir"(죽는다는 것)	극단주변인들	070-7555-7195	10/30~11/29	아름다운극장 (100석)
	내 방 왕국 대모험	극단사다리	02-382-5477	11/5~12/6	원더스페이스 세모극장
	극단 창파 정기공연 <출구와 입구>	극단창파	02-599-7740	11/11~11/29	정보소극장
	언니들	똥먼지		11/11~11/22	아트원씨어터3관(200석)
무용	락희맨쇼	극공작소마방진	02-3676-7849	11/19~12/31	마방진극공작소
	댄스컴퍼니 더 바다 2009년 신작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 공연	댄스컴퍼니더바다		11/21~11/22	대חק로예술극장 소극장
	최상철 댄스프로젝트 '기억의 방'	최상철댄스프로젝트	031-286-5061	11/2~11/3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602석)
	창작발레 '몽유도원도'	(사)코리언발레씨어터	02-3408-3278	11/6~11/7	국립극장 해오름
	김은희 2009년 신작 <마라 (魔羅/mara)> 공연	김은희무용단		11/18~11/19	대חק로예술극장 소극장
	21세기악회 40주년기념음악제	21세기악회	031-923-4358	11/10~11/11	영산아트홀
	2009 음악가들의 창작공간	(주)부암아트	02-396-6664	11/07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하이든 서거 200주년 기념 하이든 교향곡 시리즈 Symphonic Haydn Series <The Original>	서울클래시컬 플레이어즈	02-501-1330	11/10	한천아트센터
	콤포르티 21 제33회 정기연주회 "시대를 잇는 거장 하이든, 멘델스존 그리고 바르톡!"	콤포르티21	02-548-5889	11/12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2009 현대 음악 앙상블 (Eclat) 정기 연주회	현대음악앙상블(Eclat)	02-450-3832	11/29	영산아트홀
	다문화 가정 문화공감 프로젝트 -국악뮤지컬	한국전통문화예술단 소리나루	02-481-1031	11/20~11/22	한국문화의 집(241석)
2009공연창작활성화지원사업					
뮤지컬	뮤지컬 <빨래>	명랑씨어터수박	02-929-3335	7/24~2010/1/3	학전그린소극장
연극	맥베드	극단 죽죽	6401-1657	11/4~11/29	스튜디오 76
서울열린극장 창동 공연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해설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02-994-1469	11/13~14, 19시 30분	열린극장창동
	가족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02-994-1469	11/20~22	열린극장창동
	금난새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02-994-1469	11/26 11시	열린극장창동
	노원구 주민들을 위한 무료음악회		02-994-1469	11/29 20시	열린극장창동
남산예술센터 극장 공연					
	장기하와 얼굴들 드라마 콘서트 <정말 별 일 없었는지>		02-758-2150	11/24~29 (평일 8시, 토요일 7시, 일요일 6시)	남산예술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연 및 전시					
	2009 흥대 앞 마켓 · 문화컨텐츠 연례보고展		02-333-0246	11/6~8(외부 마켓) 11/4~15(아카이브전)	흥대 앞 주차장거리(마켓) 서교예술실험센터 전관(아카이브)
	제이슨 칸(Jason Khan) 사운드 아트 전		02-333-0246	11/20~29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옥상공방 공공 워크숍		02-333-0246	10월~11월 (매주 화, 토요일)	서교예술실험센터 옥상
	서교음악싸롱		02-333-0246	매주 월요일 14:00~16:00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상상마당과 함께하는 흥대 앞 재발견		02-3141-7030	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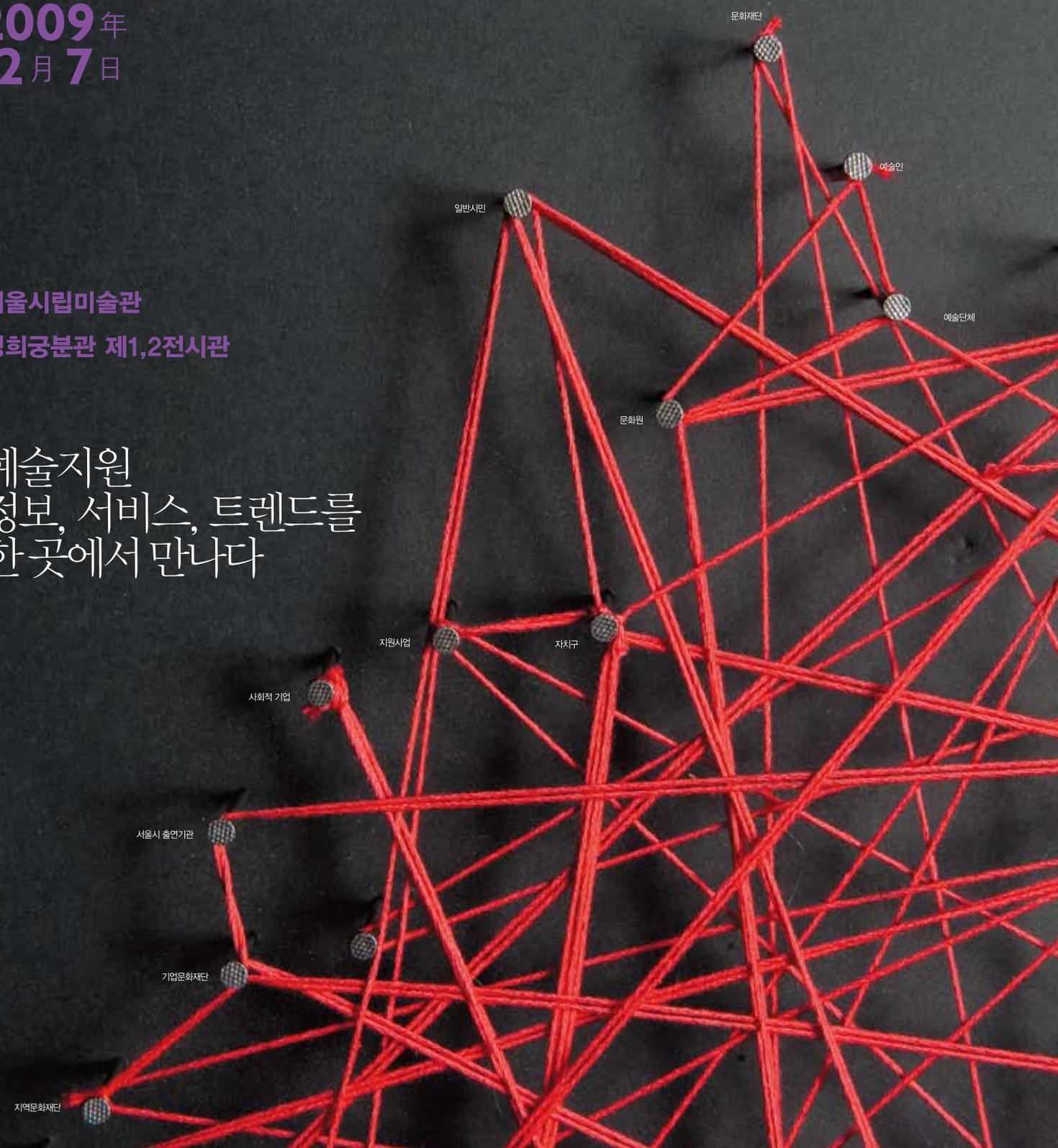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

2010 SEOUL ARTS SUPPORT PROGRAMS FAIR

2009年
12月7日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제1,2전시관

예술지원
정보, 서비스, 트렌드를
한곳에서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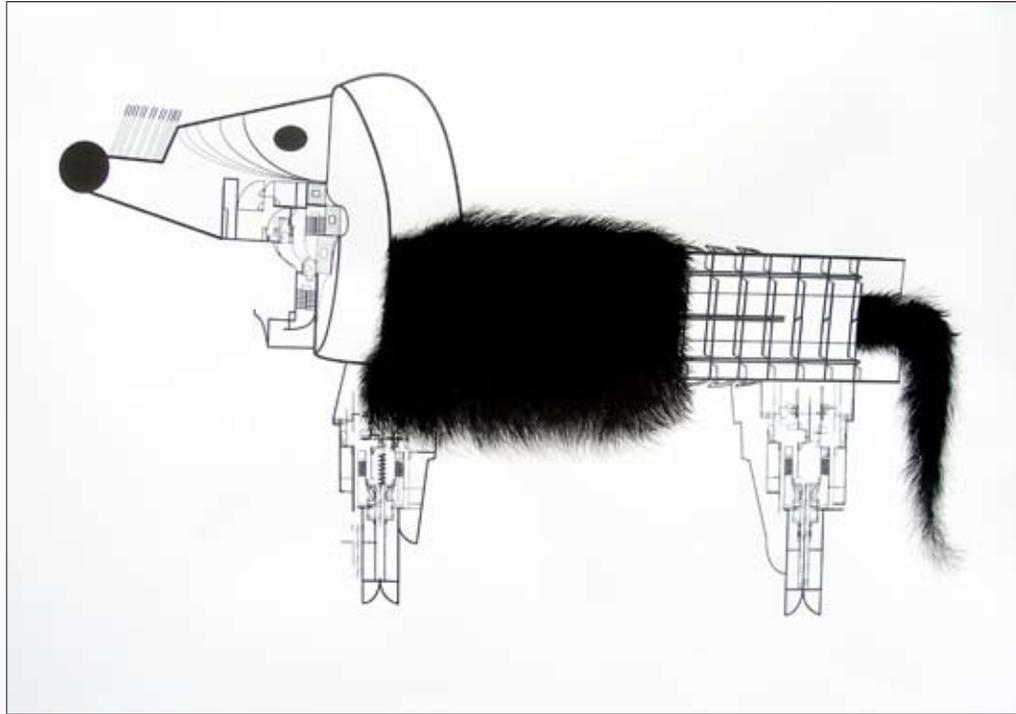
Hi Seoul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문화재단

문의 120 다산콜센터

협력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하자센터



'에이피티'라는 이름의 짐승 아파트 도면을 이용한 컴퓨터 드로잉 + 핸드 드로잉, 95 x 124cm, 2008

현대에서 과연 생명이란 어떻게 재정의 되는지에 관한 고민이다. 애완 시리즈 작업은 인간중심주의의 '공존'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도시와 자연을 분리하여 동물은 자연으로, 인간은 도시로 구분시키는 단순한 이분법적 공존의 개념이 아니다. 어느덧 인간의 계급화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을 보며 인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공존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본다.

이 해 민 선

개인전

2009 덜 죽은 자들 2 - 드로잉 전 : 예정(갤러리 그문화, 서울) / 2008 덜 죽은 자들(갤러리 도올, 서울)
2006 임대공간 변이 체(갤러리 킹, 서울) / 2005 피가되고 살이되는(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 서울)
2004 '안 유명한 작가의 개인전'(갤러리 창, 서울)

2인전

2003 아트서울(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기획공모 선정전, 서울) / RE-MAKE(스페이스 빔 - 기획공모 선정 전, 인천)

주요 기획전

2009 동아 미술제 - 종의출현(일민 미술관, 서울) / 한국작가 4인 전(Gallery Fukuzumi, 일본) / 2008 창작해부학(경기도 미술관, 안산) / comette(파리, 프랑스)
드뷔리아포넴(파리, 프랑스) / 과학정신과 미술(국립현대미술관 -KAIST 공동기획, KAIST, 대전)
크리에이티브 마인드(사비나 미술관, 서울) / 국립과학연구센터 설립기념전-자구의 빛(국립과학연구센터, 과천) / 2007 Art-Lan-Asia(zaim gallery, 요코하마, 일본) / 미술과 수학의 교감(사비나 미술관, 서울)
2006 젊은 모색(국립현대 미술관, 과천) / 광주비엔날레 - 아트마켓(광주 시립민속박물관, 광주) / 표류일기(동덕아트갤러리, 서울) / 청년미술 - 포트폴리오 2005(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2004 광주비엔날레 상상릴레이(광주비엔날레 제 4전시관, 광주) / 새로운 시각(대안공간 풀, 서울) / 2009 서울문화재단 NaArt 지원금 수혜 / 2006, 2008 문예진흥기금 수혜